

CULTURAL
I M P A C T
ASSESSMENT

- 2017 -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

본 보고서는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코뮤니타스

대표 신동호

연구 개요

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주거환경 노후화, 근린경제 기반 쇠퇴문제 등 경제·사회·환경의 잠재력을 제고시켜 도시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 개선으로만은 성공할 수 없고 다양한 물적, 인적, 문화적 자산을 잘 발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사업지인 아미동, 초장동의 경우 대표적인 피난마을이자 경사지 주거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중층적으로 뒤섞인 지역이자 일본인 거류민들의 비석 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남겨져있는 문화적 혼종/혼합의 지역으로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문화영향평가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국토부)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거, 도로, 공공공간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함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주체들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평가하고 방향 제시가 필요
- 문화적으로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편으로는 피난도시 부산의 전형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고유성, 다양성을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표현해내고 이를 관광, 근린경제 등과 연결하는 문화적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금번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은 강화·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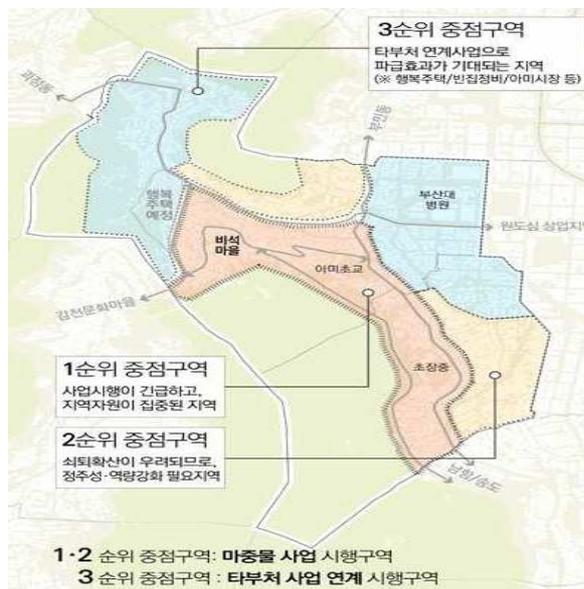
1) 평가범위

- (대상적 범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계획(2017.4월 기준)에 제시된 사업으로 한정함

〈표 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부문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정주환경 개선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기초 집수리교육, 저비용 친환경주택 리모델링 교육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사업	안심골목조성, 커뮤니티 안전정류장 조성
근린경제 활력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 사업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근린상권 활력사업	근린상권 활력사업
역사문화 보전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기록화 사업	근대역사 테마가로 조성,피난생활박물관 및 정보이용원 조성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비석마을 역사광장 조성, 비석마을 추모공간 조성
	하늘경관 정리사업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하늘경관 정리사업
주민참여 확산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모니터링,도시재생대학 운영,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 주민공모사업
	아미·초장 하자마을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마을학교
		마을창작공방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우리동네 건강주치의사업

- (공간적 범위) 본 사업은 비석문화마을(아미동, 초장동) 일대를 공간적 대상범위에 한정함



[그림 1] 사업대상지 구역도

- (내용적 범위)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검토, 문화영향평가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 사업 문화영향평가, 사업 개선방안 제언, 찾아가는 컨설팅 등
- (시간적 범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사전평가에 해당하며, 사업기간이 2017년~2020년이므로, 문화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또한 2017년~2020년으로 설정하고 평가일정은 2017년 6월~2017년 10월(5개월)에 진행됨

2) 평가지표

- 본 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되 세부 평가지표별 키워드 등은 평가기관의 지표설계 회의를 거쳐 사업 성격 및 사업지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최종 확정, 평가에 임함
-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특성화지표로 거주 주민의 개인 및 사회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등 ‘삶의질’ 및 사람이 일정한 장소적 범역 안에서 지속적·영속적인 거주의지를 갖고 머물며 살아가는 성질로서 ‘정주성’을 설정함

<표 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주요 측정개념
공통 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및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7. 삶의질, 정주성		

3) 평가방법

- 본 문화영향평가는 전문평가 중에서도 ‘심층평가’ 유형에 해당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표준분석·평가절차’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아래 <표 3>과 같이 심층인터뷰, FGI, 전문가평가, 관계자(주민)평가로 실시함

〈표 3〉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1. 대상정책 및 계획의 개요 및 특성 분석	2. 관련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3. 현황분석	4. 영향요인의 파악 (이슈도출) 및 문화적 영향 예측	5. 문화영향 평가	6.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7. 찾아가는 컨설팅
--------------------------------------	------------------------------	------------	---	------------------	-------------------------------------	-------------------

○ 세부 평가방법별 일정 및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 4〉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세부 평가내용

평가방법	일정	참석예정자(대상)	주요내용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4일(수) ○ 6월 16일(금) ○ 7월 5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관, 관계자 ○ 평가기관, 관계자 ○ 평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 현황 파악 ○ 사업 계획서 수령 ○ 사업지 현장답사
관계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5일(수) ○ 7월 21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 전문가평가단, 평가기관 ○ 관계자, 전문가평가단, 평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반내용 설명 ○ 사업 세부계획 질의/응답
FGI(FGD) 및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25일(화) ○ 7월 31일(월) ○ 7월 5일(수) ○ 7월 21일(금) ○ 8월 16일(수) ○ 9월 19일(화) ○ 10월 19일(화) ○ 10월 26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 FGI ○ 주민리더 FGI ○ 키포스트 워크숍 ○ 심층 워크숍 ○ 결과분석 워크숍 ○ 통합포럼 ○ 내부컨설팅 회의 ○ 찾아가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자 의견 파악 ○ 주민리더 의견 파악 ○ 현장 답사 및 사업현황 파악 ○ 사업 추진상황 심층 PT/질의응답 ○ 설명자료 공유/평가서 작성 및 토론 ○ 도시재생 사업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평가 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이슈 도출 ○ 평가 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 : 2017년 현재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서구 아미동, 초장동.) • 표본추출프레임(sampling frame) : 통계청 집계구 리스트 • 표본추출방법(sampling method) : 크기비례확률추출방법(PPS : 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을 활용한 집계구 추출 후 계통 추출 방식으로 가구 추출 • 표본규모(sample size) : 400샘플 • 조사방법(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시스템 활용 • 조사기관 : (주) 마크로밀 엠브레인 • 조사기간 : 2017년 7월 25일~2017년 8월 8일 		

○ 본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별 세부 지표 및 평가방법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지표	세부내용	평가방법
A 문화기본권			
A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A11 문화접근성	· 문화접근성 증진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계획 여부 · 물리적/심리적 문화접근성 완화 기여 여부 · 마을 내 주민간 문화격차 해소 여부 · 문화접근성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점수화)
	A12 문화향유수준	·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계획 여부 ·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증진 기여 · 새로운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기회 증진 · 문화향유수준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A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A21 표현 및 참여기회	· 주민 의견수렴 및 의견표현 계획의 적정성 · 의견수렴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여부 · 마을의 의사결정 개방성 및 민주성 · 표현 및 참여기회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FGI/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A22 생활문화예술 참여	· 생활문화활동 참여 공간 프로그램 인력 계획 · 생활문화활동의 주민 요구 반영 여부 · 생활문화활동의 주민 자발성/일상성 증진 기여 · 생활문화활동 참여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B 문화정체성			
B1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B11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	· 문화유산 및 경관 보호 계획의 적정성 · 유형 문화유산의 통합적 접근 여부 · 고유한 건축 문화의 보호 기여 여부 · 비석주택, 경사지 주택, 전쟁 이후 건축 기법 등 · 사업을 통해 조성될 문화유산, 공간 방문 의향 · 문화유산 및 경관 보호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B21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	· 문화유산 및 경관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중층성/고유성/일상성/생태성 증진 기여 ·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B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B21 사회적자본	· 공동체 결속 및 사회적자본 형성 계획 여부 · 주민간 일상적 만남, 소통 증진 여부 · 기존 주민 공동체 배려 및 활용 계획 · 공동체 갈등이나 분열 방지/해소 기여 여부 · 사회적자본 및 지역 애착도 현황/증진 예측 · 사회적자본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B22 문화공동체	· 주민 요구 부합 문화활동 및 문화공동체 형성 계획 여부 · 지역 문화재단 등 문화단체, 문화공동체와의 협력 · 문화바우처, 문화사업 등 연계 계획 · 주민 일상공간의 활용과 가치 부각 여부 · 주민 프라이버시의 배려 여부 · 지역 공동체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의향 · 문화공동체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C 문화발전			
C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C11 문화적 종 다양성	· 문화적 종 다양성 증진 계획 여부(마을 고유 문화) · 주민의 문화적 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 현황 · 지역 고유문화 가치 인식 · 문화적 종 다양성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C21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 소수집단(노년·여성·이동·성소년의 문화적 표현 보호) 계획 여부 · 주민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력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기회 증진 여부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C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C21 창조자본	· 주민 아이디어 발굴/장의성 증진 계획 여부 · 예술가, 청년, 신규 창업/인력 유입 가능성 · 주민과 유입 인력의 협업을 통한 창조적 활동 계획 · 창조자본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관계자FGI 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C22 창조기반	·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기반 조성 계획 · 마을에 부합/적합한 계획 여부* · 젠트리화 방지를 위한 계획 여부 · 사회적경제 조직화 계획의 적절성/가능성 ·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주민 참여 정도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관계자FGI 관계자FGI 설문조사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설문조사(점수화)	전문가 평가단

3.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대상 정책 및 계획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가. 사업개요

- 지역 내 주거 문화를 피난 유산으로 격상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여 토착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지역을 대표하는 비석 주택과 비석들의 문화적 가치를 확인 · 보존 · 발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아래 <표 6> 과 같이 추진

<표 6>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개요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서구청 창조도시과 도시활력담당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초장동 일원 1,166,199m ² (약 35만평)
근거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법률 제13793호]
시업기간	2016년 1월 ~ 2020년 12월 (약 5년)
사업 규모	99억 4천만 원

나. 추진현황

- 2015년 부산시 서구 지역이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두 차례 관문 심사를 거치고 활성화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공청회/지방의회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사업 실행이 확정됨('16.4월 현장지원센터 개소)
- 아래 [그림 2]와 같이 4개 부문, 1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2] 사업별 핵심콘텐츠

2)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

가.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아미동, 초장동 관련 연구

- 사업지(아미동 및 산복도로 지역) 대상 선행연구는 도시 민속학 차원에서 해당 지역은 여타 도시지역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른바 ‘소외된, 가난의 문화’, ‘다양한 문화의 혼종/혼합’, ‘소통의 단절’이라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¹⁾ 이러한 문화적 통시성을 고려하는 문화적 관점의 연구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²⁾
- 한편 그간 대상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음에 착안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아미동을 고찰하고, 일본인 공동묘지, 묘석 등 독특한 주거공간과 마을공간구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공간계획을 제시하거나³⁾, 기존의 획일적 정비방식을 탈피하고, 고유의 공간조직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고려되는 마을 단위의 정비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등의 접근도 있었음⁴⁾
- 기존의 아카이브 방식에서 철학의 부재 문제를 넘어서, 마을 만들기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아카이빙과 공유와 소통을 지향하는 아카이빙 방식을 제안하거나⁵⁾,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으로 만들어진 19개 건물 등에서 나타나는 공적 공간의 사적전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호교류의 기회로 장려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줌⁶⁾

□ 도시재생 관련 연구

-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문화유산,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등에 관한 포괄적 검토에 기반한 문화예술 도입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응⁷⁾, 도시의 공간과 삶 속에 공공성을 배태시키는 이른바 사회적 재생으로서 도시재생⁸⁾, 주민참여의 역할과 기능의 새로운 조건 조성 등이 중요한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음⁹⁾
-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계를 조직하고 문화공간화하는 방안¹⁰⁾, 근대역사환경 조성에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보전하고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는 방

1) 차철욱,공운경,차윤정(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 변화」

2) 유승훈(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 부산 달동네를 중심으로」

3) 정회영(2015),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주거공간 발생 및 변화과정」

4) 황영식(2012), 「도심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교연구 - 부산 태극마을,비석마을,안창마을」

5) 남택부(2013),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6) 신병윤(2013),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공적 공간구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7) 김연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8) 조명래(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9) 김준영 등(2016),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부산,영주,안동 사례를 중심으로」

10) 임대근(2016),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로서 도시재생 연구」

안¹¹⁾,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¹²⁾, 도시의 이질성,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식과 함께 문화·예술의 다양한 관점의 상호의존적 인식과 실천¹³⁾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나.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 사례

- 감천문화마을은 문화예술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벽화 등 다양한 예술품과 마을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문제와 함께 마을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과는 달리 상업적 공간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수익이 마을로 환원되는 구조는 마련되지 못한 상업화 논란이 있는바, 기존의 먹거리 외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아미동, 초장동의 공간 기억을 되새길 수 있고 차별화된 정취를 간직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도시를 소비하는 것에서 감성을 공유하는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며 상업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 사회적경제 조직 및 우선 지원, 외부 상인 진입 제한·규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수익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존하는 정책이 필요함
- 통영 동피랑 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마을의 공공성과 진정성을 담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을이지만 최근 동피랑 내 상가 신축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벽화마을 조성 시 장기적 계획·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주체들 간에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서울 이화동 벽산마을은 과거 판자촌, 소규모 봉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친환경 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사업으로 2006년 주민참여에 기초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지만 최근 벽화 위주의 사업이 자칫 공공성에 대한 민과 관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벽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지자체, 예술가, 주민 모두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을 구축해야할 당위성이 제기됨
- 군산 근대문화도시조성 사업은 빼앗긴 역사에 대한 고통과 치욕을 묵인하지 않고 후손이 잊지 않을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목적에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대문화도시 내 체험거리 부족, 유카타 대여에 대한 적절성 논란 등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근대문화유산 복원작업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간혹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일제강점기 자원을 현전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음
-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주도형이자,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도심 원주민 상생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부서간 유

11) 이유섭(2011), 「근대역사환경 보전에서 진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12) 전창진, 정철모(2014),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3) 박규택, 이상봉(2013),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며 관광을 소비하는 측면이 아닌 콘텐츠 생산과 집적 구조를 구축해나가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

□ 국외 사례

-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기쵸 사례는 ‘복덕방 사업’의 모델로서 지역의 빈 방을 여행객 숙소 등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빈집을 활용하여 웨어카페, 웨어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이벤트를 통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 감축까지 이어지게 함. 주거 문제와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데까지 나아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제시함
- 일본 도쿄-네리마구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주택과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네리마역 주변의 쇠락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으로 단기 성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로드맵, 주민과 구청 간의 프로젝트형 팀 협력 등을 성공적 사업 추진의 방안으로 제시
- 독일 베를린 QM프로그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건조(시멘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이라는 관점 아래 추진된 것이 특징이며 단순 문화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맹,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를 다양한 미니프로젝트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핵심임
-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 CSCB는 주민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건축물, 공간 등을 리모델링하고 인근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역 재생계획을 실행한 사례임. 상업활동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하나 끊임없이 상업공간 확보 및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3) 대상지 현황 분석

가. 대상지 개요

- 아미·초장동은 부산 서구의 중앙에 위치하는 행정동으로 아미산과 천마산이 사하구와 경계를 이루는 전형적인 경사주거지이며 지리적으로 부산 원도심 상업지역과 부산 남항에 인접하는 배후주거지로서, 원도심과 직선거리 약 1km로 접근성이 좋으며, 경제적으로 원도심 상권 및 수산시장과 인접함
- 아미동은 일본인의 공동묘지와 화장장으로, 초장동은 초목지대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이후 원도심 상업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피난민과 도시노동자들의 인구 유입으로 주거지로 급격히 성장하였음

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 2016년 1월 기준, 아미·초장동 인구는 14,921명, 7,495세대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취약계층 비율은 높은 특성을 보임
- 아미·초장동은 주민조직이 총 37개, 회원수 총 574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며 경제적으로는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폐업 또는 유출되고 경사지 근린 상권 점포가 문을 닫는 문제, 인근 충무동 집창촌 여파 등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인근 감천 문화마을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잠재력도 있음

다. 도시·지역·공간 여건

- 한국 전쟁 시절 피난민들이 묘지와 경사지에 주거하며 조성된 주거지로서 장기간 공공개발에 소외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이 미비하고 전형적인 경사주거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인 ‘주거취약지역’ 임
- 과소필지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최소주택에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적재공간 등의 부족으로 생활물품으로 실내를 채우고 있고 채광부족으로 낮시간대 어두운 실내 문제, 통풍과 환기 부족 문제가 있음

라. 자연적·역사적 특징

- 표고도 100m 이상이 61.7%를 차지하고 주택 대부분은 표고도 50-150m 사이에 입지하고 있어 산동네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며 경사도는 10도 이상이 전체의 79.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경사주거지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
- 천마산, 옥녀봉, 아미산 등 산지와 부산 남향 항만 사이에 입지한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 속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는 경관 메리트가 있는 지역

□ 마을 유래

- 아미동은 음력 초사흘 날 초생달의 모습인 반월성에서 아미월(蛾眉月)이라 부르면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움집을 의미하는 ‘애막’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한자로 아미(蛾媚)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 초장동(草場洞)은 고지도에 표현된 이곳의 오해야항 목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마을 역사

- 한국전쟁 이전, 아미동은 일본인의 공동묘지와 화장장, 초장동은 초목지대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아미동 공동묘지 일대에 피난민들의 움막식 주거지가 조성된 이래 1950년대 아미·초장동 일대에 판자촌을 형성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부산으로 피난민이 몰

려왔고 수용소를 세웠으나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피난민들이 부산의 고지대 주변으로 판자촌을 형성하였는데, 이후 판자촌 일대 화재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철거를 함에 따라 사람들이 기존 시가지 주변 산동네로 정착하게 됨

- 1956년~1969년 사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농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유입되었고 아미동에도 1960년에 22,306명에서 1966년에 25,805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마을은 공동묘지, 산동네에서 점차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1973년에서 1975년 사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집단불량지역 정비를 하면서 아미동에 있던 무허가 판잣집들이 철거를 당하였고, 이 중 일부 거주자들은 외부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 아미동 인구가 1970년 27,617명에서 1985년 25,825명으로 감소하였음
- 1990년대 들어 부산에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분산,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분가,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아미동, 초장동의 인구는 크게 줄게 되었고, 열악한 마을환경으로 폐·공가가 증가하여 마을의 정주환경이 급속히 떨어지는 이른바 슬럼화(slumism)가 진행되고 있음

□ 마을 문화

- 아미·초장동에 지정 유형문화유산은 없으나 마을의 특이한 형성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3]과 같은 비석주택, 비석자원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대성사, 우리나라 유일의 티벳사찰인 광성사 등의 종교문화시설 및 오래된 이발소, 국수집 등의 생활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음
- 아미농악이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있으며 그 외에 장정구, 정훈희, 한복남 등의 지역 인물, 각종 지역 주민구술 등의 자료가 다수 산재하여 있는데 특히 아미농악은 토박이의 부산 풍물뿐만 아니라 타지의 촌락에서 전승되었던 풍물들이 복합되어 새로운 아미동의 풍물굿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복합과 변용의 문화’ 라는 아미동, 초장동의 특징의 단면을 보여줌



[그림 3] 비석주택, 비석자원

□ 지역의 문화적 특성

- 아미동, 초장동은 여느 지역보다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거치는 ‘압축적 혼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시가 겪은 도시 형성과는 상이하였고 서로 다른 민속의 충돌에 의한 ‘잡종(hybrid)의 탄생’이라 할 만한 문화변동을 거친 지역임
- 아미·초장동의 형성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간 이주의 문화, 국가내 이주의 문화, 지역내 이주의 문화가 모두 혼재된 곳으로 볼 수 있음

□ 언어/공동체적 특성

- 아미동은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부산 외의 경상도 지역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면서도 이들의 언어 속에 출신지의 언어, 즉 고향어의 언어적 특징이 별로 강하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산 19번지인 이 지역을 사람들은 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기억하고 서로를 올바르게 못한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더욱 소외시키는 데까지 나아감

4.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가.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경사지 주거 지역으로 문화기반 시설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 공동체 거점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문화접근성 여건은 양호한 편이며, 본 사업에서는 창작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의 관점에서 주민의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
- 창작스페이스(앵커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등의 계획이 있어 문화기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이루어질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를 다양화하고 운영 프로그램 또한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으나(종합 69.2점), 단, 전문가의 경우 문화향유수준에 대해 56.7점으로 상대적으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프로그램 계획의 반영, 문화예술가/단체, 문화시설 협업구조 마련, 주민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계획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표현 및 참여기회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전반의 단계에서 주민 대상 마을육구조사, 연령별 인터뷰 등 주민 의견을 청취 기회를 제공하였고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문화활동을 커뮤니티 단위에서 시행코자 하는 계획이 있음
- 일반주민의 참여 장치 및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준주민자치적 참여 계획, 생활문화공간의 지속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 계획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종합 70.7점) 전문가의 경우 표현 및 참여에 대해 본 사업 계획이 사업 관계자로서 주민의 표현과 참여 기회 여건이 잘 조성되어 왔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평가함

- 단, 생활문화공간 및 생활문화활동 측면에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주민의 내면적 욕구를 반영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가.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산재해 있는 비석주택, 비석자원은 물론 다양한 마을의 유·무형자원과 독특한 마을형성과정 관련 자원들을 활용하여 짚지마당 만들기 사업,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 사업,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문화유산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룸은 물론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획이 있음
- ‘비석’을 해석하는 관점 및 활용하는 방식의 합의, 기존 마을을 대상으로 한 민속학 연구, 지정문화재 관련 연구, 지역의 독특한 건축문화와 공간 조사를 거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더욱 문화적으로 마을의 장소성을 증진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종합 65.0점) 단, 전문가의 경우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에 대해 55.0점으로 상대적으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마을의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아카이빙, 이를 통한 활용가이드 마련, 업사이클링 건축,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활용 등이 보완된다면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총 37개 주민조직이 있으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2010년)으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을 지속적으로 발굴/양성해가고 있음. 한편 본 사업에서는 마을배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 속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마을 형성과정에서 윗마을, 아랫마을 주민간의 갈등과 아미동과 초장동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과 탐방로 구축시 주민 일상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마을 주민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종합 65.1점) 단, 전문가의 경우 문화공동체에 대해 55.0점으로 상대적으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수혜적 사업에서의 주민 대화형 컨센서스 절차, 문화예술단체/시설과의 협업구조 마련, 프라이버시 배려 계획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가.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취약지역이자 피난도시 부산의 전형성을 잘 나타내는 지역이기도 하며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차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의 전형성을 사업 속에서 구현하고자 함
- 다만 마을 내 소수집단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 독려 계획이 다소 계층, 연령별로 다소 폐쇄적이며, 특정 단체 중심으로 문화프로그램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성 증진에는 한계가 있음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종합 67.3점) 단, 전문가의 경우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해 60.0점으로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문화를 매개로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가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하는 사업 운영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 인구 유출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산업/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건축물 노후화 등 정주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인적 창조성을 증진하는 계획이 있음
- 복덕방 사업의 경우 핵심 사업으로서 지역의 공·폐가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해가려는 목적이 뚜렷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해보이며, 근린상권 활력 사업 및 탐방로 구축 사업 등 추진시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트피케이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획이 필요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종합 71.2점) 단, 주민에 비해 전문가에서 사업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집수리 사업단 및 복덕방 사업의 운영모델 보완, 마을 내 공유지대 선점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완화 계획, 마을의 공유지대화 계획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삶의질, 정주성(특성화지표)에 미치는 영향

가.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 보전 관련 사업 등의 주민 참여도가 높지 않은 영향으로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전 65.0점 ⇨ 이후 65.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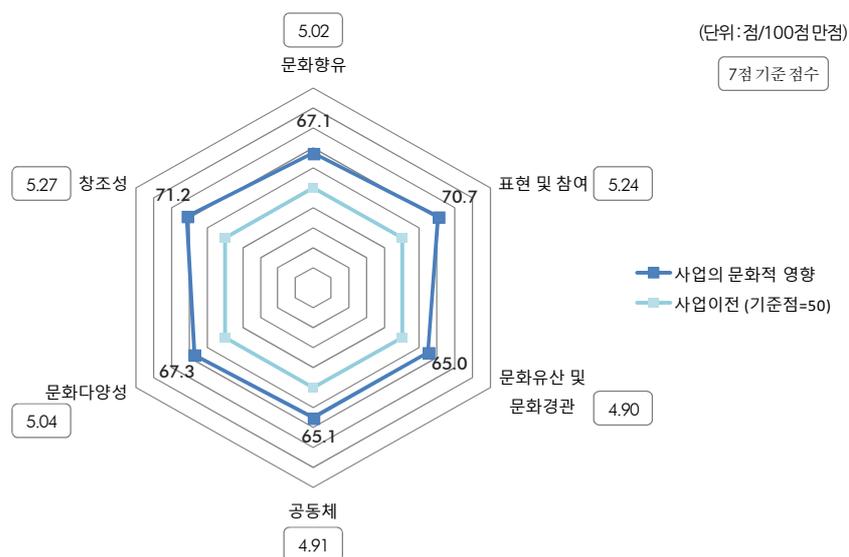
나.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있는 편’으로 나타났음 (62.6점)
- 문화영향지수(산술평균)와 정주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주민의 문화영향이 높을수록 정주성에 대한 기대 수준 및 정주의향도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표현 및 참여, 공동체, 창조성 지표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평가결과의 종합

- 본 사업은 6개 지표별로 고르게 문화적 영향이 있는 사업 계획으로 평가되었으며 지표별 점수는 아래 [그림 4]와 같음



[그림 4] 2017 아미초장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종합적 제언

- (인력/조직) 문화분야 인력(활동가) 또는 외부 전문가 결합 및 예술단체, 창작자 등 연계와 함께 위탁운영 조건에 협업/연계 추진 명시
- (공간) 비석, 마을자원 아카이브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 연구 및 자문 필요
- (외부단체 협업/개방) 문화누리카드, 지역문화사업, 생활문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고 외부단체 협업을 개방하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을 도모

나. 세부 사업별 제언

-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 기능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의 건축적 맥락과 상징을 투영할 수 있는 방안의 업사이클링 관점의 문화적 방식이 필요

-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 마을 고유의 상징과 이미지를 투영하고 면밀히 조사된 아카이브를 전시하고 스토리텔링하며 파사주(passage)에 이러한 콘텐츠를 표현하는 것과 함께 조성 이후 주민의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문화적 운영모델이 필요

-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 사업
 - 조성과정에서의 주민과 예술가가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입시키고 기능중심의 공간보다 활동중심의 공간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 마을의 주택/공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아카이브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DB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간 유형별 계열화와 스토리텔링의 결합이 필요

-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 사업
 - 게스트하우스에서 문화활동 계획을 추가한다면 다양한 방문객과의 비일상적, 일탈적 문화활동 경험을 선사하고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 사업

- 상기 언급한 <주택/공간 조사>에 기반하여 기억과 상징,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공간에 기록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이를 통해 향후 미니주택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 근린상권 활력 사업

- 내부 주민과 외부 창업인력, 창작자 등이 협업하면서 공유자산을 확보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것에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인근 감천문화마을 등과 구별되는 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함

□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 다양하고 중층적인 산동네, 피난마을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심층적으로 조사/아카이브하여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향과 함께 박제된 역사가 아닌 이를 현재화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으로서 주민마을 스토리텔러, 아미·초장 길위의 인문학, 북토크쇼 등 활동 계획도 필요

□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사업

-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절대적 환대가 발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일상공간과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주민 프라이버시 확보 가이드라인>, <오픈타임(Open Time)> 제도 도입이 필요

□ 주민역량강화사업

- 기능 교육 등을 지양하고 사업 초기에는 주민 다수가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사례를 학습하고 마을과 자신, 공동체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문학적 교육이 결합되어야 할 것임

□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설계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기능과 일어날 활동을 좀더 확장적으로 반영하여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기능 강습형, 생활동아리 형태에 국한되지 말고 소통하고 사유하는 활동으로서 경계가 없는 문화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신축과 업사이클링의 결합 시도와 라키비움, 열리고 확장하는 공간 설계관점 필요

〈표 7〉 이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정책제언 도출(서식 6)

정책 및 계획의 기존 내용 (before)	평가의 주요내용	개선과제 (afte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주민리더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과 주민, 활동가 등 참여 주체의 역할 등이 잘 짜여진 계획임 문화분야 외부 파트너십, 문화분야 인력 또는 연계단체가 다소간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분야 인력(활동가) 확충 또는 외부 전문가 결합 → 도시문화기획자 활용 (부산시 '도시재생일자리 프로젝트 교육생 등 연계) 	창조도시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모사업 및 하자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연령대 폐쇄적, 기능 강습형 문화활동 성격이 강함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에 다소간 제약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활동 종류와 성격을 확대할 필요 → 문해교육, 리더러시 교육, 생활문화 활동 등 	창조도시과 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단체가 문화부문 사업을 위탁운영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문화향유 및 표현/참여, 공동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위탁단체의 전문성, 다양성에 다소간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문화영향으로 발현되는 데 제약요건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운영 조건에 협업/연계 추진 항목을 명시 → 협업 단체 발굴, 협업내용 명시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로 100년 근대역사문화 사업 추진을 통해 비석 자원, 피난마을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계승, 활용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석에 대한 아카이브 연구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고 비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장해 경계 도시의 고유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전문적, 학술적 접근이 부족하여 콘텐츠의 원형성을 보여 주는데까지는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석, 마을자원 아카이브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 연구 및 전문 자문 필요 → '도시민속, 문화인류학 등 전문가 자문' 및 '아카이브 연구' 필요 → 비석마을의 '생애사, 개인사 연구/콘텐츠 사업 필요 	창조도시과 부산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사업을 통해 비석주택 등 문화자원을 명소화하여 지역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로와 주민 일상공간의 중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프라이버시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보호 → '오픈타임제(Open time)' 	창조도시과

정책 및 계획의 기존 내용 (before)	평가의 주요내용	개선과제 (afte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덕방, 미니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덕방, 미니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슬럼화된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주택현황 분석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은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덕방 사업 핵심사업화 → 고토부키초 사업 심층 분석/벤치마킹 → 복덕방 사업 비중 강화 (예산, 인력)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건립을 통해 교육문화시설 확충, 지역 인재 유출 방지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창작스페이스 공간의 규모에 비해 이용객을 적은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이용 범위 확대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 수립 필요 → ‘라키비움’, ‘격대격 교육 프로그램’ 등 고민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상권 활력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다양한 점포 설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단, 지대 상승에 대한 젠트리화 방지/완화 계획이 없어 향후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내부 규약, 구차원의 상생 협약 마련 → ‘상생협약 조례’ 및 규칙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마을 사업을 통한 주민 다수의 문화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생활문화를 결합한 문화활동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보임 • 통합문화이용권, 지역문화재단 연계 등을 통한 후속 사업 계획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사업 연계 시너지 제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연계 및 마을기업 등을 사용처로 등록 추진 • ‘일용직 근로자, 남성 대상 문화프로그램’ 필요 	문화관광과 부산문화재단 부산서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단체와의 협업 계획이 있지만 다소간 한정된 네트워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연계파트너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사업 연계 필요 예)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청년어르신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장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설립/활용할 계획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될 공간의 지속운영 프로그램 계획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지속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 생활문화를 거점으로 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등 	문화관광과 ※담당 : 지역문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화 등 사회적경제 주체화 계획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순환구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업 모델, 상품 계획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 참여자 발굴 및 콘텐츠/상품화 과정 필요 → ‘비즈니스 모델 발굴’ 단계 및 전문 컨설팅 필요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 ※담당 :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3)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가. 성과

- 사업지 이해에 바탕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적용
- 체계적, 합리적 평가 실시를 통한 신뢰도 확보
- 사업 주체의 문화에 대한 인식 환기
- 세부 사업별 아이디어 제시

나. 과제

- 조사 대상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 보완
- 정책 관계자(주민) 조사의 조사 신뢰성 제고 방안 필요
- 평가 결과의 해석에 있어 타당성 보완 필요
- 사업 주체 이해도 증진을 통한 문화영향평가 반영도 제고 노력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의의와 필요성	3
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의의	3
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4
제2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5
1.	평가범위	5
2.	평가지표	8
3.	평가방법	11

제2장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1
1.	사업개요	21
2.	추진현황	2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	41
1.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41
2.	국내외 사례분석	45
제3절	대상지 현황 분석	65
1.	대상지 개요	65
2.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66
3.	도시·지역·공간 여건	69
4.	자연적·역사적 특징	72
5.	문화적 특징	80

제3장

아이·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87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87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98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07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07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18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28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28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37

제4절 삶의질, 정주성(특성화지표)에 미치는 영향 147

1.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147

2.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149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154

1. 평가결과의 요약 154

2. 평가지표별 요약 157

제2절 정책적 제언 161

1. 종합적 제언 161

2. 세부사업별 제언 163

3. 도시재생 사업(대상과제)의 문화적 영향력 제고 방안 168

제3절 아이·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 174

1. 성과 174

2. 과제 175

참고
문헌

.....177

부록

.....181

1. 관계자 설문지 183
2. 전문가 평가서 199
3. 평가결과 요약표(서식5) 211
4. 정책제언 도출(서식6) 212

〈표 1-2-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5
〈표 1-2-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8
〈표 1-2-3〉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항목	9
〈표 1-2-4〉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평가절차	11
〈표 1-2-5〉	관계자(주민) 조사 응답자 특성(1)	13
〈표 1-2-6〉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구성 및 운영	14
〈표 1-2-7〉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경과	14
〈표 1-2-8〉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5
〈표 1-2-9〉	전문가 평가단 명단	15
〈표 1-2-10〉	전문가 평가단 운영 경과	16
〈표 1-2-11〉	문화영향평가지수의 도출 : 심층평가(사전평가)	17
〈표 2-2-1〉	선행연구 키워드 분류	41
〈표 2-2-2〉	국내외 사례분석 총괄표	45
〈표 2-2-3〉	감천문화마을 내 마을기업	47
〈표 2-2-4〉	마치뜨꾸리 1기 사업 성과	59
〈표 2-2-5〉	마치뜨꾸리 2기 사업 성과	60
〈표 2-2-6〉	세타가야 내 지역공생의 집	61
〈표 2-2-7〉	지역펀드(QF) 유형	62
〈표 2-3-1〉	아미·초장동 인구현황	66
〈표 2-3-2〉	아미·초장동 세대원 수별 세대수	67
〈표 2-3-3〉	아미·초장동 생산가능인구비율 및 고령화율	67
〈표 2-3-4〉	아미·초장동 취약계층 비율	67
〈표 2-3-5〉	아미·초장동 유형문화유산 및 유형자원	81
〈표 2-3-6〉	아미·초장동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자원	82
〈표 3-1-1〉	아미·초장동 문화, 교육, 공동체시설 현황	87
〈표 3-1-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향유 연관 사업	87
〈표 3-1-3〉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89
〈표 3-1-4〉	아미·초장동 문화활동실태	90
〈표 3-1-5〉	아미·초장동 문화공간 충분성에 대한 의견	91
〈표 3-1-6〉	아미·초장동에 필요한 문화공간 기능	91
〈표 3-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운영 체계	98
〈표 3-1-8〉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표현 및 참여 연관 사업	98
〈표 3-1-9〉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100
〈표 3-1-10〉	평소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책 입안 과정, 시행과정의 의견 표현 및 참여 기회	101
〈표 3-1-11〉	아미·초장동 주민리더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	101
〈표 3-2-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유산 및 경관 연관 사업	107
〈표 3-2-2〉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109
〈표 3-2-3〉	문화유산 보호보존 및 활용 필요성	110
〈표 3-2-4〉	아미·초장동 주민조직 현황	118
〈표 3-2-5〉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체 연관 사업	118

<표 3-2-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120
<표 3-2-7> 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향	122
<표 3-2-8> 마을 내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 수	122
<표 3-3-1> 아미동, 초장동 취약계층 인구 현황	128
<표 3-3-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연관 사업	128
<표 3-3-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130
<표 3-3-4> 아미·초장동 주민의 문화 가치 인식	131
<표 3-3-5> 아미·초장동 주민의 소수집단 포용정도	131
<표 3-3-6>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창조성 연관 사업	137
<표 3-3-7>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139
<표 3-3-8> 아미·초장동 주민의 정주의향	140
<표 3-3-9> 아미·초장동 주민의 창조자본	140
<표 3-4-1>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148
<표 3-4-2>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f,F검증)	150
<표 3-4-3> 정주성에 대한 문화영향 지표별 영향력	152
<표 4-1-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55
<표 4-1-2>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결과 요약	160
<표 4-2-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161
<표 4-2-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 제고를 위한 포지셔닝 제안	167
<표 4-2-3>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지표 개선 방안	173

[그림 1-2-1] 사업대상지 구역도	6
[그림 2-1-1] 사업추진체계	23
[그림 2-1-2] 사업 비전 및 목표	23
[그림 2-1-3] 사업별 핵심콘텐츠	24
[그림 2-2-1] 감천문화마을 전경	46
[그림 2-2-2] 승효상 건축가 '독락의 탑'	46
[그림 2-2-3] 유료화 관련 플래카드	47
[그림 2-2-4] 통영 동피랑마을 전경	48
[그림 2-2-5] 통영 동피랑마을 지도	48
[그림 2-2-6] 통영 동피랑 축제 포스터	49
[그림 2-2-7] 신규 상가 건축 반대 플래카드	49
[그림 2-2-8] 이화동 벽화마을	50
[그림 2-2-9] 벽화마을에 대한 주민들 반발	50
[그림 2-2-10]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 내 군산근대건축관과 군산근대미술관	51
[그림 2-2-11] 유카타 대여점 및 관련 플래카드	52
[그림 2-2-12] 순천 문화의거리 전경	53
[그림 2-2-13] 관광객을 안내하는 도시재생협동조합	53
[그림 2-2-14] 고토부키초 위치	54
[그림 2-2-15] 고토부키초 빈집 배치도	54
[그림 2-2-16] 마을에 방치된 차량	54
[그림 2-2-17] 고토부키초 마을 전경	54
[그림 2-2-18] 고토부키초 인구 추이	55
[그림 2-2-19] 고토부키초 빈 방 추이	55
[그림 2-2-20] 요코하마 호텔빌리지	55
[그림 2-2-21] 호텔빌리지 운영 방식	56
[그림 2-2-22] 호텔빌리지 내부 모습	56
[그림 2-2-23] 호텔빌리지에 숙박한 관광객	56
[그림 2-2-24] VHY HANARE 프로젝트	57
[그림 2-2-25] VHY HANARE 프로젝트 배경 및 기대효과	57
[그림 2-2-26] Bluff Terrace 프로젝트	57
[그림 2-2-27] 투표 독려를 위한 선거 포스터	58
[그림 2-2-28] 도쿄 네리마구 내 마을 전경	59
[그림 2-2-29] 도쿄 세타가야구 내 마을 전경	60
[그림 2-2-30] 세타가야구 주민교육 활동	61
[그림 2-2-31] QM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62
[그림 2-2-32] 옥소타워 인근	63
[그림 2-2-33] 가브리엘 워프 전경	64
[그림 2-3-1] 아미·초장동 성장과 쇠퇴	66
[그림 2-3-2] 아미·초장동 근린상점 현황 (2015.01 현장전수조사)	69

[그림 2-3-3] 아미·초장동 지역 입지	70
[그림 2-3-4] 아미·초장동 소규모 주택 여건	71
[그림 2-3-5] 아미·초장동 옥외환경 여건	71
[그림 2-3-6] 아미·초장동 마을 지형 - 표고도, 경사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72
[그림 2-3-7] 아미·초장동 조망권	73
[그림 2-3-8] 천마산 전망대 등에서 내려다본 부산 원도심과 남항 전경	73
[그림 2-3-9] 1910년대의 아미동, 아래쪽 비석들이 보임	75
[그림 2-3-10] 아미동 화장장(1957년 당감동으로 이전)과 화장장 터에 들어선 천주교아파트	76
[그림 2-3-11] 아미초등학교 뒷산의 수호탑과 관세음보살	76
[그림 2-3-12] 1953년 발생한 국제시장 대화재와 부산역전대화재	77
[그림 2-3-13] 부산 산동네 판잣집과 천막집	77
[그림 2-3-14] 아미동 내 공가 및 나대지	80
[그림 3-1-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88
[그림 3-1-2]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94
[그림 3-1-3]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지수	96
[그림 3-1-4]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99
[그림 3-1-5]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103
[그림 3-1-6]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수	105
[그림 3-2-1]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08
[그림 3-2-2] 문화유산 보호·보존 및 활용 필요성	110
[그림 3-2-3]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113
[그림 3-2-4]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지수	115
[그림 3-2-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19
[그림 3-2-6]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체 평가	121
[그림 3-2-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체에 미칠 영향	121
[그림 3-2-8]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124
[그림 3-2-9]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수	126
[그림 3-3-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29
[그림 3-3-2]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133
[그림 3-3-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지수	135
[그림 3-3-4]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38
[그림 3-3-5]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142
[그림 3-3-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지수	144
[그림 3-4-1]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47
[그림 3-4-2]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49
[그림 3-4-3] 문화영향이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151
[그림 4-1-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55
[그림 4-2-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세부사업별 제언 개념도	163
[그림 4-2-2]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적 영향 제고 방안	168

■ 제1장 ■

서론

제1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의의와 필요성

제2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제1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의의와 필요성**

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의의

□ 경제·사회·환경 등 도시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재생사업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시 활성화를 추구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적 가치가 추구되는 도시재생사업

- 문화적 영향 평가의 중요성 증대
 -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 지역문화의 부흥, 사회·문화적 공동체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 문화적 영향 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도시재생·발전의 패러다임에서 문화적 가치·인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
 - 2013년 12월,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시책 등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13곳의 지역부터 추진하기 시작함
 - HW 중심의 선도지역 13개 사업의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매년 35개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16년 33개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추진)
- 지역 공동체 회복, 정주성 향상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 노후화된 건물, 폐가 등으로 슬럼화된 도시에서 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원과 더불어 관광객 유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 주거 환경 개선 등 HW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특색·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삶의 정주성 향상

□ 도시재생에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

- 신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50조 (연 10조)를 투입하여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500여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거공간, 상업공간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이나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을 살리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을 표방하고 있음

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적정성

- 아미·초장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소외된 산동네 피난촌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적합함
- 사회적 재생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에서는 문화가 재생언어가 되어 도시의 일상 주체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적합·필요함
- 동 사업은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아미·초장동 일대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주민들의 삶의 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기대효과

-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강화·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도출
-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또는 정책적 제언 모색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한 사례 확산
-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문화적 접근의 성공적인 사례 제시

제2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1. 평가범위

1) 대상적 범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2017.4월 기준)에 제시된 사업으로 한정함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다음의 <표 1-2-1>과 같음
- 부처협업 사업 및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직접적 관련 여부가 있는 경우만 평가범위로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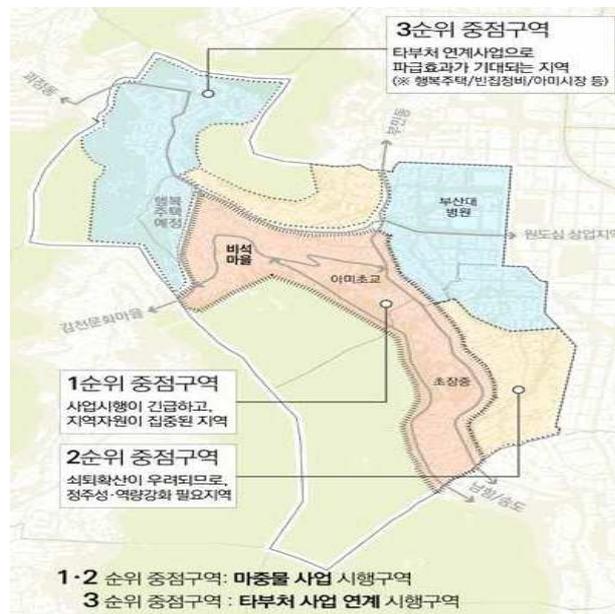
<표 1-2-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적 범위

부문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유형	사업 기간
정주환경 개선 (3,288백만원)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기초 집수리교육 저비용 친환경주택 리모델링 교육	S/W S/W	'16-'20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H/W	'17-'20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H/W	'18-'20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사업	안심골목조성 커뮤니티 안전정류장 조성	H/W H/W	'17-'19
근린경제 활력 (2,501백만원)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S/W	'16-'20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 사업	H/W	'18-'20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H/W	'17-'19
	근린상권 활력사업	근린상권 활력사업	H/W, S/W	'17-'20
역사문화 보전 (2,013백만원)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근대역사 테마가로 조성	H/W	'17-'20
		피난생활박물관 및 정보이용원 조성	H/W, S/W	
		비석마을 역사광장 조성	H/W, S/W	
	비석마을 추모공간 조성	H/W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H/W, S/W	'18-'20	
하늘경관 정리사업	하늘경관 정리사업	H/W	'18-'20	
주민참여 확산 (2,138백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모니터링	S/W	'16-'20
		도시재생대학 운영	S/W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	S/W	
		주민공모사업	S/W	
	아미-초장 하자마을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H/W	'16-'20
		마을학교	S/W	
마을창작공방	H/W, S/W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우리동네 건강주치의사업	S/W	'16-'20	

부문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유형	사업 기간
부처협업	중앙부처	행복주택 진입로 확장사업		'15-'18
		아미동 행복주택 사업		'15-'18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사업		'13-'22
		힐링투어라인 조성사업		'16-'17
		피란수도 부산 야행		'16
	지자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15-'16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12-'20
		건강도시 사업		'12-
		지역조직화 지원사업		'16-
		평생학습빌리지사업		'16
민간투자	민간투자	산복도로소망길 스토리텔링 복제작사업		'16
		꿈을 담은 모퉁이 아미골 프로젝트		'16-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		'18-'20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18-'20
		근린상권 활력사업		'18-'20

2) 공간적 범위

-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아미·초장동 도시재생 프로젝트 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초장동 일대에 한정함
- 해당 사업지역은 특성에 따라 [그림 1-2-1]에서 구분된 것과 같이 1순위~3순위 중점구역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평가는 1순위와 2순위 중점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3순위 중점구역은 지리적 거리와 사업 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과급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 1순위 중점구역은 사업시행이 긴급하고, 지역자원이 집중된 지역
 - 2순위 중점구역은 쇠퇴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주성 및 역량강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



[그림 1-2-1] 사업대상지 구역도

3) 내용적 범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검토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대상지 현황 분석
 -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도시·지역·공간 여건, 자연적·역사적 특징 등의 분석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특성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및 평가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개선방안 제언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 제시

4) 시간적 범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미칠 문화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사전평가에 해당함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2017년~2020년이므로, 문화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또한 2017년~2020년으로 설정함
- 다만, 실질적인 문화영향평가 연구는 2017년 6월~2017년 10월(5개월)에 진행됨

2. 평가지표

□ 공통지표 (핵심지표)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다음의 <표 1-2-2>와 같으며 공통지표(핵심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판단기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을 준용함

<표 1-2-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주요 측정개념
공통 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및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7. 삶의질, 정주성		

- 세부 지표와 평가항목은 다음 <표 1-2-3>과 같음

□ 특성화지표

- 거주 주민의 개인 및 사회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등 ‘삶의질’ 및 사람이 일정한 장소적 범역 안에서 지속적·영속적인 거주의지를 갖고 머물며 살아가는 성질로서 ‘정주성’을 특성화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되 기존 평가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보조적 지표로 활용함
- 문화영향 평가 지표별로 ‘삶의질’ 및 정주성’을 제고시키려는지를 실증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평가지표를 제시함

〈표 1-2-3〉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A 문화기본권			
A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A11 문화접근성	· 문화접근성 증진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계획 여부	사업계획서/FGI
		· 물리적/심리적 문화접근성 완화 기여 여부	사업계획서/FGI
		· 마을 내 주민간 문화격차 해소 여부	사업계획서/FGI
		· 문화접근성에 미칠 영향 예측	설문조사(점수화)
	A12 문화향유수준	·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계획 여부	사업계획서/FGI
		·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증진 기여 · 새로운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기회 증진 · 문화향유수준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A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A21 표현 및 참여기회	· 주민 의견수렴 및 의견표현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서/FGI
		· 의견수렴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여부	사업계획서/FGI
		· 마을의 의사결정 개방성 및 민주성	FGI/설문조사
		· 표현 및 참여기회에 미칠 영향 예측	설문조사(점수화)
	A22 생활문화예술 참여	· 생활문화활동 참여 공간, 프로그램, 인력 계획	사업계획서/FGI
		· 생활문화활동의 주민 욕구 반영 여부 · 생활문화활동의 주민 자발성/일상성 증진 기여 · 생활문화활동 참여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B 문화정체성			
B1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B11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	· 문화유산 및 경관 보호 계획의 적정성 - 유무형 문화유산의 통합적 접근 여부	사업계획서/FGI
		· 고유한 건축 문화의 보호 기여 여부 - 비석주택, 경사지 주택, 전쟁 이후 건축 기법 등	사업계획서/FGI
		· 사업을 통해 조성될 문화유산, 공간 방문 의향	설문조사
		·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에 미칠 영향 예측	설문조사(점수화)
	B21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	· 문화유산 및 경관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서/FGI
		· 중층성/고유성/일상성/생태성 증진 기여 ·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B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B21 사회적자본	· 공동체 결속 및 사회적자본 형성 계획 여부 - 주민간 일상적 만남, 소통 증진 여부 - 기존 주민 공동체 배려 및 활용 계획	사업계획서/FGI
		· 공동체 갈등이나 분열 방지/해소 기여 여부	사업계획서/FGI
		· 사회적자본 및 지역 애착도 현황/증진 예측	설문조사
		· 사회적자본에 미칠 영향 예측	설문조사(점수화)
	B22 문화공동체	· 주민 욕구 부합 문화활동 및 문화공동체 형성 계획 여부	사업계획서/FGI
		· 지역 문화재단 등 문화단체, 문화공동체와의 협력 - 문화바우처, 문화사업 등 연계 계획 · 주민 일상공간의 활용과 가치 부각 여부 · 주민 프라이버시의 배려 여부 · 지역 공동체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의향 · 문화공동체에 미칠 영향 예측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사업계획서/FGI 설문조사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C 문화발전			
C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C11 문화적 종 다양성	· 문화적 종 다양성 증진 계획 여부(마을 고유 문화)	사업계획서/FGI
		· 주민의 문화적 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 현황	설문조사
		· 지역 고유문화 가치 인식	설문조사
		· 문화적 종 다양성에 미칠 영향 예측	설문조사(점수화)
	C21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 소수집단(노년여성아동/청소년)의 문화적 표현 보호 계획 여부	사업계획서/FGI
		· 주민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력	설문조사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기회 증진 여부	설문조사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미칠 영향 예측	설문조사(점수화)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
C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C21 창조자본	· 주민 아이디어 발굴/창의성 증진 계획 여부	사업계획서/FGI
		· 예술가, 청년, 신규 창업/인력 유입 가능성	관계자FGI
		· 주민과 유입 인력의 협업을 통한 창조적 활동 계획	설문조사
		· 창조자본에 미칠 영향 예측	설문조사(점수화)
	C22 창조기반	·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기반 조성 계획 - 마을에 부합/적합한 계획 여부*	사업계획서/FGI
		· 젠트리화 방지를 위한 계획 여부	관계자FGI
		· 사회적경제 조직화 계획의 적절성/가능성	관계자FGI
		·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주민 참여 정도	설문조사
종합	전문가 평가점수	설문조사(점수화)	전문가 평가단

3. 평가방법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는 전문평가 중에서도 ‘심층평가’ 유형에 해당함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표준분석·평가절차’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 1-2-4>와 같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함

<표 1-2-4>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평가절차

절차	주요내용	분석방법
1. 대상 정책 및 계획의 개요 및 특성 분석	① 대상 정책 및 계획의 개요 및 특성 분석 ②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기술 ③ 평가범위 및 대상 구체화	·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문헌분석
2.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④ 대상 정책 및 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⑤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을 통한 영향의 예측 및 시사점 도출	· 문헌분석
3. 현황분석	⑥ 대상 정책 및 계획 추진현황 분석 ⑦ 대상지의 문화영향지표 현황 분석	·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문헌분석 · 소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 현장조사 · 통계자료 분석 또는 설문조사 실시
4. 영향요인의 파악(이슈 도출) 및 문화적 영향 예측	⑧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⑨ 문화적 영향의 논리적 예측 ⑩ 평가지표 및 방법론 확정 : 설문지 작성	·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5. 문화영향평가	⑪ 문화영향평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10인 내외) · 현장조사 ·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 주민 등 관계자 설문조사 · 전문가 평가(전문가 평가단)
6.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⑫ 평가결과의 해석 ⑬ 정책적 제언 도출 ⑭ 내부 컨설팅 워크숍을 통한 정책적 제언의 정교화	· 전문가 평가단 회의 · 관계자 FGI
7. 찾아가는 컨설팅	⑮ 대상 정책 및 계획 담당자 면담 및 컨설팅 실시	· 개별평가기관 및 전문가 평가단

1) 문헌분석

- 평가의 대상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라는 점에서 본 평가는 일차적으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일반지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안)」(2016.12)을 다각도로 분석함
 - 그 외 세부 사업 계획, 검토 자료 등을 반영함
-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국내외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를 탐색하고 연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유사사례 분석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 연구결과 해석 및 발전방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2) 관계자 설문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표준설문지’를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변형한 설문지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모집단 : 2017년 현재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서구 아미동, 초장동)
- 표본추출프레임(sampling frame) : 통계청 집계구 리스트
- 표본추출방법(sampling method) : 크기비례확률추출방법(PPS: 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을 활용한 집계구 추출 후 계통 추출 방식으로 가구 추출
- 표본규모(sample size) : 400샘플
- 조사방법(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시스템 활용
- 조사기관 : (주) 마크로밀 엠브레인
- 조사기간 : 2017년 7월 25일~2017년 8월 8일

○ 관계자(주민) 조사 응답자 4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1-2-5>와 같음

<표 1-2-5> 관계자(주민)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비고
합계		400	100.0%	
지역(동)	아미동	248	62.0%	아미동과 초장동의 인구는 6:4 비중임
	초장동	152	38.0%	
권역	1중점구역	300	75.0%	주요 사업구역인 1중점구역에 임의할당
	2/3중점구역	100	25.0%	
성별	남성	200	50.0%	
	여성	200	50.0%	
연령	10/20대	61	15.3%	고령화지역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함
	30/40대	99	24.8%	
	50/60대	160	40.0%	
	70대 이상	80	20.0%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49.0%	원주민과 이주민이 5:5
	기타지역(합)	204	51.0%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	5년 미만	37	9.3%	
	5-10년 미만	36	9.0%	
	10-15년 미만	42	10.5%	
	15-20년 미만	41	10.3%	
	20년 이상	244	61.0%	
학력	중졸 이하	139	34.8%	고졸 및 중졸이 전체의 83.0%를 차지
	고졸(중퇴포함)	193	48.3%	
	대졸 이상(합)	68	17.0%	
현재 직업	자영업	47	11.8%	블루칼라(30.0%)와 무직/퇴직/기타(합) (18.5%)이 절반 정도 차지
	블루칼라(합)	120	30.0%	
	화이트칼라(합)	58	14.5%	
	주부	64	16.0%	
	학생	37	9.3%	
	무직/퇴직/기타(합)	74	18.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7	19.3%	대체로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74.5%로 많음
	100-200만원 미만	90	22.5%	
	200-300만원 미만	131	32.8%	
	300만원 이상(합)	102	25.5%	
거주 형태	자가 소유	315	78.8%	자가 소유층이 78.8%로 많음
	월/전세/기타(합)	85	21.3%	
혼인상태	기혼	257	64.3%	60대 이상 노년층 중심으로 미혼/이혼/별거/사별 등이 많음
	미혼/이혼/별거/사별(합)	143	35.8%	
가구원 수	1명(일인가구)	53	13.3%	일인가구가 전체의 13.3%이며 2-3명이 48.8%로 많음
	2-3명	192	48.0%	
	4명 이상	155	38.8%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 대상 정책 및 계획과 관계된 사업주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계자 FGI(Focused Group Interview)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표 1-2-6〉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구성 및 운영

구분	현황분석 및 이슈도출 FGI	심층인터뷰	문화영향분석을 위한 FGI	
			사업주체	주민
참석자	서구청 도시창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리더(협의회 소속)	서구청 도시창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리더(협의회 소속) 참여단체	서구청 도시창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단체	주민리더 (아미동, 초장동)
평가내용	활성화 계획	세부사업별 계획	계획에 나타나지 않은 계획의 반영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평가방법	세부 사업-평가지표별 해당사항 보완 전문가평가단 회람을 통한 전문가 평가 반영			

-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경과는 아래 <표 1-2-7>과 같이 진행함

〈표 1-2-7〉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경과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진
현황분석 및 이슈도출 FGI	- 사업 추진현황 파악 - 평가 이슈도출	일정 : 7월 5일(수) 11~13시 장소 : 아미문화학습관 참석 : 관계자 5명	
심층인터뷰	- 사업 추진상황 심층 PT - 세부 사업별 질의 응답 ※ 현장답사 시행	일정 : 7월 21일(금) 14~16시 장소 : 한마음행복센터 참석 : 관계자 및 주민리더	
문화영향분석을 위한 FGI	-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자 의견 파악 - 향후 계획 및 추진 아이디어 파악	일정 : 7월 25일(화) 13~15시 장소 : 아미문화학습관 참석 : 관계자 5명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파악 - 문화적 영향에 대한 주민의 기대	일정 : 7월 31일(월) 15~17시 장소 : 아미문화학습관 참석 : 주민리더 5명	

4)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

○ 본 평가에 전문가평가단으로 참여한 평가단 구성은 아래 <표 1-2-8>와 같음

<표 1-2-8>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구분	킵오프 워크숍	심층 워크숍	결과분석 워크숍	통합포럼	내부 컨설팅 회의	찾아가는 컨설팅
참석자	전문가 평가단(10명)	전문가 평가단(10명)	전문가 평가단(10명)	전문가 평가단(5명)	전문가 평가단(3명)	전문가 평가단(3명)
평가방법	사업 계획 파악 사업지 답사 사업계획 PT		평가의견 공유 평가서 제출	사업별 세부 평가	컨설팅 의제 발굴 컨설팅 실시	

주 : 전문가평가단에는 내부연구진(2명) 포함된 숫자임

○ 도시재생 분야, 문화 전문가 등 사업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전문가를 <표 1-2-9>와 같이 구성하여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표 1-2-9> 전문가 평가단 명단

순번	성명	소속	분야	비고
1	서영수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 본부장	생활문화	(부산)
2	홍순연	(주)삼진어묵커뮤니케이션본부 이사	도시재생	(부산)
3	김기식	마을교육공동체 사람과마을 이사	마을활동	(부산)
4	이승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문화기획	(부산)
5	배기택	이락 건축사무소 대표	도시계획/건축	
6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문화유산/관광	
7	고영직	문학평론가	문화예술교육	공동연구원
8	이강형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평가모델	공동연구원
9	강구민	코뮤니타스 (책임연구원)	사회적경제	내부연구진
10	김아영	코뮤니타스 (연구원)	문화시설/문화프로그램	내부연구진

- <표 1-2-10>과 같이 현장조사 이후 각 전문가들의 개별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평가 이유 및 평가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최종적인 전문가 평가 결과 도출
 - 평가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일관성 제고 도모
 - 최종 전문가 평가는 전문가 평가단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였으며(8월16일), 평가기관에서 전문가 평가에 필요한 설명자료와 참고자료를 구두와 서면으로 제시하고 전문가 평가위원은 평가양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정량적 평가 결과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점수(지표별 영향지수)를 0점~100점 척도로 환산하여 제시하고 기술된 평가이유와 평가결과에 대해 토론을 거쳐 제언을 도출함

<표 1-2-10> 전문가 평가단 운영 경과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진
kick-off 워크숍	- 현장 답사 및 사업현황 파악 - 평가지표에 대한 토론 ※ 현장답사 시행	일정 : 7월 5일(수) 13~15시 장소 : 아미문화학습관 참석 : 전문가평가단 7명 평가기관 4명 사업 추진주체 5명	
심층 워크숍	- 사업 추진상황 심층 PT - 세부 사업별 질의 응답	일정 : 7월 21일(금) 14~16시 장소 : 한마음행복센터 참석 : 전문가평가단 8명 평가기관 4명 사업 추진주체 5명 ※ 종합평가기관 및 종합평가위원 참석	
결과분석 워크숍	- 설명자료, 참고자료 공유 - 평가서 작성 및 토론	일정 : 8월 16일(금) 15~18시 장소 : 커뮤니티스 회의실 참석 : 전문가평가단 4명 평가기관 4명 ※ 종합평가기관 참석	
통합포럼	- 도시재생 사업(부산, 김해)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사업별 문화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일정 : 9월 19일(화) 15~18시 장소 : 대구예술발전소 만권당 참석 : 전문가평가단 4명 평가기관 7명 종합평가기관 1명 ※ 총 30여명 참석	
내부 컨설팅 회의	- 평가 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이슈 도출	일정 : 10월 19일(화) 16~18시 장소 : 커뮤니티스 회의실 참석 : 전문가평가단 4명 평가기관 7명 종합평가기관 1명	
찾아가는 컨설팅	- 문화영향평가 최종 결과 공유 - 평가 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일정 : 10월 26일(목) 10:30~12:30 장소 : 천마산에코하우스 참석 : 전문가평가단 1명 평가기관 3명 종합평가기관 4명 사업 추진주체 6명	

5) 문화영향지수의 도출

- 본 연구는 문헌검토, 현장조사, 설문조사, 관계자 FGI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평가점수와 정책관계자(주민 등)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관계자 평가점수의 가중합산을 통해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지수를 도출함
-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가중치는 다음의 <표 1-2-11>과 같음

<표 1-2-11> 문화영향지수의 도출 : 심층평가(사전평가)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필수 여부	항목 가중치	평가주체 가중치
1. 문화향유 영향지수 (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53.6
	①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46.4
	① 문화공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	8.6	
	② 사업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시 이용의향	▲	43.6	
	③ 사업을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에 대한 인식	○	31.2	
	④ 사업을 통한 문화향유수준 제고에 대한 인식	▲	16.6	
2. 표현 및 참여 영향지수 (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46.8
	①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53.2
	① 사업 인지율	◎	4.0	
	② 사업에 대한 공감도	◎	6.2	
	③ 사업 추진과정에서 표현 및 참여 기회의 충분성	◎	20.7	
	④ 사업을 통한 표현 및 참여 기회 증진에 대한 인식	◎	16.0	
	⑤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공간 확충 시 이용의향	▲	34.8	
⑥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기회 증진에 대한 인식	▲	18.3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영향지수 (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67.1
	①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32.9
	① 사업을 통해 조성될 문화유산·경관 대한 방문 또는 이용의향	▲	23.0	
	② 사업이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40.6	
③ 사업이 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36.4		
4. 공동체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50.0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필수 여부	항목 가중치	평가주체 가중치
영향지수 (100)	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5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① 사업이 사회적 자본 및 지역애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65.2	
	② 향후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의향	▲	34.8	
5. 문화다양성 영향지수 (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63.9
	①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36.1
	① 사업이 문화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66.7	
② 사업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33.3		
6. 창조성 영향지수 (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67.1
	①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32.9
	① 사업이 창조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38.6	
	② 사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38.4	
	③ 사업이 창조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23.0	

주1 : ◎ 필수항목, ▲ 선택항목

주2 : 7점 척도의 100점 환산식 = [(점수-1) × 1/6] × 100

주3 : 평가주체 가중치와 평가항목 가중치는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에서 제시된 표준가중치를 활용함

■ 제2장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 제1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
- 제3절 대상지 현황 분석

제1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주거 문화를 떠난 유산으로 격상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여 토착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지역을 대표하는 비석 주택과 비석들의 문화적 가치를 확인·보존·발전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미·초장 지역에 재생사업을 통한 문화접근성 향상과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을 확대·활성화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의 방향성 제고
- 노후경사주거지의 열악한 정주환경과 원도심 쇠퇴 등 내외부적 쇠퇴요인으로 인한 인구유출 및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인 공동체의 정주환경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개요는 다음 <표 2-1-1>과 같음

<표 2-1-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개요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서구청 창조도시과 도시활력담당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초장동 일원 1,166,199m ² (약 35만평)
근거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도시재생법) [법률 제13793호]
사업기간	2016년 1월 ~ 2020년 12월 (약 5년)
사업 규모	99억 4천만 원

□ 사업 내용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내용은 다음 <표 2-1-2>와 같음

<표 2-1-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내용

정주환경 개선 (2016~2020년)	근린경제 활력 (2016~2020년)	역사문화 보전 (2017~2020년)	주민참여 확산 (2016~2020년)
·산동네 피난촌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	·쇠퇴한 고지대 근린상권 활력회복	·산재된 역사문화자산의 통합적 활용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창작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
·옥내외 생활안전 확보 및 공동체 활동촉진의 정주환경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득창출, 인구유입의 공유경제 환경 조성	·마을 아카이빙을 연계한 역사문화보존과 유동인구활성화	·지역기관과 연계한 교육복지를 통한 주민활력도모 및 참여확산

2. 추진현황

1) 추진절차

□ 사업추진 절차

- 2010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 대학 운영 및 주민 의견 취합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왔으며 이를 통해 주민 리더가 발굴/양성됨은 물론, 아미맘스, 늘품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조직되고 자발적 마을 축체인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음
- 거버넌스 기반 구축 관련 제1차 관문심사,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를 확인하는 제2차 관문심사 등 두 차례 심사 과정을 바탕으로 사업조사 및 의견 수렴, 활성화계획(안)을 수립 · 작성하고 공청회/지방의회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음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업구상(안) 제출 및 평가를 거쳐 2015년 부산시 서구 지역이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 지역으로 선정됨
- 최종 선정이후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사업 종료를 목표로 아미 · 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행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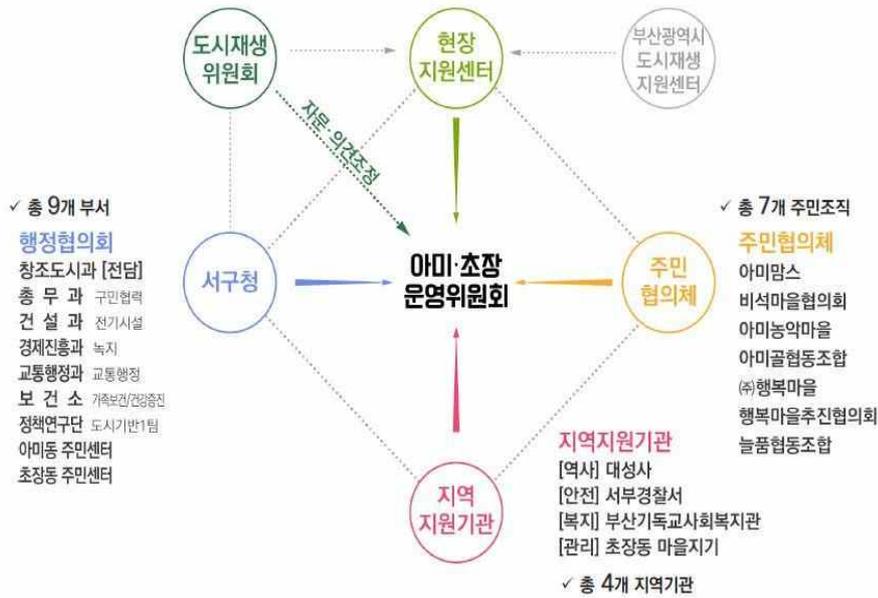
- 2015년 4월 도시재생 일반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구상서 제출하였고, 2015년 12월 도시재생 일반지역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진행함
- 2016년 4월 1차 관문심사 통과 후, 5월 국토부 R&D도시재생 실증연구단과 MOU 체결

□ 추진체계 구축

- 아미 · 초장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행정협의회]를 통해 부구청장 직속 12개 부서 간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5년 4월, 아미 · 초장 사업추진협의회가 공식 발족되었음
- 2016년 2월, 총 17명의 위원과 3인의 공동의장체제로 구축된 아미 · 초장 도시재생운영위원회를 출범하여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매월 2회 정도의 실무진 회의를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4월, 아미 · 초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사업추진체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체계는 [그림 2-1-1]과 같음



[그림 2-1-1] 사업추진체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비전 및 목표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 비전 및 목표는 [그림 2-1-2]와 같이 4개 부문과 4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2] 사업 비전 및 목표

2) 세부 사업현황

- 2014년 도시재생대학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어린이 마을학교, 주민대상 마을육구조사, 연령별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구상(안)을 작성하였으며 활성화계획 수립기간 동안에 아미초장 운영위원회(정기 월 1회) 및 아미초장 실무진회의(상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구상(안)을 정리·종합함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은 [그림 2-1-3]과 같이 4개 부문, 1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핵심콘텐츠		사업도출				
<p>목표 산동네 피난촌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p> <p>추진 전략 옥내·외 생활안전 확보 공동체 활동촉진의 정주환경조성</p>	정주환경 개선 평생 살고 싶은 마을	<p>4개 세부사업</p> <table border="1"> <tr><td>A1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 핵심사업</td></tr> <tr><td>A2 마을배란다 공유이용장 조성사업</td></tr> <tr><td>A3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td></tr> <tr><td>A4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사업</td></tr> </table>	A1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 핵심사업	A2 마을배란다 공유이용장 조성사업	A3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A4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사업
A1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 핵심사업						
A2 마을배란다 공유이용장 조성사업						
A3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A4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사업						
<p>목표 쇠퇴한 고지대 근린상권 활력회복</p> <p>추진 전략 유희공간을 활용 소득창출 인구유입의 공유경제환경 조성</p>	근린경제 활성화 활기 가득한 마을	<p>4개 세부사업</p> <table border="1"> <tr><td>B1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 핵심사업</td></tr> <tr><td>B2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td></tr> <tr><td>B3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td></tr> <tr><td>B4 근린상권 활력사업</td></tr> </table>	B1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 핵심사업	B2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	B3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B4 근린상권 활력사업
B1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 핵심사업						
B2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						
B3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B4 근린상권 활력사업						
<p>목표 산재된 역사문화자산의 통합적 활용으로 지역관광활성화</p> <p>추진 전략 마을아카이빙을 연계한 역사문화보존과 유동인구활성화</p>	역사문화 보존 매력 넘치는 마을	<p>3개 세부사업</p> <table border="1"> <tr><td>C1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 핵심사업</td></tr> <tr><td>C2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td></tr> <tr><td>C3 하늘경관 정리사업</td></tr> </table>	C1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 핵심사업	C2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C3 하늘경관 정리사업	
C1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 핵심사업						
C2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C3 하늘경관 정리사업						
<p>목표 창작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p> <p>추진 전략 지역기관과 연계한 교육복지 주민활력 도모 및 참여확산</p>	주민참여 확산 함께 만드는 마을	<p>3개 세부사업</p> <table border="1"> <tr><td>D1 주민역량강화사업 ★ 핵심사업</td></tr> <tr><td>D2 아미·초장 하자마을</td></tr> <tr><td>D3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td></tr> </table>	D1 주민역량강화사업 ★ 핵심사업	D2 아미·초장 하자마을	D3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D1 주민역량강화사업 ★ 핵심사업						
D2 아미·초장 하자마을						
D3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그림 2-1-3] 사업별 핵심콘텐츠

가. 정주환경 개선

(1)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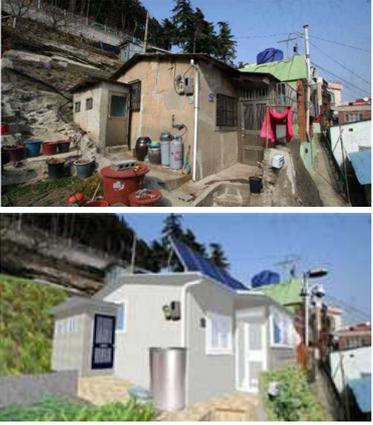
□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초장동 일원
- 사 업 비 : 900백만 원 (국비 450백만 원, 지방비 450백만 원)
- 사업기간 : 2016-2020년

□ 사업 필요성

- 사업대상지인 아미동, 초장동은 저소득층 및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4,987개 건축물 중 노후건축물이 34.9%, 무허가 건축물이 60.6%에 이르는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총 95.5%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임
-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집수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사업내용

구분	[A1-1] 기초 집수리 교육(S/W)	[A1-2] 저비용 친환경 리모델링 교육(S/W)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리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자활 및 봉사단체 집수리 주민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조직 - 긴급 수리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집수리 교육을 이수한 마을지기 단원을 대상으로 심화교육 실시 - 저소득층 주택 및 공개(전입가구)를 대상으로 저비용 친환경 리모델링 실습교육 실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전문인력/조직 발굴 - 주민의 자발적 정주환경 개선 의지 제고 및 공동체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리 기술인재 양성으로 원주민 유출방지 및 신규 인구유입 - 마을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정주의식 제고
사업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집수리 교육 사업예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저비용 친환경 리모델링 교육, 실습가구 전후</p>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1.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A1-1 기초 집수리 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소 조성					
A1-2 저비용 친환경 리모델링 교육					

(2)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초장동 총 4개소 (확정 2개소, 후보지 2개소)
- 사 업 비 : 753백만 원 (국비 367.5백만 원, 지방비 367.5백만 원)
- 사업기간 : 2017-2020년



공가 및 국공유지



폐가 및 국공유지

□ 사업 필요성

- 아미동, 초장동 내 건축물의 95.5%가 2~3평의 협소한 노후·무허가건축물임에 따라 가옥 내 부엌, 화장실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빨래 등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주민이 다수 있음
- 기초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기능 공동이용장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고지대 및 최소주거 미달주택 밀집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공간 제공
 - 공동빨래터, 소셜다이닝, 공동부엌, 소규모 공동목욕탕 등 열악한 단독주택 기능 보완
 - 소규모의 공동체 거점시설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티 유대관계 증진

-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체계를 유도하고 기초생활인프라 확보를 통해 편의 확대, 공동체 유대활동 증진 가능



공동이용장 사업 예상도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2.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아미동 18통 골목 중앙 (13m ²)					
아미동 18통 경로당 인근 (60m ²)					
후보지1 (100m ²)					
후보지2 (100m ²)					

(3)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 사업 개요

- 대상지 : 아미·초장동 총 10개소 (확정 3개소, 후보지 7개소)
- 사업비 : 1,038백만 원 (국비 519백만 원, 지방비 519백만 원)
- 사업기간 : 2018-2020년



폐가 및 국공유지



나대지 및 국공유지



나대지 및 일부 국공유지

□ 사업 필요성

- 공가·폐가·나대지의 유휴공간이 사업대상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삭막한 마을경관·분

위기를 유발하고 이들 유휴공간을 통한 우범지대화가 될 우려가 있음

- 공원·어린이놀이터 등 기초생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하고 상호간 연결할 수 있는 옥외 거점별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원 등 부족한 옥외 기초생활 인프라시설 보완
 - 고지대 녹지공간 조성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설계 반영
 - 주민역량강화 교육 기반의 「우리동네 쌈지마당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여러 기능을 가진 쌈지마당을 조성함
- 녹지공간 및 기초생활 인프라를 갖춘 옥외 소규모 거점 조성 및 이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증진 기여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예시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3.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사업					
초장동 마을지기 사무소 인근 (129m)					
아미산 일원 (110m)					
아미동 주민센터 인근 (184m)					
후보지1~7 (각 80m)					

(4)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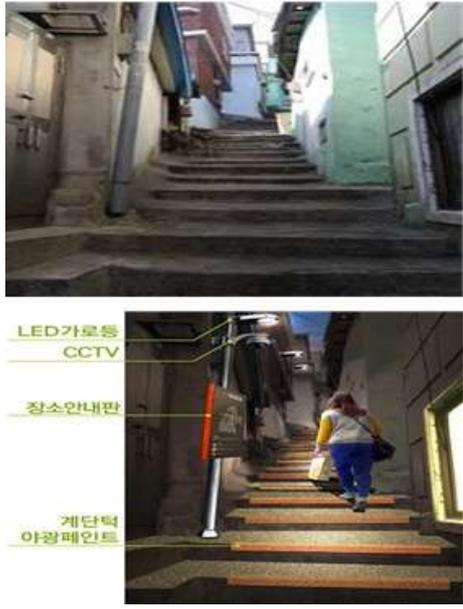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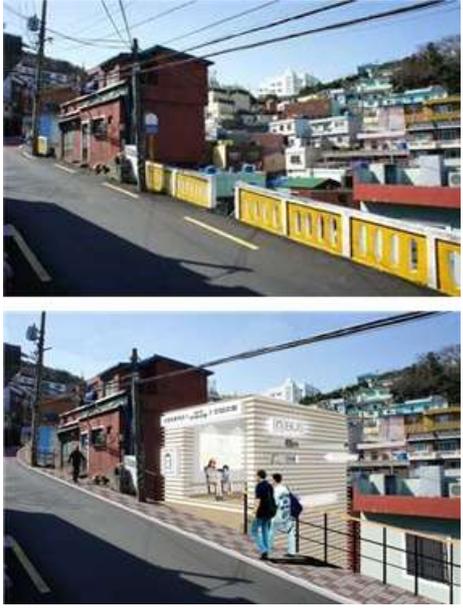
□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안심골목 총 7개소, 안전정류장 총 3개소
- 사 업 비 : 615백만 원 (국비 307.5백만 원, 지방비 307.5백만 원)
- 사업기간 : 2017-2019년

□ 사업 필요성

- 노후경사주거지 인근에 도로가 부족하고 보행에 의존적인 골목길로 주로 연결되어 있어 고지대 구간 통행의 어려움 및 노후 계단에서의 낙상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여 버스 승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 노인 ·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함

□ 사업내용

구분	[A4-1] 안심골목 조성(H/W)	[A4-2] 커뮤니티 안전정류장 조성(H/W)
내용	- 골목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야간 안심골목환경을 조성함 - CCTV, 계단턱 야광페인트 작업 등 안전장비 설치	- 주민안전을 위한 버스 승하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친보행 환경 구축 -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민 쉼터 조성
기대효과	- 고지대 주민의 안전한 옥외활동 증진 및 유동인구 활성화 도모 - 노후화된 골목길 개선, 보행자 공간 확보를 통해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사업예시	 <p>LED가로등 CCTV 장소안내판 계단턱 야광페인트</p>	
	안심골목 조성사업 예시	커뮤니티 안전정류장 조성사업 예시 (아미로)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4. 안심골목 안심도로 조성사업					
A4-1 안심골목 조성					
비석마을 일원					
아미초교 인근					
행복주택 연결골목					
까치고개 아미어린이집 인근					
초장동 8통 일원					
아미산일원					
까치고개-아미로 연결골목					
A4-2 커뮤니티 안전정류장 조성					
아미초교 앞(48㎡)					
아미로 산상교회 인근(82㎡)					
아미로 공영주차장 하행(21㎡)					

나. 근린경제 활력

(1)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사업 개요

- 대상지 : 현장지원센터 내 우리동네 복덕방
- 사업비 : 230백만 원 (국비 115백만 원, 지방비 115백만 원)
- 사업기간 : 2016-2020년

사업 필요성

- 아미동·초장동 내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지역 내 750개소의 유휴공간(2016년 기준)이 산재되어 있음
- 유휴공간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인구유입을 유도함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유휴공간 및 활용가능한 공간정보 DB 구축
 - 사업대상지 내 폐·공가, 나대지 및 국공유지 DB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구축함
 - 다양한 유휴공간을 발굴,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간소유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유희공간 이용 희망자를 연결함

- 방치된 공간을 지역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고 신규창업자 및 전 입자를 유입함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B1.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유휴공간 DB 구축					
홈페이지 구축 및 복덕방 운영					
DB 업데이트 및 복덕방 운영					

(2)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초장동 총 2개소 (아미1, 초장1)
- 사 업 비 : 696백만 원 (국비 348백만 원, 지방비 348백만 원)
- 사업기간 : 2018-2019년

□ 사업 필요성

- 감천문화마을의 유동인구를 지역으로 유도하여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마을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시설 확충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공유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고함



대상지 1



공가 및 일부 국공유지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비석문화마을의 고유한 특징을 방문객들이 향유하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활용
 - 2015년에 완공하여 늘품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천마산 에코하우스를 통해 신규 게스트하우스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사업 시범모델 및 천마산 에코하우스와의 연계를 통해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외부 민간투자의 참여 유도 가능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사업 예시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B2.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 사업					
기차집 옆 (63m ²)					
천마산 초장중 인근 (148m ²)					

(3)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초장동 총 2개소 (아미1, 초장1)
- 사 업 비 : 802백만 원 (국비 401백만 원, 지방비 401백만 원)
- 사업기간 : 2018-2020년

□ 사업 필요성

- 아미동, 초장동 내 산재되어 있는 공·폐가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외부인 유입 촉진을 위해 새로운 주거형식의 대안으로서 시범모델을 제시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사업 대상지 내 열악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축 주택의 시범모델을 제시함
 - 지역 내 사업추진이 용이한 유희공간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미니주택을 조성함
 - 남향경관 조망이 가능한 아미산, 천마산 인근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고지대 경사주거지로서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방문객들의 경관관람 공간으로서 활용함
- 조성된 미니주택은 주민의 새로운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마을체험 홍보관 및 교육공간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함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예시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B3.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초량경로당 인근 (108m)					
아미동 구르미 인근 (200m)					

(4) 근린상권 활력사업

□ 사업 개요

- 대상지 : 아미·초장동 총 3개소 (확정2, 후보지2)
- 사업비 : 773백만 원 (국비 386.5백만 원, 지방비 386.5백만 원)
- 사업기간 : 2017-2020년

□ 사업 필요성

- 고지대 지역에 약국, 상점 등 편의시설이 취약하고 경쟁력이 부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감천문화마을의 160만 관광객의 동선을 이용하여 아미로의 활기를 복원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미골협동조합, 늘품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내 근린상권을 회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중심의 근린상점 운영 방안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먹거리 발굴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한 후 다양한 점포를 조성함
 - 현장지원센터의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근린상권 회복을 통한 효과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함
- 지역 내 주민의 상업활동 참여, 외부인의 신규창업을 유도하여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근린상권 활력사업 예시 (아미로)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B4. 근린상권 활력사업					
기차집 리모델링					
후보지1					
후보지2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역사문화 보전

(1) 아미로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로, 비석주택일원, 아미동2가
- 사 업 비 : 1,513백만 원 (국비 756.5백만 원, 지방비 756.5백만 원)
- 사업기간 : 2017-2020년

□ 사업 필요성

- 지역의 100년길인 아미로, 2014년 발굴된 묘지 위 비석주택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비석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감천문화마을 유동인구와 아미·초장 방문객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및 비석자원이 가지고 있는 근대역사정보를 제공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도시재생대학에서 '근대역사가로화 기획과정', '마을해설사 교육'을 실행하고 마을해설사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근대역사가로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대역사가로화 사업에 디자인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

구분	[C1-1] 근대역사테마가로 조성(H/W)	[C1-2] 피난생활박물관 및 정보이용원 조성(H/W,S/W)	[C1-3] 비석마을 역사광장 조성(H/W, S/W)	[C1-4] 비석마을 추모공간 조성(H/W)
내용	- 역사가로인 아미로를 중심으로 비석문화마을 테마거리 조성 및 유동인구 활성화	- 비석주택 매입, 주민자료 수입을 통해 마을 역사 아카이빙 기록물을 전시함	- 산재한 비석자원을 통합관리하고 향후 발굴되는 비석을 수집, 보관하기 위해 역사광장을 조성함	- 부산아미농약, 경전 등 지역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대성사에 추모공간을 조성함
기대효과	- 지속적인 역사자원의 아카이빙과 마을역사문화를 전시함으로써 인근 방문객 및 신규 관광객을 유도함 - 지역주민들이 마을해설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제공함			
사업예시				
	아미동 옛날 이발소		근대역사가로화 예상도	

□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1.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			
C1-1 근대역사테마가로 조성				■	
아미로 일원 (1구간)				■	
아미로 일원 (2구간)					■
C1-2 피난생활박물관 및 정보이용원 조성		■			
아미동비석주택일원 (446㎡)		■		■	
정보이용원 운영			■		
C1-3 비석마을 역사광장 조성			■		
아미동 일원			■		
비석관리 및 운영			■		
C1-4 비석마을 추모공간 조성			■		
대성사 일원			■		

(2)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초장동 일원
- 사 업 비 : 260백만 원 (국비 130백만 원, 지방비 130백만 원)
- 사업기간 : 2018-2020년

□ 사업 필요성

- 아미·초장동 내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원도심 및 주변의 문화자원을 잇는 탐방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 탐방로 설계 과정에서 주거지 주변을 관광명소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사업의 탐방로의 중복 배제 및 통합을 통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탐방로 구축 사업을 실시함
 - 지역 내 다양한 탐방로를 코스 및 유형별로 발굴하고 주변의 풍부한 유·무형자산을 연계하여 탐방로를 구성하고 탐방로 마을지도 제작 및 주요거점시설에 지도 배포
- 탐방로 코스개발은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한 주민조직의 교육을 통해 「아미-초장 탐방로 위원회」를 구성함



제주 올레 길표식 간세 및 제주 올레 탐방로 가이드북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2. 아미-초장 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탐방로 구축&지도					
탐방로 업데이트 및 홍보					

(3) 하늘경관 정리사업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초장동 일원
- 사 업 비 : 240백만 원 (국비 120백만 원, 지방비 120백만 원)
- 사업기간 : 2018-2020년

사업 필요성

- 고지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원도심 경관자원 및 부산남향 경관을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관광 광명소로 활용하여 유동인구를 유입·활성화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주요 도로변 전봇대 및 전선정리 작업을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아미로, 해돋이로 등 주요 도로에서의 조망경관을 확보하고 산복도로 경관을 증진함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3. 하늘경관 정리사업					
아미로(743m), 옥천로(405m)					
천마산로(900m)					
해돋이로(700m)					

라. 주민참여 확산

(1) 주민역량강화사업

사업 개요

- 대상지 : 현장지원센터 및 아미·초장동 일원
- 사업비 : 340백만 원 (국비 170백만 원, 지방비 170백만 원)
- 사업기간 : 2018-2020년

사업 필요성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 및 지역리더 양성 등의 인큐베이터 기능이 필요함
- 도시재생 사업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구분	[D1-1] 도시재생 모니터링(S/W)	[D1-2] 도시재생대학 운영(S/W)	[D1-3]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S/W)	[D1-4] 주민공모사업(S/W)
내용	- 도시재생 사업의 평가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 모니터링 실시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추진 커뮤니티 디자인 및 주민 전문가 양성	- 정기축제개최를 통한 주민 상호간 연대감 증진	-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함
기대효과	-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 추진하는 성공적인 사업 가능 -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증진			
사업예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을축제 '아미동에선 놀자'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D1. 주민역량강화사업					
D1-1 도시재생 모니터링					
D1-2 도시재생대학 운영					
D1-3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					
D1-4 주민공모사업					

(2) 아미·초장 하자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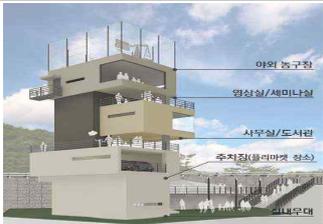
□ 사업 개요

- 대상지 : 아미·초장동 일원
- 사업비 : 1,718백만 원 (국비 859백만 원, 지방비 859백만 원)
- 사업기간 : 2016-2020년

□ 사업 필요성

-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함
- 사업대상지가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공동체의 유대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구분	[D2-1] 청소년 창작스페이스(H/W)	[D2-2] 마을학교(S/W)	[D2-3] 마을창작공방(H/W, S/W)
내용	- 청소년을 위한 영상실, 실내 무대, 세미나실, 야외농구장, 등 창작문화활동 공간 조성	- 지역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증진함	- 어린이, 청소년, 성인층,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예술활동 기반 커뮤니티 활동성 제고
기대 효과	- 교육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방지함	-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건전한 문화환경 구축	-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함
사업 예시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사업예시	마을학교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마을 창작공방 (성인, 어르신 대상)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D2. 아미·초장 하자마을					
D2-1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D2-2 마을학교					
D2-3 마을창작공방					
창작공방 조성1(50m)					
창작공방 조성2(50m)					
프로그램 운영					

(3)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아미골 행복센터, 초장동 한마음행복센터
- 사 업 비 : 80백만 원 (국비 40백만 원, 지방비 40백만 원)
- 사업기간 : 2016-2020년

사업 필요성

- 아미·초장동은 노인 및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데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보건소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주민 건강관리가 다소 취약한 지역임
- 주거공간이 협소하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척추측만증 발병이 높은 편임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척추측만증, 부정교합 등 발병비율이 높은 질병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지역전담의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취약계층을 중점 건강 관리
- 지역 특성, 인구 분포 비율을 반영하여 질병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진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함

사업로드맵 및 연계사업

사업로드맵

로드맵	연차별 사업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D3.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

1.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사업지 및 산복도로 사업지에 대한 문화, 역사/문화유산, 도시재생, 공동체 등 관련 선행연구를 <표 2-2-1>과 같이 검토함으로써 유사 마을에서 이루어진 도시재생 관련 연구와 도시재생 평가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다양한 개념, 조작적 정의, 가설을 적극 반영하고 더 나아가 키워드를 연결함으로써 풍부하고 깊이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표 2-2-1> 선행연구 키워드 분류

주제	선행 연구	저자
아미동, 초장동 및 산복도로 관련 연구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유승훈 (2009)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차철욱, 공윤경, 차윤정 (2010)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주거공간 발생 및 변화과정	정희영 (2015)
	도심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교연구 - 부산 태극마을, 비석마을, 안창마을	황영식 (2012)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남택부 (2013)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공적 공간구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신병윤 (2013)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김연진 (2015)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조명래(2011)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로서 도시재생 연구	임대근 (2016)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박규택, 이상봉 (2013)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부산, 영주, 안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준영 등 (2016)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창진, 정철모 (2014)
	근대역사환경 보전에서 진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이유섭 (2011)

1) 아미동, 초장동 관련 연구

□ 도시 민속, 문화관련 연구

- 유승훈 (2009)¹⁴⁾은 대도시의 달동네 형성의 특수성 차원에서 도시민속학의 주요한 대상으로 달동네를 보고 달동네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도시민속학적 연구 함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미동 등 달동네를 도시화 과정에서 발화된 도시민들의 일상과 근대적 생활문화가 편성되는 공간이자 촌락과 도시를 잇는 가교이자 도시주변부의 경계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제기하고 향후 달동네의 도시민속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함
 -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달동네는 집단적 기억에서 점차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삶의 흔적으로 이른바 박제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의 메스(mes)를 가해야하는 도시화의 상처로 가정하고 있다면, 달동네를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의 ‘도시 정착의 흔적’ 이자 도시가 만들어낸 ‘기층민의 생활문화 터전’ 으로의 관점을 변경하여 들여보야함을 제시
- 차철욱, 공윤경, 차운정 (2010)¹⁵⁾은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던 죽은 자의 공간이었던 아미동에 한국전쟁으로 삶을 잃은 피난민과 철거와 화재 등으로 쫓겨 온 이주민들이 모여들어 아미동 산동네를 형성하는 과정을 공간과 문화의 변이로 설명함
 - 주민들의 언어를 연구한 결과 대부분이 부산 지역 언어로 동화되고 출신지 언어적 특성은 흔적으로 남았는데 여기에는 이주민들의 삶과 소통을 단절시켰던 공간적 특징과 서로간 소외시켰던 이주민들의 의식이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함

□ 마을 공간 관련 연구

- 정회영 (2015)¹⁶⁾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마을형성의 역사적 배경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지는 것과 별개로 주민 스스로는 묘지 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면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모순적 일련의 사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특한 지역성에 기반한 마을재생 사업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함
 - 선행연구들이 마을의 생활상에 초점이 맞춰있었고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음에 착안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아미동을 고찰하고, 일본인 공동묘지, 묘석 등 독특한 주거공간과 마을공간구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 황영식 (2012)¹⁷⁾은 부산의 도심에 위치한 오지마을 세 곳의 고유의 입지특성, 형성배경, 공간조직 특성을 파악하여 초창기 마을형성단계에서 마을의 공간조직에 영향을 주었던 공

14) 유승훈(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 부산 달동네를 중심으로」

15) 차철욱,공윤경,차운정(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 변화」

16) 정회영(2015),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주거공간 발생 및 변화과정」

17) 황영식(2012), 「도심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교연구 - 부산 태극마을,비석마을,안창마을」

통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로 나타나는 상징지역을 구분하여 초기정착 단계의 원형의 틀이 유지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변화된 지역의 공간 구조의 차이를 분석함

- 한편, 마을별 커뮤니티 공간문화 차이가 공간어휘 등 마을문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 있음. 기존의 획일적 정비방식을 탈피하고, 고유의 공간조직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고려되는 마을 단위의 정비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거버넌스 관련 연구

- 남택부 (2013)¹⁸⁾는 산복도로 아카이브와 관련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을 통해 산복도로 아카이브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역할을 우선순위별로 제시하고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였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아카이브 방식에서 철학의 부재 문제를 넘어서, 마을 만들기 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아카이빙과 공유와 소통을 지향하는 아카이빙 방식을 제안함
- 신병윤 (2013)¹⁹⁾은 2011년 1차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19개 프로젝트의 결과로 만들어진 건물들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나타난 공적 공간구성관계의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공적공간이 시설별 소그룹단위의 특정 운영위원회나 소수로 구성된 주민협의회 중심으로 일정 정도 폐쇄적 성격을 갖는 경향이나 일정부분 외부 여행자에게 열려있는 양면성을 띄는 것을 발견함
 - 이는 운영주체인 주민협의회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망과 공공성이 적절히 타협을 이뤄 조화를 이룬 결과로 보이고, 공적 공간의 사적전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이러한 전유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상호교류의 기회로 장려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줌

2) 도시재생 관련 연구

□ 문화적 도시재생

- 김연진(2015)²⁰⁾은 문화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탐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 방안을 제시함
- 조명래(2011)²¹⁾는 공공성을 도시의 공간과 삶 속에 배태 시키지 못한 한국적 도시재생의

18) 남택부(2013),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19) 신병윤(2013),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공적 공간구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20) 김연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방식과 오류를 탐색하고 한국의 도시재생이 사회적 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 제공

- 임대근(2016)²²⁾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산업화의 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심각한 인간 정신의 상실을 낳게 되는 문제에서 착안하여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계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문화공간이 되는 도시재생 방법을 연구
- 박규택, 이상봉 (2013)²³⁾은 그간 창조도시 담론의 생성 배경이 도시문제를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자칫 장소성을 놓치고 살아온 사람들의 터전으로서의 향기와 기억을 담아내지 못하는 방식의 적용에 한계를 지적하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관점의 상호의존적 인식과 실천, 그리고 전지구화가 초래하는 균일화에 대항하여 도시(혹은 로컬)의 이질성,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방식과 첨단산업, 생산자서비스, 교육, 의료, 복지 등까지도 포괄하는 접근으로 연구와 탐색이 필요함을 제시함

□ 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 김준영 등(2016)²⁴⁾은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 방법을 분석하여 주민참여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참여 조건 및 지표를 제시함
- 전창진, 정철모 (2014)²⁵⁾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구조방정식 모형)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수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활발해짐을 제안

□ 도시 근대역사환경 조성

- 이유섭(2011)²⁶⁾은 근대역사환경 조성에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보전하고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역성(Reversibility) 개념을 제시함

21) 조명래(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22) 임대근(2016),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로서 도시재생 연구」

23) 박규택, 이상봉(2013),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24) 김준영 등(2016),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부산,영주,안동 사례를 중심으로」

25) 전창진, 정철모(2014),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6) 이유섭(2011), 「근대역사환경 보전에서 진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2. 국내외 사례분석

○ 유사 사례를 <표 2-2-2>와 같이 검토, 분석함

<표 2-2-2> 국내외 사례분석 총괄표

구분	사례	비고
국내	감천문화마을	문화예술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벽화 등 다양한 예술품과 마을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문제와 함께 상업화 논란이 있음
	통영 동피랑	2007년 동피랑 벽화제를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한 벽화마을로서 마을 내 다양한 벽화와 이를 활용한 기념품이 유명하나, 사생활 침해, 소음을 비롯하여 상가 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서울 이화동 벽산마을 낙산프로젝트	공공미술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된 벽화마을로서 벽화 훼손 사건을 통해서 사업 추진 전에, 공공성(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 대한 공통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한 사례
	군산 근대문화도시조성	인구가 크게 감소된 군산 원도심 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주변 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군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근대문화도시 조성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외부 전문가가 아닌 순천시 주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차별화된 방식을 추구하고 있어 타 지역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국외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초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간 교류 활성화 및 의식 개선을 통해 빈민촌에서 젊은 여행객이 다니는 활기찬 마을로 탈바꿈함
	일본 도쿄-네리마구	마을 내 시설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사업추진으로 지역 자산을 보존 계승한 도시재생사업
	일본 도쿄-세타가야구	도시재생운동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가 처음 시작된 지역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쿄에서 가장 쾌적한 마을로 성장함
	독일- 베를린QM 프로그램 (Quartiersmanagement)	독일 통일 후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근린생활권 단위의 사회통합적 재생 프로그램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환경개선 방향의 패러다임을 가진 도시재생사업
	영국 코인스트리트 (CSCB)	쇠퇴한 항구를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값싸게 제공하고 상업 활동을 지원하면서 주민들 손으로 마을을 살린 대표적 사례

1) 감천문화마을

□ 사업개요

- 한때 부산지역 대표적 고지대 달동네였던 감천동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문화마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보존과 재생’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가미한 생활 친화적 마을재생 방식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



[그림 2-2-1] 감천문화마을 전경

- 지역 예술인과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의 전통적인 골목길과 경관, 역사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한 채 마을 곳곳에 다양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마을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음

- 마을미술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되는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서 외부업체 중심이 아닌 마을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함으로써 마을 환경 개선과 생태계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를 추구하였음



[그림 2-2-2] 승효상 건축가 ‘독락의 탑’

- ‘셋바람 신바람 프로젝트’ (주택 및 담벼락 정비, 공동작업장·경로당 조성), ‘방가방가 프로젝트’ (골목길 및 공동화장실 정비, 쉼터·CCTV 설치), ‘Home My Home 프로젝트’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수리) 등을 마을주민과 함께 추진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승효상 건축가, 조성룡 건축가,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 등 세계적 건축거장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예술가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변 공간 환경을 개선함²⁷⁾

□ 특징

-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도자기, 천연염색 등 마을 상품을 개발하고 감내카페, 아트숍 등의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27) ‘독락의 탑은’ 공동성 문제가 늘 상존하는 마을에서 가끔 혼자가 되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홀로 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명명함

〈표 2-2-3〉 감천문화마을 내 마을기업

기업명	내용
감내카페 1,2호점	일자리창출사업에 응모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주민협의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
고래시어묵	2015년 4월에 개점한 마을기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어묵과 어우동, 고로케를 판매함
감내비빔밥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서 감내전통비빔밥 등을 판매하고 있음
게스트하우스	방기방가 게스트하우스, 감내어울터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음
감내공영주차장	오랫동안 제기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조성된 공영주차장 (50여 대 수용 가능)
아트숍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및 입주작가 작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은 지역 환원사업으로 사용
미니숍	마을 내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음
감천아지매밥집	2014년 11월에 개점한 식당으로 고등어 추어탕과 고등어정식을 판매하고 있음

- 주로 벽화미술, 조형물 중심의 콘텐츠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담은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적음. 또한,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문제를 비롯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등 마을 공동체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임
-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태극도 교인, 도인 중심 집단촌이라는 역사성이 있음에도 관련 콘텐츠는 부재한 채, 벽화미술·조형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전국에 다양한 벽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주민들 생활공간에 관광 콘텐츠를 조성한 탓에 주거공간 내 관광객들의 무단 침해 및 사진 촬영, 소음 발생, 심화된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등 주민들 사생활 및 일상생활 피해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138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지만 당해 매출액이 10억 원으로 나타나 관광객 1인당 769원을 소비하였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객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도 구매 등의 기존의 전통적인 유료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부의 전문 상인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땅값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그림 2-2-3] 유료화 관련 플래카드

□ 시사점

- 감천문화마을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도 참고할 사업임. 하지만, 차별화된 콘텐츠 및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모색 등에 대한 고려

- 가 사업 추진 전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아미동, 초장동은 비석이라는 역사적 자원과 이와 관련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벽화 미술, 조형물을 조성하는 동시에, 비석과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느끼고 공감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마을과 소통하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함
- 기존의 먹거리 외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아미동, 초장동의 공간 기억을 되새길 수 있고 차별화된 정취를 간직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도시를 소비하는 것에서 감성을 공유하는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또한, 상업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 사회적경제 조직 및 우선 지원, 외부 상인 진입 제한·규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수익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존하는 정책이 필요함

2) 통영 동피랑마을

□ 사업개요

- 통영 동피랑은 시의 마을 철거 및 공원 조성 계획에 반발하여 2007년 10월에 개최된 ‘동피랑 벽화전’을 계기로 조성하게 된 벽화마을로서 마을 곳곳에 135여 개의 벽화와 이를 활용한 기념품으로 하루 평균 3,000명이 찾는 관광명소임
- 골목길을 따라 그려진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악세사리 및 지역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동피랑 점방’이 있음
- 국내 최초로 조성된 벽화마을로서 철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벽화마을을 조성하고 관광지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정기적인 벽화 보존 상태 점검, 방문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동피랑마을 내 벽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림 2-2-4] 통영 동피랑마을 전경



[그림 2-2-5] 통영 동피랑마을 지도

□ 특징

-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마을을 주민과 지역 예술가가 힘을 합쳐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리고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었으며, 생활협동조합인 ‘동피랑

사람들’ 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마을 자생력을 갖춘 공동체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2014년 유네스코 지속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았음

- 운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경제적 대가가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이익 제공자이자 이익 향유자가 되도록 함
- 기존 벽화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동피랑 내 벽화를 선별하여 일부 벽화에 대해서는 2년마다 새롭게 교체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동피랑 벽화 마을 축제를 열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있음
- 통영 동피랑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음, 무단 쓰레기 투기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가 개발 문제, 통영시와 추진협의회 간 소통 부족 및 갈등 초래 등이 발생하였음
- 통영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에 군항으로 사용된 역사가 있고 이순신 제독의 활약 등 여러 가지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구현한 벽화, 조형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1, 2층 높이 건물로 구성된 동피랑 마을 중심부에 4층 호텔 및 신규 상가 건축이 허가되면서 동피랑 전체 경관·조망권 훼손 및 마을의 정체성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이번 상가 건축의 허가를 통해 동피랑의 난개발이 시작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마을주민과 지역사회는 걱정하고 있고 있는 실정임
- 전국에 유사한 벽화마을이 늘어나면서 동피랑 마을만의 차별화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놓고 통영시와 추진협의회와의 이견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조직간 소통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상가 개발 문제, 추진협의회 인사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두 조직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림 2-2-6] 동피랑 축제 포스터



[그림 2-2-7] 신규 상가 건축 반대 플래카드

□ 시사점

- 동피랑 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마을의 공공성과 진정성을 담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현재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주민들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시와 추진협의회, 시민단체는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당면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피랑 내 상가 신축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벽화마을 조성 사업에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벽화마을·도시재생 사업의 장기적 계획·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주체들 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통영 동피랑이 우리나라 벽화마을 사업에 상징성이 큰 마을인 만큼 주민,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논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임

3)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 낙산프로젝트

□ 사업개요

- 과거 판자촌, 소규모 봉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친환경 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사업으로 2006년 주민참여에 기초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해 시작된 ‘아트 인 시티(Art in City)’의 첫 결과물
- 문화관광부의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고 예술감독을 위촉하여 추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향후 ‘아트 인 시티’의 본보기로 만들고자 하였음



[그림 2-2-8] 이화동 벽화마을

□ 특징

- 정부가 한국 공공미술 원년의 이정표로서 시작한 낙산 프로젝트는 예술을 앞세우기 보다는 ‘공공성’의 가치와 예술적인 ‘자율성’을 상호공존의 장에서 만나게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음
- 사업 초기 관 주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유도하여 시작한 최초의 공공미술 사업이며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벽화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였고 지자체와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되자 주민이 벽화를 훼손하거나 작가들이 작품을 직접 철거하기도 함
- 4개월간의 짧은 프로젝트 기간으로 미관 개선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벽화 제작 기간이 1~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되고 얼마 후, 페인트 분리 현상 등 벽화 훼손이 발생하였음



[그림 2-2-9] 벽화마을에 대한 주민들 반발

- 마을에 대한 도시정책 방향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시각 차이가 발생되었고 ‘전통 가옥 보존’이라는 목적아래 상업화를 불허한다는 지자체의 견해에 갈등이 증폭되었음. 이 시기에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마을이 소개되고 난 뒤 관광객이 폭주하게 되었고 2016년에 일부 주민들은 벽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 시사점

- 벽화 제거 및 훼손 등 합의되지 않는 공공예술의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 지자체, 예술가, 주민 모두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을 구축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의 무조건적 희생, 편파적 경제적 이득은 지양해야 하고 상호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줌

4) 군산 근대문화도시조성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일원)

□ 사업개요

-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 세관 본관,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등 170여 채의 근대문화유산과 군산 내 향을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벨트를 활용하여 군산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정립하고 지역으로 가치를 환원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군산 내 근대문화유산을 적극 보존하여 빼앗긴 역사에 대한 고통과 치욕을 묵인하지 않고 후손이 잊지 않을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목적에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
- 내항기능 이전으로 크게 인구가 감소한 군산 원도심 지역에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과 테마가로 (아트월, 보행환경 정비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근대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의 8가지 테마를 주제로 야간에 펼쳐는 문화행사 ‘군산야행’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 특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의 '낮은 지가, 임대료'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결합하고 국내 최초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편빌리지)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그림 2-2-10]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 내
군산근대건축관과 군산근대미술관

□ 특징

- 과거 일제의 억압적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역사적 교육 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역사주의적²⁸⁾ 관점과 지역 내 건축물을 복원·역사문화관광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화소비론적 관점이 합쳐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군산시에서는 당시 개항장이었던 군산의 근대 시기에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서양의 문화들이 상륙하여 영향력과 지배력이 미쳤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음. 실제 서양의 건축양식이나 문물이 남아 있어 당시 군산은 여러 문화가 혼재된 다문화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11] 유카타 대여점 및 관련 플래카드

□ 시사점

- 근대문화도시 내 체험거리 부족, 유카타 대여에 대한 적절성 논란 등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근대문화유산 복원작업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간혹 이어지고 있어 사업 목적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한 실정임

5)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 사업개요

- 순천 지역 내 인구감소, 노후건축물 및 빈집 증대, 원도심 쇠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2014년에 1차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소규모 근린재생형 도시로 선정됨
- 옛 순천부읍성터, 향교, 공마당 등 다수의 역사자원과 순천만 갈대축제 등의 생태·정원도시 이미지를 활용, 연계하여 주민 주도형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함
-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순천시는 사업 과정

28) 본고에서 말하는 역사주의적 관점은 국사학계에서 다루는 이론/영역이 아니라 각계 학자, 국회의원, 시민 등 다양한 위치/배경/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근대문화유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을 ‘민족주의론’, ‘역사주의론’, ‘문화소비론’으로 분류·분석함(문예은, 2011).

에서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도심 원주민 상생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도시재생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

- 순천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금곡에코지오 마을’은 외부의 전문가 대신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건축설계 역시 ‘생태’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절감형 집수리, 태양광등 등의 친환경마을로 조성하고 있음



[그림 2-2-12] 순천 문화의거리 전경

□ 특징

- 원도심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여행협동조합’, 청년문화 기획자를 양성하여 청년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앨리스’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림 2-2-13] 관광객을 안내하는 도시재생협동조합

- 사업 추진 3년 차, 순천 원도심 내 점포 수가 67.4%, 하루 평균 매출액이 11.2%가 증가했으며 빈집은 85.9%가 감소했음. 특히, 중앙동에서는 음식점,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매출액도 25만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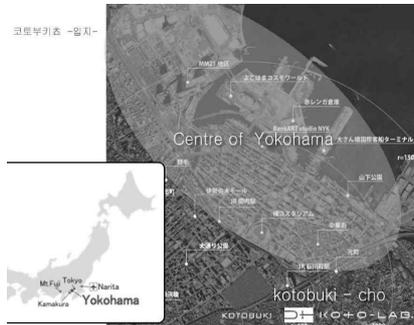
□ 시사점

- 행정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며 관광을 소비하는 측면이 아닌 콘텐츠 생산과 집적 구조를 구축해나가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임

6)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초

□ 사업개요

- 고토부키초는 일본 항구 도시인 요코하마에 있는 지역으로 도쿄와 매우 인접해 있음. 2차 대전 후 항만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살던 “도야가이(쪽방촌)”로 번성했던 지역으로 200×300m 면적 안에 직업소개소와 120채의 간이 숙박소가 줄지어 있었음. 10년 전 까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폐차를 거리에 방치하여 경찰도 순찰을 돌지 않던 지역이었음



[그림 2-2-14] 고토부키초 위치



[그림 2-2-15] 고토부키초 빈집 배치도

-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고토부키초에 남은 대다수 사람이 고령자²⁹⁾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지역 생산성이 결여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 공동화 및 고립화, 공간 환경 악화의 문제점이 불거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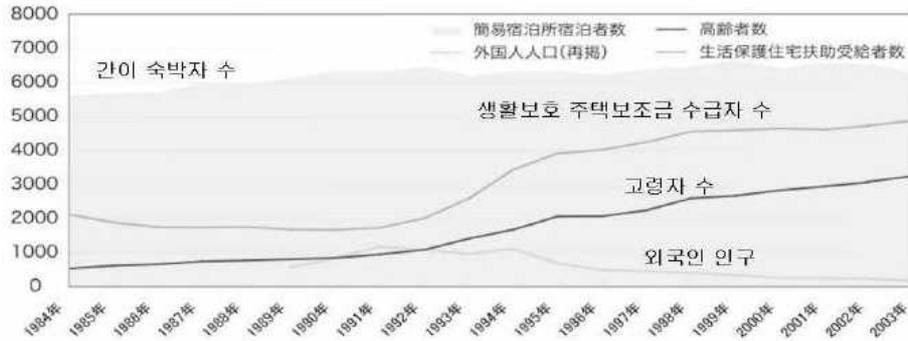
[그림 2-2-16] 마을에 방치된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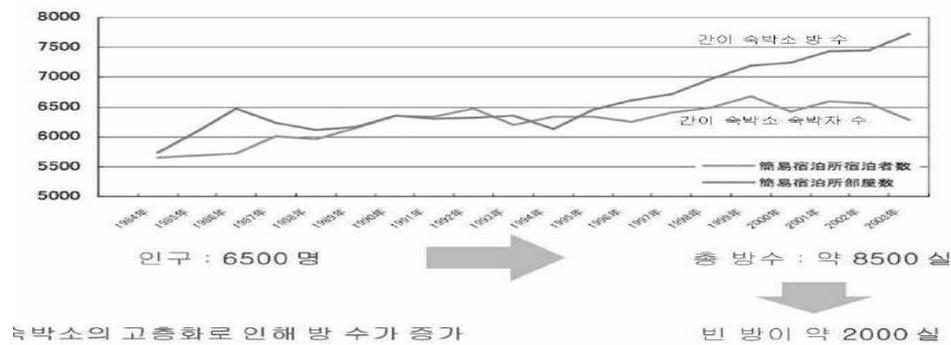
[그림 2-2-17] 고토부키초 마을 전경

29) 고토부키초 전체 인구(6,500명) 가운데 고령자가 50%, 생활보호대상자가 80%, 독신 남성이 95%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의 자연적 감소, 건물의 고층화로 인해 마을 내 공간이 증가하여 빈 방이 매우 늘어남



[그림 2-2-18] 고토부키초 인구 추이



[그림 2-2-19] 고토부키초 빈 방 추이

○ 지역의 빈 방을 연결하여 여행객 숙소를 조성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여 고용창출과 지역내외 커뮤니티가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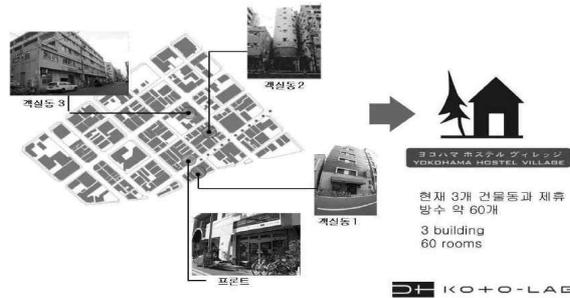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코토 랩(Koto lab)’은 한일 월드컵 당시 젊은이들이 근처 숙소가 부족하여 고생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도쿄와 요코하마와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을 부각, 극대화하기 위해 빈방을 개조한 ‘호스텔빌리지’ 사업을 실시함



[그림 2-2-20] 요코하마 호스텔빌리지

- 전체 공간 가운데, 1~3층은 기존 주민의 거주 공간으로 한정하고 4~5층을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을 보장하였음. 점차 인근에 많은 자원봉사자와 주민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 일용직 노동자 마을에서 고향자, 복지 마을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음
- 동네 빈방을 연결해 하나의 숙소로 만들었으며 현재 3개 건물(60개 방)과 제휴하고 있음.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등을 포함한 일본 국내 여행객이 약 60%임



[그림 2-2-21] 호스텔빌리지 운영 방식



[그림 2-2-22] 호스텔빌리지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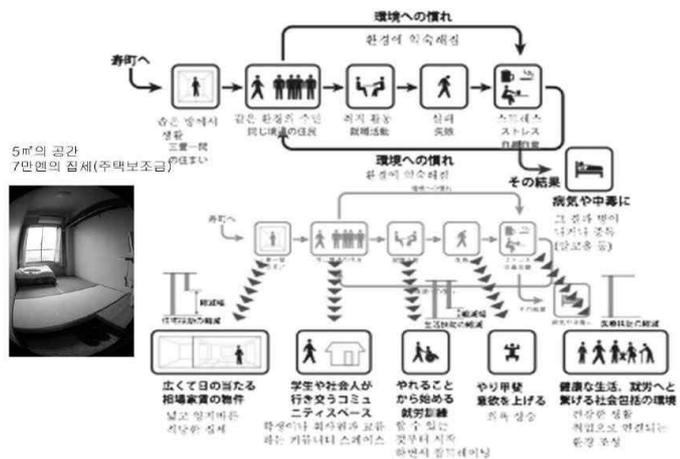
[그림 2-2-23] 호스텔빌리지에 숙박한 관광객

- ‘좋은 방에 살면 의욕이 생겨난다’, ‘좋은 방에서 살기 위해 분발하자!’ 는 생각들을 고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로 연결시키기 위한 거주환경 프로젝트를 “VHY HANARE” 를 실시



[그림 2-2-24] VHY HANARE 프로젝트

- 1인당 연간 36만 엔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의욕 고취 및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복귀로 유도함
 - 학생, 사회인, 아티스트 등과 함께 직접 리모델링하고 토지 소유주와 파트너십을 맺어 실험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행정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2-2-25] VHY HANARE 프로젝트 배경 및 기대효과

-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여 소규모 상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셰어카페를 설립하고 셰어하우스와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고취하는 Bluff Terrace 프로젝트 추진



[그림 2-2-26] Bluff Terrace 프로젝트

□ 특징

- 외부기관과 연계한 마을 공간 정비사업·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 고토부키초 주민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 학생과 NPO법인 사나기다치 직원들이 협력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무실 빈 공간을 법학부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장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음
- 마을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곳곳에 작은 평상을 설치하여 퇴락한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사람들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1평 평상 프로젝트' 추진
- 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선거 홍보 포스터, 화살표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적극 홍보하자 투표율이 예전보다 높아졌고 다음 선거를 위해 직접 유세하러 오는 정치인들도 늘어났음



[그림 2-2-27] 투표 독려를 위한 선거 포스터

□ 시사점

- 집수리를 통해 재생된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각화하여 주민, 학생, 신혼 부부, 예술가, 은퇴자 등의 관심을 환기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
-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직접 리모델링하고 토지 소유주와 파트너십을 맺어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협약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이벤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사람, 장소, 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사회재생의 관점이 필요함

7) 일본 도쿄 네리마구

□ 사업개요

- 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악화된 자연 환경과 노후 건물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목조주택과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네리마역 주변의 쇠락한 상권 활성화하는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
-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된 점진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1기 5년, 2기 5년에 걸쳐 총 10년 동안 국가에서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함



[그림 2-2-28] 도쿄 네리마구 내 마을 전경

□ 특징

- 단기간의 성과 달성에 치중하지 않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으며 각 사업별로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함
- 1기 사업기간(2004년 ~ 2008년)에는 네리마 문화센터를 재정비하고 스포츠·지역교류센터를 신설해 주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또한, 거리풍경 유도형 지구계획을 세워 쾌적한 상업 공간 및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고 중심시가지 도로체계 정비와 이에 맞는 상가건물 개축, 중·고층화를 추진함

〈표 2-2-4〉 마치즈쿠리 1기 사업 성과

구분	종전수치 (2004년)	목표수치	달성치 (2008년 사업완료시점)
방문객 (하루 네리마역 승객수)	68,860 (명)	72,300 (명)	86,000 (명)
4층 이상 중·고층 건축물 수	222 (개)	244 (개)	250 (개)
계획지구 내 점포 수	500 (개)	525 (개)	587 (개)

- 2기 사업기간(2009년 ~ 2013년)에는 네리마역 주변 북쪽출구 재정비 및 지역교류 추진으로 네리마역 중심구에 “활기와 활력” 양성을 핵심 목표로 함

〈표 2-2-5〉 마치쓰쿠리 2기 사업 성과

구분	중전수치 (2008년)	목표수치	비고
방문객 (하루 네리마역 승객수)	84,336 (명)	97,000 (명)	15%증가 (2004년 대비 40% 증가)
대규모 공원 인근 보행자 수	1,728 (명)	2,073 (명)	20% 증가
마치쓰쿠리에 대한 주민 불만	27 (%)	22 (%)	5% 감소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팀과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센터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

□ 시사점

- 단기 성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2004년~2013년)한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주민과 구청 간의 프로젝트형 팀 협력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청과 주민간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어 사업 추진 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됨

8)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 사업개요

- 1970년대 자연환경 지키기와 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이 추진되면서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가 시작된 지역으로 일본에서 주민과 행정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마을만들기의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 받는 도시재생 사업임
- 70년대 고도성장으로 인한 공해문제와 자연파괴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운동이 심화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구청장이 구민참여형 구정구현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함. 또한, 지역별로 종합 지소와 하위 부서인 마을만들기과를 설치하여 주민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실개천, 쌈지마당 놀이터 등 주민들이 제안하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쿄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마을로 성장함



[그림 2-2-29] 도쿄 세타가야구 내 마을 전경

□ 특징

- 일본에서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통과 협력이 성공적인 지역 사회 재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소통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여 지역공생의 집으로 개량하고, 주택주와 협약하여 시민녹지공간을 확보하며 주민의 보행편리성과 지역커뮤니티를 개발함
- 공공자금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 이후 지역 상인들이 축제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수익 창출 및 후속 사업 자금 마련



[그림 2-2-30] 세타가야구 주민교육 활동

<표 2-2-6> 세타가야 내 지역공생의 집

공간명	활동목적	공간명	활동목적
1. 오카상의 집(TOMO)	마을 카페	9. 독서공간 미카모	독서문화교류 거점
2. 신노키	고령자 커뮤니티 거점	10. 야소우의 모임	지역 커뮤니티 교류거점
3. COS치토후나	지역활동단체(NPO) 거점	11. 아바리집	간병 간호 관련 사람을 위한 거점
4. 루츠의 집	아이들을 위한 모임	12. 아리리난	교류를 위한 마을갤러리
5. 차론 One Coin	마을 카페	13. 신키로우	바둑커뮤니케이션 살롱
6. 리브로 뉴스	고서점 철학카페	14. 아이오카상데야소보	아이들과 엄마를 위한 놀이장소
7. COS시모키타자와	지역활동단체(NPO) 거점	15. 키마마	마을 카페
8. 아케네코보우	갤러리 및 공방		

□ 시사점

- 지역의 변화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목적과 방향도 주민에 초점을 둬으로써 지역주민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사람 만들기(ひとづくり)’ 라고도 강조하였는바, 물리적 재생의 차원에서 사람/사회 재생으로 확대할 필요를 보여줌
- 빈집을 활용하여 공생의 집과 같은 공유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마을의 공공성을 증진함은 물론 문화향유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마을과 지역의 역량강화까지 이어지게 함
-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 지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기금화하여 사업 이후의 자립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함

9) 독일 베를린 QM프로그램 (Quartier management)

□ 사업개요

-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독일 전역에 걸쳐 추진된 “사회도시 (Soziale Stadt)” 프로그램의 일환인 근린재생 (Quartier management) 프로그램
-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건조(시멘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이라는 관점 아래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기반시설, 보건 개선, 주거지역 조성, 경제 활동 장려, 이미지 개선 등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음



[그림 2-2-31] QM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 특징

- 주민교육과 다양한 기회 개선, 언어와 경제능력 향상 등 전체적 사회적 통합을 위해 베를린에서는 QM 지원과 함께 지역펀드(QF, Quartiers Fonds)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지역 실업률, 생활보조금을 받는 주민 비율, 청소년 범죄 비율, 교육수준, 주민의 사회적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QM지역을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과반수(51%)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Quartiersrat) 결성이 핵심 원칙임

<표 2-2-7> 지역펀드(QF) 유형

구분	지원금	내용
지역펀드 1 (QF1)	1,000유로까지 지원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위해 지급함
지역펀드 2 (QF2)	1,000~10,000유로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지원하며 지역구의원회에서 지급결정함
지역펀드 3 (QF3)	10,000유로 이상	장기적이고 영구적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에 지원함
지역펀드 4 (QF4)	최소 50,000유로	교육과 주민을 위한 건축물 분야에 지원, 관청 및 지역 고문단에 의해 결정
지역펀드 5 (QF5)	-	베를린 전체에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에 지원함

- QM Brunnenstraße 지역은 2005년 11월에 선정되었으며 주로 건축물 개보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사용함. Brunnenstraße 지역은 넓은 녹지와 자유공간이 있으나 약물거래나 음주로 인해 안전성이 낮았음. 또한, 상점과 상품의 낮은 품질과 다양성, 높은 주민 빈곤률³⁰⁾ 및 실업문제가 부각되었음

-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요가부터 부모를 위한 카페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으며 언어 교육·고등교육 등을 진행하는 도서 및 독서센터 “문맹퇴치(Literacy)” 를 조성함. 이 밖에도 연극,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100개 이상의 미니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음

□ 시사점

- 단순 문화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맹,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를 다양한 미니프로젝트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핵심임
- 연극,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은 미니프로젝트, 부모를 위한 카페, 도서 및 독서센터 교육(리터러시 교육)

10)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 CSCB(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 사업개요

-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템스강 북부로 대거 이동하면서, 5만 명이었던 사우스뱅크의 인구는 4,500명까지 줄고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자 동네는 점점 황폐해졌고 이에 주민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CSCB를 설립(1984년)하여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에 착수함
- 좀 더 거주하기 좋고(Place to live), 일하기 좋고(Place to work), 방문하기 좋은 지역(Place to visit)을 목표로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지역재생 사업을 진행함
- 상업적 투자가 사회적·커뮤니티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CSCB는 옥소타워(Oxto Tower) [그림 2-2-32]를 리모델링하고 인근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역 재생계획을 실행하였음



[그림 2-2-32] 옥소타워 인근

□ 특징

- 재정적 안정을 달성한 후, CSCB는 공원과 산책로를 가꾸고 200호 이상의 값싼 임대주택과 오픈스페이스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 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술가레지던시,

30) 지역 주민의 약 45%가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베를린 전체 평균 두 배 이상의 수치임

축제 등도 실시함

- 기존의 쓰레기장을 변형하여 동네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브리엘 워프’ 상점가([그림 2-2-33])를 개설하고 무료 교육센터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립심을 강화하도록 지원
- 성공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 CSCB의 시사점이자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 건축 등의 영리추구 중심의 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책임 이행 등의 새로운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음



[그림 2-2-33] 가브리엘 워프 전경

□ 시사점

- 단순한 물리적 도시재생을 지양하고 도시의 브랜드,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조인력이 유입되고 주민 중에서도 활동가, 기획자가 양성되는 과정이 가능함
- 지역 주민 개개인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추진된 다른 도시재생 사업과는 달리, 상업활동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하나 끊임없이 상업공간 확보 및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제3절 대상지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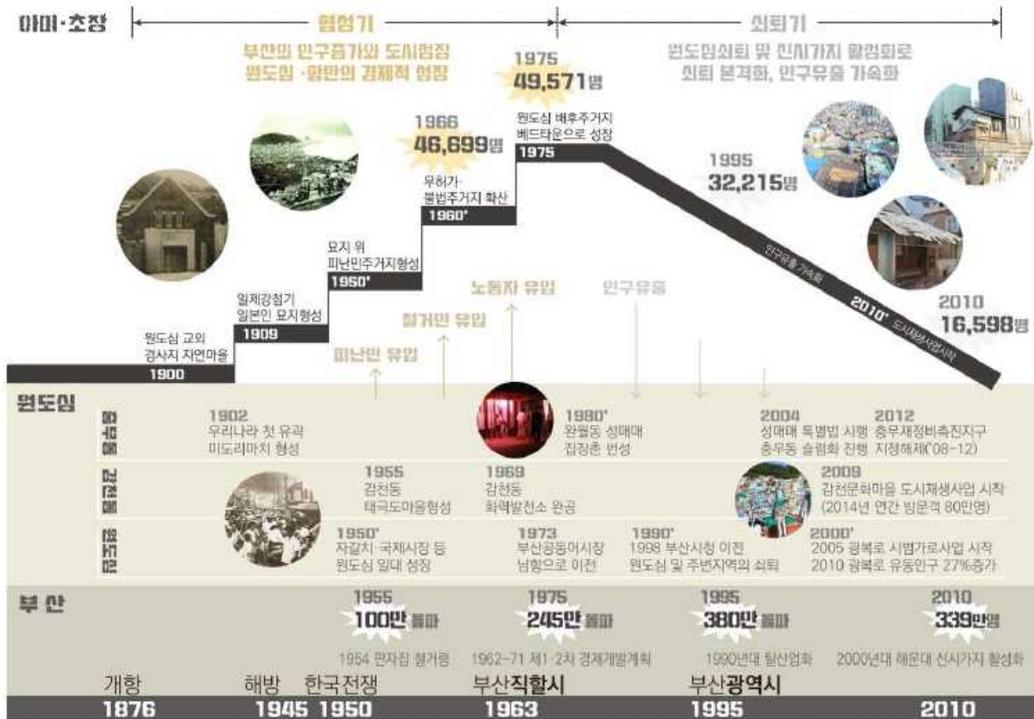
1. 대상지 개요

□ 입지

-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초장동 일원 1,166,199㎡ (1.16km², 35만평)
- 아미·초장동은 부산 서구의 중앙에 위치하는 행정동으로 아미산과 천마산이 사하구와 경계를 이루는 전형적인 경사주거지이며 지리적으로 부산 원도심 상업지역과 부산 남항에 인접하는 배후주거지로서, 원도심과 직선거리 약 1km로 접근성이 좋으며, 경제적으로 원도심 상권 및 수산시장과 인접함
- 자연적으로 부산 남항을 조망하는 경사지 산복마을로서, 남항, 영도, 원도심에 대한 뛰어난 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에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풍부한 근대역사문화장소와 인접하고 있음

□ 형성배경

- 아미·초장동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아미동은 일본인의 공동묘지와 화장장으로, 초장동은 초목지대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이후 원도심 상업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피난민과 도시노동자들의 인구 유입으로 주거지로 급격히 성장하였음.
- 아미동은 한국전쟁 당시 16,18,19통 공동묘지 일대에 피난민들의 움막식 주거지가 조성되고, 1950년대 판자촌을 형성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남항의 항만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시장 및 자갈치일대 상업지역으로 노동자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초장동은 1913년 부산부제 실시로 부민동과 남부민동이 갈라진 후에 생긴 동으로, 부산 개항 이전 까지만 하여도 인가는 별로 없고 초원지대였음. 구전에 의하면 이곳은 초원이 좋아서 하늘에서 용마가 하강한곳이라 하여 산명을 천마산이라 칭하였고, 이런 연유에서 초장동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음. 초원이 좋아 조선시대에는 목마장으로 이용하였는데, 초장동 목마장은 1890년 전후 절영도(현 .영도구)로 옮겨지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자세한 성장과 쇠퇴 과정은 [그림 2-3-1]에 나타나 있음



[그림 2-3-1] 아미 · 초장동 성장과 쇠퇴

2. 인구 · 사회 · 경제적 여건

□ 인구 여건

○ 2016년 1월 기준, 아미 · 초장동 인구는 <표 2-3-1> 같이 14,921명, 7,495세대로 세대 당 인구는 약 2명으로 나타나며, 동별로 아미동의 인구가 61.8%(9,220명), 초장동의 인구가 38.2%(5,701명)을 차지함

- 1990년대 이후 부산시 일대에 신도시의 개발과 원도심 쇠퇴 등 주변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 1975년 49,571명의 인구정점이었던 아미 · 초장동은 2010년 16,598명의 인수로 급격히 감소하여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

<표 2-3-1> 아미 · 초장동 인구현황

구분	인구(비율)		세대(비율)		세대당 인구
아미동	9,220명	(61.8%)	4,576세대	(61.1%)	2.01명
초장동	5,701명	(38.2%)	2,919세대	(38.9%)	1.95명
아미·초장동	14,921명		7,495세대		1.99명

- <표 2-3-2>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상지 내 세대원 수별 세대수에서 1인 가구가 전체의 50.7%를 차지하여 독거노인 비율 등이 같은 서구 평균 42.7% 등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확인됨(2인 가구 22.9%, 3인 가구 13.6%)

〈표 2-3-2〉 아미·초장동 세대원 수별 세대수

구분	아미·초장동		서구	
	세대	비율	세대	비율
1인	3,798세대	50.7%	22,664세대	42.7%
2인	1,716세대	22.9%	12,268세대	23.1%
3인	1,021세대	13.6%	8,693세대	16.4%
4인	672세대	9.0%	6,815세대	12.8%
5인 이상	288세대	3.8%	2,652세대	5.0%
아미·초장동	7,495세대	100.0%	53,097세대	100.0%

- 2016년 1월 기준, 아미·초장동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비중은 <표 2-3-3> 같이 68.5%로 부산시(73.9%)와 서구(71.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고령화율은 25.9%로 부산시(14.6%)와 서구(20.2%)에 비해 상회하여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인구여건이 부족한 지역임

〈표 2-3-3〉 아미·초장동 생산가능인구비율 및 고령화율

구분	아미·초장동		서구		부산시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0~14세	832	5.6%	10,145	8.6%	410,706	11.5%
15~64세	10,158	68.5%	83,597	71.2%	2,629,942	73.9%
65세 이상	3,837	25.9%	23,679	20.2%	518,585	14.6%
총계	14,827	100.0%	117,421	100.0%	3,559,233	100.0%

- 2016년 1월 기준, 아미·초장동의 독거노인은 <표 2-3-4> 같이 1,330명으로 전체 세대 대비 17.7%를 차지하며 전체인구의 8.9%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303명(954세대), 전체 세대 대비 12.7%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의 비율이 서구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표 2-3-4〉 아미·초장동 취약계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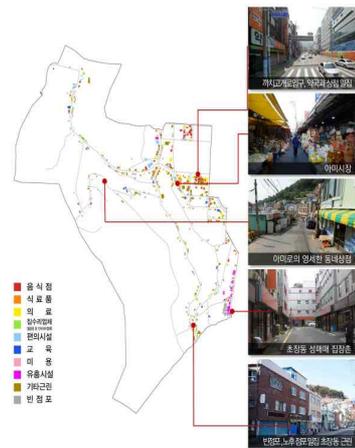
구분	세대	전체세대 대비 비율	인구(명)	전체인구 대비 비율
독거노인	1,330	17.7%	1,330	8.9%
기초생활수급자	954	12.7%	1,303	8.7%
전체인구 및 세대	7,495	-	14,921	-

□ 사회 여건

- 아미·초장동은 주민조직이 총 37개, 회원수 총 574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이 활동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아미골 협동조합, 늘품협동조합, (주)행복마을 등 3개가 공동체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그 외 서구보건소,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부경찰서 등의 지역기관이 주민과 협력하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며 지원하고 있음

□ 경제 여건

- 다양한 사회/경제적 쇠퇴요인의 작용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손꼽힘. 아미·초장동 사업체 수는 2004년 871개소에서 2013년 674개로 22.6% 사업체가 폐업 또는 유출되어 산업경제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고 특히 고지대는 점포가 드물고, 빈 점포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부산권의 탈산업화와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주요 기관·시설의 외곽 이전 등 지역적 쇠퇴요인과 더불어 탈산업화로 인한 상업활력의 감소, 경제적 소득기반 상실이 주요 쇠퇴원인으로 진단되지만, 최근 감천문화마을의 활성화 등으로 감천문화마을 길목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시 잠재력 또한 있다고 보여짐
- 초장동 지역 중 충무동 집창촌³¹⁾에 인접한 지역은 유흥시설이 다수 밀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 등도 걸어다니기 어렵고, 낮시간대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함. 부산시와 서구는 완월동 일대를 안심, 치유, 공유의 공간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 생활사 기록관’, 인근 천마로와 초장로를 연결하는 ‘100년 가로공원’, ‘충무 트래블 비지터센터’, ‘명인명가 텃밭정원’ 등을 조성하고 있음



[그림 2-3-2] 아미·초장동
근린상점 현황 (2015.01
현장전수조사)

31)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인 집단 거류지에서 일본식 유곽(遊廓)이 형성되기 시작해 1900년대 부산에 집창촌이 생겼다. 일본강점기 성매매의 특징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공창 형태였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최초의 집창촌인 완월동(玩月洞)이다.(1907년 미도리마치 유곽) 부산의 일본 조계 지역이 매립되어 확대되면서 거류지 안에 있던 집창촌을 거류지 바깥으로 옮기면서 생겨난 것이 녹정(綠町) 유곽[완월동, 현재의 충무동 2가와 충무동 3가]이다. 1947년 유곽지가 폐지되고 녹정을 완월동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82년 완월동이 집창촌 이미지가 강하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동명을 변경하였다. 최근에 부산시와 서구는 2019년까지 60억원을 들여 일대 약 4만 2천평 지역에 안심, 치유, 공유의 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 도시·지역·공간 여건

□ 도시 여건 (부산 서구)

- 부산시 서구는 고대 변한, 금관가야를 거쳐 거칠산국(居漆山國)³²⁾의 영역에 들어갔고 1951년 처음으로 서구로 확정됨
- 부산시 서구는 북에서 남으로 뻗은 구덕산·시약산·아미산·연봉의 일부가 남으로 이어져 천마산·장군산으로 연결되며 이 산령을 경계로 사하구와 접하고 보수천을 경계로 중구와 접하고 있어 예부터 부산 원도심으로 들어가는 곳의 길목에 교통의 요지였음
- 예로부터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과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대신공원, 그리고 교육역사관과 민속박물관 등이 있는 구덕문화공원 등이 있고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釜山臨時首都政府廳舍) 등의 국가등록문화재가 있음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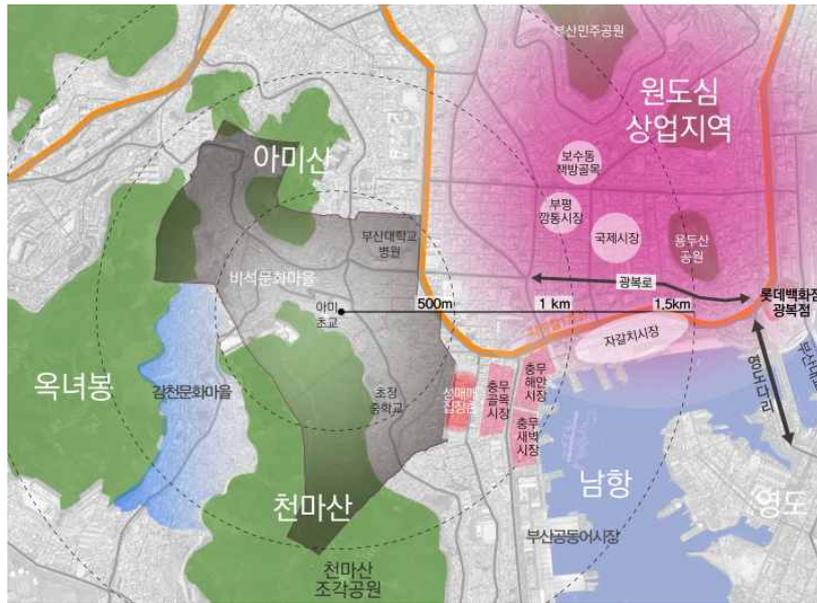
□ 지역여건

- 산복도로, 달동네 마을 성격을 지닌 아미동, 초장동은 한국 전쟁 시절 피난민들이 묘지와 경사지에 주거하며 조성된 주거지로서 장기간 공공개발에 소외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이 미비하고 전형적인 경사주거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인 ‘주거취약지역’ 임
- 제 1·2·3종 일반 및 준주거지역이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그 외의 면적 대부분은 천마산, 아미산, 옥녀봉의 자연 녹지 지역이 39.5%를 차지함
- 주거취약지역, 전형적인 경사지 주거지역으로서 경사도 10도 이상이 전체 79.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경사형태 지역(경사 주거지)임. 개발이 어려운 20도 이상의 급경사가 36.3%로 천마산 및 주변산지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
- 건축물 사용승인일자 기준, 준공된지 20년을 초과하는 노후건축물이 34.9%, 무허가 건축물이 60.6%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5% 수준
- [그림 2-3-2]에서 나타나듯이 부산 원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원도심 및 수산시장 상권과 인접하여 50년대는 피난민, 60년대는 철거민의 배드타운의 공간적 특성을 지닌 지역
 - 원도심과 직선거리 약 1km, 지하철 1호선 토성역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부평깡통시장 야시장, 자갈치시장, 공동어시장 등 부산 대표 재래시장과 인접
 - 역사적으로도 50년대 피난민 및 60년대 철거민의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수가 인근 원도심 및 시장의 노동자로 일을 함

32) 신라 초기에 복속된 가야(加耶)의 소국(小國)으로 지금의 부산 동래부근에 있던 것으로 추정됨

33) 식민 통치의 효율을 높이면서, 개항 이후부터 공을 들여 건설한 부산을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속셈에서 1923년에 착공하여 1925년 4월에 완공하여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옮겨와 그해 4월 25일 도청 업무를 시작함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산동네 특성상 전쟁시기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 모두에서 인구이동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사이에서 생겨났다는 점에서 부산의 근현대사의 질곡을 가지고 있는 경계의 지역임



[그림 2-3-3] 아미·초장동 지역 입지

□ 공간 여건

- 실내환경은 경사지와 피난시설 묘지 위에 무질서하게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그림 2-3-4]와 같이 과소필지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최소주택에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적재공간 등의 부족으로 생활물품으로 실내를 채우고 있고 채광부족으로 낮시간대 어두운 실내 문제, 통풍과 환기 부족 문제도 있음



[그림 2-3-4] 아미·초장동 소규모 주택 여건

- [그림 2-3-5]에 나타나듯이 실외/옥외환경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 비석으로 쌓은 계단, 밀집된 공가로 삭막한 골목, 방치된 폐가, 빈점포 등으로 삭막한 분위기를 내고 있으며 공공개발에 소외되어 가로, 공원, 광장 등 옥외 기초생활 인프라시설도 미비함



[그림 2-3-5] 아미·초장동 옥외환경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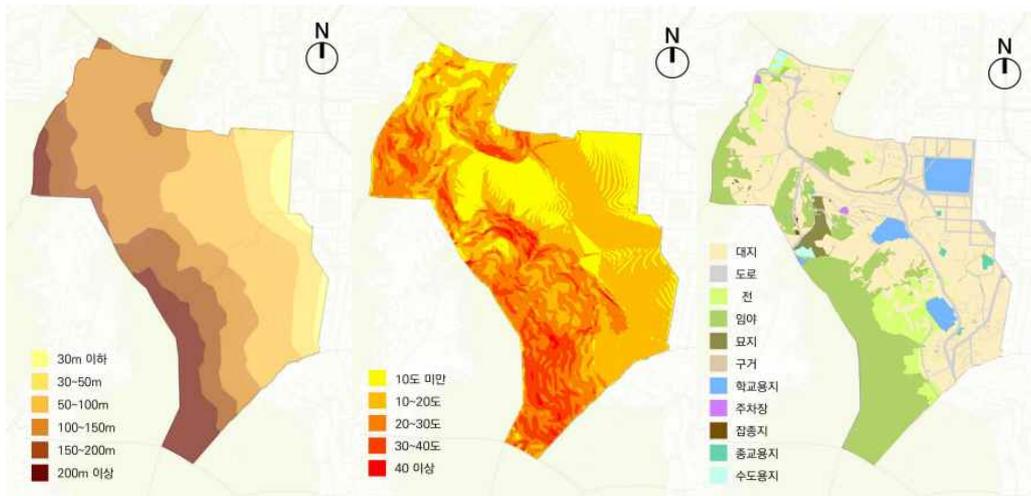
- 그 외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이 71.9% 등으로 도로인프라가 부족하고, 계단과 경사로 등으로 이루어진 수직골목길이 46.1% 등 보행환경도 비슷한 실정에 수용가능한 주차면수 대비 지역 내 주차수용능력은 56.3%로 정주성에 중요한 요인인 주차장 여건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4. 자연적·역사적 특징

1) 자연적 특징

□ 마을 지형

- 아미·초장동은 [그림 2-3-6] 처럼 표고도 100m 이상이 61.7%를 차지하고 주택 대부분은 표고도 50-150m 사이에 입지하고 있어 산동네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며 경사도는 10도 이상이 전체의 79.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경사주거지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함
- 개발이 어려운 20도 이상의 급경사가 36.3%로 천마산 및 주변산지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
 - 지목상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서, ‘임야’가 전체의 25.7%를 차지하며 ‘전’도 6.5%를 차지함



[그림 2-3-6] 아미·초장동 마을 지형 -표고도, 경사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생태

- 아미·초장동은 단독주택이 전체 건축물 중 38.4%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 마당이 있는 경우 텃밭 등을 가꾸고 있고 소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거나 이웃과 나누기도 하지만 공동텃밭, 공원 등의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한 특징을 보임

□ 마을 경관

- [그림 2-3-7]처럼 천마산, 옥녀봉, 아미산 등 산지와 부산 남항 항만 사이에 입지한 경관 자원 보유하고 있어 도시 속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는 경관 메리트가 있는 지역임

- 2014년 영화 <국제시장>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인접한 천마산 일대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로도 선정되어 사진을 찍으러 방문객들이 찾고 있음

- 그 외 동편으로는 부산의 상징이기도 한 용두산공원과 부산타워가 보이고, 동북편으로는 보수산(169m) 및 부산민주공원이 보이고 특히 민주공원층훈탑이 웅장하게 서있는 것이 보임

- [그림 2-3-8]처럼 남항과 부산대교, 영도구가 한눈에 보이며 남편으로는 동해와 남해를 구분 짓는 송도와 정박하는 선박들이 보임

- 천마산 전망대, 아미문화학습관 등의 좋은 경관 포인트를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조성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아미·초장동 만의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경사지 주거지역, 항구마을 등이 쉼, 휴식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 뿐만 아니라 건축적 의미도 재조명받고 있음



[그림 2-3-7] 아미·초장동 조망권



[그림 2-3-8] 천마산 전망대 등에서 내려다본 부산 원도심과 남항 전경

2) 역사적 특징

□ 마을 유래

- 아미동은 음력 초사흘 날 초생달의 모습인 반월성에서 아미월(蛾眉月)이라 부르던데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움집을 의미하는 ‘애막’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한자로 아미(蛾媚)가 되었다는 설이 있음³⁴⁾
 - 아미동에 대한 기록은 19세기 초 일본인이 쓴 대마도 문서인 「초량화집(草梁話集)」에 한자로 “당동(堂洞)”이라고 쓰고 옆에 “아미야” 끝이라고 음을 달고 있어 19세기 이후의 기록에서 확인됨
 - 아미동의 옛 지명은 ‘아미골’이라 불려졌으며 아미골의 어원은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애막(움집)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애막골이라고 불리다가 아미골로 표기되었다는 설과 아미동에 반월형의 토성이 있어 후세에 아미월(蛾眉月)이라 하여 아미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설이 있음
 - 아미월이란 음력 초사흘 날의 달인 초생달을 말하는데 반월성의 모양이임. 아미란 누에나방처럼 예쁜 눈썹을 가진 미인을 말하는데 이 눈썹모양이 초사흘 날의 달 모양임
- 이후 아미동은 고종 3년(1866년) 동래부 사하면에 속하였다가 고종 33년(1896년) 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에 편입됨³⁵⁾
- 초장동(草場洞)은 고지도에 표현된 이곳의 오해야항 목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이곳에 있던 목마장이 영도의 절영도 목마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명이 초장으로 불린 것으로 추측되며, 초원을 찾아 용마(龍馬)가 하강한 곳이라는 전설이 구전되고 있음³⁶⁾
 - 조선시대 동래부 사하면(沙下面)의 부민리(富民里)에 속하였고, 1896년 부산부에 편입됨. 1914년 부민동 일부를 분할하여 초장정(草場町) 1,2,3정목으로 하였다가 1947년에 초장동 1,2,3가로 고쳤음. 초장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2년 초장동 1,2가는 토성동 4,5가로 편입되었고, 초장동 3가는 초장동이 되었음

□ 공동묘지 조성기 (1876년~1949년)

- 한국전쟁 이전, 아미동은 일본인의 공동묘지와 화장장, 초장동은 초목지대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아미동 공동묘지 일대에 피난민들의 움막식 주거지 조성, 1950년대 아미·초장동 일대

34) 지역정보포털, 「아미동의 어제와 오늘」, <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09.jsp?cid=71685>

35) 정회영(2015),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주거공간 발생 및 변화과정」, p.13

36) 국토지리정보원(2011),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

에 판자촌을 형성했음

- 조선시대부터 일본인들이 왜관을 거점으로 부산에 거주하였지만 1876년 2월 강제로 체결된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부산은 강제 개항하면서 일본인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함. 구체적인 거류민 수치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관문호치신문사(關文報知新聞社)에서 발행한 釜山を擔ぐ者(1931)의 통계에 따르면 개항당시인 1876년에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인구가 82명이었으나 청일전쟁(1894년~1895년) 이후 4,963명이 되었고 러일전쟁(1904년~1905년) 이후에는 13,364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37)
- 개항이전에는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사망하면 고위층들의 시신은 대마도로 옮겨갔으나 신분이 낮은 일본인은 왜관의 북쪽 소나무 숲에 매장하였음. 개항이후 부산 내에서 사망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1892년 묘지조성에 관한 한일양국간의 계약이 성립되어 북병산의 약 3만평이 일본인 공동묘지로 조차되었음 38)
- 아미동은 한일합방 이전인 1907년 일본인 거류민단이 자체 시가지계획과 지명을 부여하면서 이곳을 ‘곡정’(谷町)이라 하였음. 이 명칭은 식민지시대에도 그대로 불려지다가 해방 후 1947년 아미동으로 회복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일제 강점기 곡정은 주로 조선인이 거주하는 마을이었음.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등 근대 상품화폐경제의 여파로 농촌경제가 몰락하여 농민들이 부산으로 몰리면서 이곳의 인구도 증가함. 그러면서 점차 산 쪽으로 마을이 확대됨. 아미동에서 주거 가능한 공간은 1955년 기준 전체 면적 809,000평방미터 가운데 277,000평방미터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나머지 약 65%는 주거가 곤란한 야산이었음. 그만큼 사람 살기가 부적합한 공간이어서 일제 강점기에는 대표적인 빈민지대로 여겨졌음 39)
- 1928년 곡정공동묘지에 관련된 기록을 따르면 ‘곡정공동묘지’는 감천리로 통하는 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부산부와 동래군의 경계에 이르는 왼쪽에 8줄로 늘어서 다양한 크기의 300여개의 무덤이 있었다고 함



[그림 2-3-9] 1910년대의 아미동, 아래쪽 비석들이 보임

37) 류교열(2008), 1920년대 식민지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죽음의 정치학, 대한일어일문학회 39, p.307

38) 김용욱(1994), 「근대개항기의 부산행정-1976-1910년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11, p.80

39) 『로컬의 문화지형』, 차철욱,공윤경,차윤정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 변화」 p.259 발췌

- 일본인들은 이경(異境)에 유해를 묻기보다 가급적이면 유골을 고산(故山)에 이송매장하기 위해 가매장을 하였다가 귀국할 때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역(塋域)을 크게 만들지 않고 묘석(墓石)도 많지 않은 특징을 보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1909년 아미산 화장장이 마을과 떨어진 계곡에 만들었지만 이후 영도, 부산진, 대신리 등의 민간이 경영을 하는 시설이 조악하여 부산내 일본인 사회에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신식 화장장을 조선인마을 이던 곡정마을(현재의 아미동 일대)에 짓기로 정함. 이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대웅조식을 만들고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정무총감을 만나 문제해결을 요구함. 이에 부산부는 민간경영 화장장을 모두 매수하여 1929년 좀 더 위 쪽으로 올라간 곳(현재의 천주교 아파트 자리)에 신규 화장장을 건립함. 경비 약 5,600엔을 들여 부산부가 직접 운영하고 신불양식(神佛兩式)의 제단을 구비함



[그림 2-3-10] 아미동 화장장(1957년 당감동으로 이전)과 화장장 터에 들어선 천주교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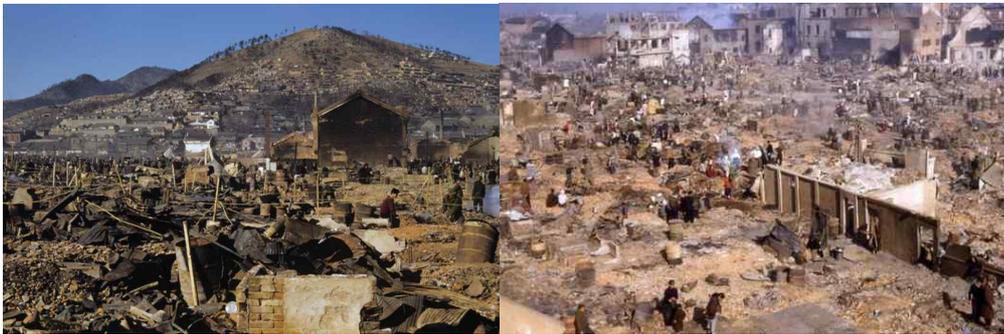
- 일본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매장되지 않은 유해들을 관리할 사찰이 필요하였고, 일본인 유해를 관리하는 총천사(總泉寺)가 1917년 부산부 곡정 2정목에 창립함
 - 광복후 총천사 부지에는 현재 부산서중학교인 부산사범학교 병설중학교가 1946년부터 사용하였고 한국전쟁중에는 제21육군병원으로도 사용했음. 이후 1951년부터는 아미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음(3월 1일 개교)



[그림 2-3-11] 아미초등학교 뒷산의 수호탑과 관세음보살

□ 피난민이주기 (1950년~1955년)

- 한국전쟁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부산으로 피난민이 몰려왔고 수용소를 세웠으나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피난민들이 부산의 고지대주변으로 판자촌을 형성하였는데, 이후 판자촌 일대 화재 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1953년 1월 국제시장 대화재, 11월 부산역전대화재) 철거를 함에 따라 사람들이 기존 시가지 주변 산동네로 정착하게 됨
 - 첫 판자촌은 주로 용두산, 북병산, 대청동, 부두주변의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 범일동, 영도 바닷가 주변인 태평동, 보수천을 중심으로 한 보수공원과 충무동 해안가 등에 집중함
- 1953년 대화재로 부산역도 전소될만큼 그 피해는 컸음. 부산시는 무허가 판잣집을 도시미관 위생 교통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철거하였고 1953년 용두산, 북병산, 부평동, 보수천 부근 등의 판잣집이 철거되기 시작



[그림 2-3-12] 1953년 발생한 국제시장 대화재와 부산역전대화재

- 당시 부산역 앞에서는 공무원들이 ‘아미동’ 이라고 적힌 종이를 나눠주면 철거민들이 아미동으로 왔고 당시 밭과 임야였던 산 19번지 대신 일본인 묘지 부지였지만 주거공간을 형성하기 쉬웠던 아미동 산 22번지에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이 계기
 - 다른 피난민 정착지역에 비해 아미동의 무덤 일대는 땅을 골라 천막만 치면 간단히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가족묘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두른 경계석과 외곽벽은 그 자체가 훌륭한 집벽이 된 것. 당시에는 마땅히 집을 지을 재료가 없어 주변에 널브러진 비석과 상석 수백여 개를 하나씩 가져다 건축자재로 썼다고 함
 - 부산시 당국에서는 이주민들을 청학동, 대신동, 아미동 등으로 분산배치시켰으며, 여러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큰 텐트를 나누어주었다고 하며,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사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음 40)



[그림 2-3-13] 부산 산동네 판잣집과 천막집

- 1950년대 아미동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천막이었음. 휴전 후 부산 시내에서 철거당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은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이곳에 천막을 세웠음. 휴전 이후 8개의 천막이 있었는데 지금의 산상교회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2개, 도로 위쪽으로 4개, 현재 놀이터 근처에 2개의 천막이 형성되어 있었음. (이후 몇 개가 더 형성되어 13개 정도로 늘어났다는 증언도 있음) 이주민들은 이곳이 일본인 공동묘지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묘에 있던 비석, 상석들을 옮기고 때로는 그대로 눕혀서 공간을 마련함. 큰 비석들은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눕히고 그 아래 놓인 납골함을 그대로 둔 채 천막을 치고 살았음⁴¹⁾
 - 천막 한 가운데 2명 정도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통로 양쪽 끝에 가마니로 출입문을 만들었음. 바닥에는 왕겨를 깔 후 그위에 가마니를 깔았음. 처음 천막생활을 할 때는 가구 칸막이도 없이 생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마니, 판자 등으로 천막 내부에 칸을 지르고 가마니로 출입구를 만들었음. 화장실은 실내에 만들 수 없었고, 상하수도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천막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로 기둥을 세운 뒤 가마니 등으로 비바람을 피할 지붕과 벽을 만들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함⁴²⁾
- 한편,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마을 분위기 속에서 아미동에는 여러 종교시설과 종교를 기반으로 한 요양원이 생겼음. 1952년 산상교회도 현재 위치에 천막을 쳐서 만들어졌으며 1953년 그리스도 요양원이 아미동에서 복지 사업을 시작하여 어려운 시절 주민들의 큰 도움이 되었음
- 한편 아랫마을 원주민과 윗마을 이주민간의 갈등, 인근에 접한 감천 2동 태극도마을 주민간의 갈등 등이 문제가 되었음
 - 그 외에도 현 산상교회 근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대나무로 모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집이 있긴 했지만 물이 귀하고 양도 적었기 때문에 토박이나 친한 사람들끼리만 나눠 먹었을 뿐 피난민들은 돈을 주고 구할 수 밖에 없었고, 생활하수는 길에 버리거나 하천에 버렸는데 길에 버릴 경우 경사지 아래로 흘러 이웃 간에 다툼도 있었다고 함⁴³⁾
 - 1955년 종교적 목적으로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던 태극도마을이 아미동과 인접한 감천 2동에 형성되었음. 시내와 감천 2동을 연결하는 가도가 아미동 내에 위치하면서 아미동 내를 이동하는 감천동 주민과 아미동 주민 사이에는 잦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40) 유승훈(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 부산 달동네를 중심으로」 중 이상묵(남, 74세, 부산시 서구 아미동 거주, 나고야에서 입국, 1952년부터 아미동 거주) 구술인터뷰 중

41) 차철욱,공윤경,차운정 (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중 발췌

42) 차철욱,공윤경,차운정 (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중 발췌

43) 차철욱,공윤경,차운정 (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중 발췌

□ 마을형성기 (1956년~1969년)

- 급속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농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유입되었고 아미동에도 1960년에 22,306명에서 1966년에 25,805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음
 - 행정구역도 1966년에 아미 1동과 아미 2동으로 분동됨
 - 다수의 주민들은 바닷가 주변의 냉동창고, 조선소, 부두, 건축업,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음
- 이렇게 아미동 및 초장동 등 산동네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은 공동묘지, 산동네에서 점차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화장장이 시민의 보건과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당감동으로 이전(1957년)하고, 그 터에 천주교 아파트가 들어섬. 일본인 유해를 관리하던 총천사(總泉寺)는 일본 패망으로 폐사되어 그 터에 1959년 아미초등학교가 개교함
 - 1960년에 마을입구에 아미시장이 형성. 1963년에 대성사 창건, 1968년 아미고등공민학교 설립, 1969년 그 자리에 아미성당 설립

□ 마을정착기 (1970년~1989년)

- 1973년에서 1975년 사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집단불량지역 정비를 하면서 아미동에 있던 무허가 판잣집들이 철거를 당하였고, 이 중 일부 거주자들은 외부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 아미동 인구가 1970년 27,617명에서 1985년 25,825명으로 감소함
 - 당시 인근 감천2동의 주택은 판잣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으나 아미동과 초장동은 이보다 늦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공장이 많았던 감천2동보다 아미동, 초장동의 경제적 사정이 더 나빴기 때문이었다고 함
- 거주자들은 주거공간을 그들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블록조로 벽체를 쌓고 슬레이트 주택이나 슬래브 주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때 주거공간은 이전 판잣집의 주거공간 그대로 주택의 구조만 바뀌었음

□ 마을쇠퇴기 (1990년~현재)

- 부산에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분산,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분가,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아미동, 초장동의 인구는 크게 줄게 되었고, 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점차 많아지는 마을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
 - 열악한 주거환경도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마을 내에 수도시설이 들어왔지만, 좁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 화장실이 전혀 없어 여전히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한편, 열악한 마을환경으로 폐·공가가 증가하였고 폐가의 경우 특히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어 나대지로 남겨둔 곳도 많은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마을의 정주환경이 급속히 떨어지는 이른바 슬럼화(slumism)가 진행되고 있음
 - (아미동의 경우) 2015년 전수조사 결과는 폐가 37개, 공가 255개, 나대지 143개로 총 435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미동 건축물 3,614개 대비 약 12%가 폐·공가 및 나대지임
 - 폐·공가의 증가와 마을인구의 감소는 마을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아미동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켰음
 - 그외 쇠퇴의 원인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괴정동을 연결하는 까치고개로가 1985년 2차도로로 확장되는 등 도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시내에서 사하구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이상 아미동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마을 내 상가들이 문을 닫기 시작함. 이에 따라 마을 내 경제활동은 거의 없어지고 마을을 찾는 유동인구도 급격히 감소함



[그림 2-3-14] 아미동 내 공가 및 나대지

- 한편 최근 2010년 이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2010년 남부민동, 초장동, 아미동을 잇는 산복도로가 개통되고,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샌드위치 패널로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노력 등이 있음
 - 2014년 기차길 예술체험장, 아미문화학습관 등 문화공간 및 아미맘스 등의 공동체도 새겨남

5. 문화적 특징

□ 유·무형문화유산

- 아미·초장동에 지정 유형문화유산은 없으나 마을의 특이한 형성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비석주택, 비석자원 등이 산재되어있으며 그 외에도 대성사, 우리나라 유일의 티벳사찰인 광성사 등의 종교문화시설 및 오래된 이발소, 국수집 등의 생활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음
 - 2014년 8월에는 공사 중 묘지 위 비석주택이 발견되었고, 2015년 1월 현장전수조사에서

- 는 총 127개소의 비석자원이 산재하여있음을 확인함
- 그 외에도 타 마을과 구별되는 점은 오래된 이발소, 국수집 등의 생활밀착형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과 천마산 전망대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테라스 경관’의 자연경관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 2-3-5〉 아미·초장동 유형문화유산 및 유형자원

<p>비석주택</p>  <p>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아미동에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이 이곳에 정착하고 공동묘지 비석들을 건축자재로 사용하면서 마을 곳곳에 비석주택이 등장함</p>	<p>비석자원</p>  <p>일본인 비석을 주춧돌, 계단 등으로 사용함. 2015년 1월 현장전수조사 결과 옥외에 127개소의 비석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p>	<p>아미동 산신당</p>  <p>부산 서구에 있는 16개 당산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산신을 숭배하는 뜻에서 만들어졌음. 아미동 산신당 외 아미동에 4개의 당산이 더 있음</p>	<p>대성사</p>  <p>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절마다 남겨진 일본의 혼령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고 있음. 그 외, 묘지석을 이용한 석탑이 다수 있음</p>
<p>총선사 일본불상</p>  <p>불상이 세워진 후 인근 지역에 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매해 석가탄신일에 주민들이 제를 지내고 소망을 기원</p>	<p>광성사 티벳불교</p>  <p>국내 유일의 티벳사찰. 3층 법당에 경전, 탱화, 파라보살 등이 있음. 주재하는 모든 스님이 티벳스님이며 여름철 템플스테이도 가능</p>	<p>오래된 이발소, 국수집 등 생활공간</p>  <p>주민들의 생활의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인 최근에는 보기 힘든 오래된 이발소, 할머니 국수집 등 사랑방 공간</p>	<p>천마산 전망대 등 자연경관</p>  <p>천마산, 옥녀봉, 아미산 등 산지와, 부산 남항의 항만 사이에 입지한 전형적인 테라스 경관으로 2014년 영화의 배경 장면으로 출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선정</p>

- 아미농악이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있으며 그 외에 장정구, 정훈희, 한복남 등의 지역 인물, 각종 지역 주민구술 등의 자료가 다수 산재하여 있는데 특히 아미농악은 토박이의 부산 풍물뿐만 아니라 타지의 촌락에서 전승되었던 풍물들이 복합되어 새로운 아미동의 풍물굿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복합과 변용의 문화’ 라는 아미동, 초장동의 특징의 단면을 보여줌
- ‘아미농악’은 촌락과 도시의 문화적 연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임. 아미농악을 주도했던 대성사(大成寺)의 고(故) 김한순 주지는 강원도에서 살다가 지리산을 거쳐 아미동으로 이주해오면서 그의 형제들이 고향에서 모두 팽과리와 북을 칠 정도로 집안 전체가 풍물을 잘 하기로 유명하였던바, 1950년대 이후 아미동 이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신동 토박이들과 함께 풍물패를 결성하고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걸립을 나섰고 이것이 1980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1980년 2월)된 부산농악의 기원이 됨⁴⁴⁾ 45)

44) 유승훈(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 부산 달동네를 중심으로」 중 요약 발췌

- 도미도레코드를 창업한 <빈대떡신사> 작곡가 한복남⁴⁶⁾, 5백여곡을 히트시킨 가수 김정구, 전직 프로복싱 선수로서 세계챔피언 장정구 등의 인물 자원은 물론,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아미국수, 국수골목, 밀주 등의 먹거리 문화, 부산의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던 신발, 섬유, 봉제공장과 거기서 일하면서 평생의 생애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이 다수 있음

〈표 2-3-6〉 아미·초장동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자원

<p>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p>  <p>1465년(세조 11)에 가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을 후대에 번각한 것. 동일판본이 확인되지 않아 희소가치있음. 15세기 한글공부에 중요 자료</p>	<p>부산 아미농악</p>  <p>부산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농악으로서 음력 정초에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을 빌어주는 걸립굿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p>	<p>아미초장동 유래,설화, 이야기 자원</p> <p>음집을 의미하는 '애막'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한자로 아미(峨岬)가 되었다는 아미동 유래와 목마장이 영도의 절영도 목마장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명이 초장동 유래</p>	<p>마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등</p>  <p>「아미동 아이들」, 「할아버지집에는 귀신이 산다」 등 아미초장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p>
<p>한복남, 장정구, 김정구 등 마을출신/관련 인물</p>  <p>도미도레코드를 창업한 <빈대떡신사> 작곡가 한복남, 5백여곡 히트곡의 가수 김정구. 전직 프로복싱 선수로서 세계복싱평의회 세계챔피언 장정구 등</p>	<p>아미국수, 국수골목, 밀주 등 먹거리문화</p>  <p>피난민들이 비석마을에 정착하면서 다섯 군데 국수집이 생겼음. 현재는 다섯 가게 중 한 곳만이 남아있고, 국수골목이 형성되었음</p>	<p>봉제, 재봉기술 등 생애기술, 일상문화</p>  <p>전쟁 이후 일본인이 빠져나가 빈집을 매웠던 신발, 섬유, 봉제공장과 노동자의 생애기술과 이들의 이야기</p>	<p>축제 '아미동에서 놀자'</p>  <p>2014년 시작된 마을축제로서 지역자생조직인 '아미맘스'와 부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자발적 주민 축제</p>

□ 지역의 문화적 특성

- 아미동, 초장동은 여느 지역보다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거치는 '압축적 혼종' 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시가 겪은 도시 형성과는 상이하였고 서로 다른 민속의 충돌에 의한 '잡종(hybrid)의 탄생' 이라 할 만한 문화변동을 거친 지역임⁴⁷⁾
- 이처럼 아미동, 초장동은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적 특징들이 짝트게 되었음. 이처럼 유별난 근현대사로 말미암아 부산 달동네의 도시 민속은 전시대의 민속문화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였고, 단절과

45) 주목할 점은 농악의 발단이 해방 후부터 1950년 사이의 유삼용(柳三龍 : 1970년에 작고)의 '곱은돌이농악'이며, 이를 기초로 전쟁시기이던 1953년 정초에 '아미농악단'이 창단되었다는 점임. 아미농악은 제21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에서 입상함으로써 널리 알려졌음. 부산 농악의 특징으로는 집돌이 걸립 농악을 바탕으로 하는 점, 지신밟기에 앞서 당산굿을 치면서 모듬굿과 기제(旗祭)를 지내는 점, 집돌이 때의 지신 밟기 문서가 다양하게 발달한 점, 판굿의 연극적 농사굿과 북춤이 돋보이는 점, 버꾸놀음의 기능이 뛰어난 점 등이 있음

46) 1951년 서구 아미동에 도미도레코드사를 세운 한복남은 "한많은 대동강"의 손인호, '한강'의 심연옥, '죄 많은 인생'의 남백송, '꿈에 본 내 고향'의 한정무, '마도로스 부기'의 백야성, '창살 없는 감옥'의 박재란 등 많은 가수를 영입해 향도 부산을 대중가요의 메카로 만들었다 (김종욱, <부산의 대중음악>)

47) 유승훈(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 부산 달동네를 중심으로」 중 요약 발췌

해체, 복원과 변용이라는 혼종의 양상 속에서 형성되었음

- 도시의 주변부에서 어려운 일상을 살고 도시 개발 등에 대한 걱정을 매번 해야 하는 도시 속 유목민(nomad)적 운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삶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고(또는 못하고) 불완전한 경계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도시민속학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 한편 이 지역의 언어의 동화현상에서 문화적 동화현상도 발견되는 데 이러한 현상은 두 지역어가 혼종의 단계를 지나, 구성요소 중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언어로 동화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미·초장동에서 독특한 산동네의 특징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다소 퇴색되게 된 원인을 형성과정에서 찾을 수 있음 48)
- 한편 아미·초장동의 형성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간 이주의 문화, 국가내 이주의 문화, 지역내 이주의 문화가 모두 혼재된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이주와 디아스포라(diaspora)의 문화, 그리고 그 가운데 타자화, 환대와 수용성 등의 이슈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공간이기도 함
- 그 외 히키아게샤(引揚者, 인양자)49)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역사청산 문제의 입장차이 등을 엿볼 수도 있음. 최근까지도 일본인의 방문이 있음

□ 언어/공동체적 특성50)

- 언어를 분석하면 특정 지역의 장소적 맥락이 문화적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미동은 특히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부산 외의 경상도 지역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면서도 이들의 언어 속에 출신지의 언어, 즉 고향어의 언어적 특징이 별로 강하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여기에는 이주민들의 경우,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벽 4~5시에 일터에 나가 저녁에야 돌아오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여건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이유에서 마을 내 다른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에서 가족 내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산 사람들로 소통의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동향 출신이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단절의 상황이 언어적 변화에도 영향을 끼쳐, 부산 지역어를 받아들이고 동화된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아미동 산동네가 지닌 공간적 특징이 이들의 언어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48) 차철욱, 공윤경, 차윤정 (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중 발췌

49) 일본의 구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 거주하다가 일본이 패전하면서 귀환한 일본인(군인, 경찰, 공무원 등을 제외한 민간인으로 한정)인 히키아게샤(引揚者)는 상당수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살다가 총독부의 특혜를 받아 정착하고 상류층 혹은 중산층의 삶을 누리던 일본인임. 패전 후 잔류파로서 남은 일본인들이 아미동 등에 남아 삶을 지속하였음

50) 차철욱, 공윤경, 차윤정 (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중 요약 발췌

- 으로 보이는데 즉 집과 골목이 좁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설사 좁은 공간이라도 낮 동안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래서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지나가다가 인사를 나누는, 이른바 서로의 언어가 교환되면서 유지되는 길을 막았던 것임
- 한편 이주민들 사이의 소통의 단절은 이러한 역사·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것 외에도 그들의 의식적인 측면에 기인하기도 하는데, (구술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산 19번지인 이 지역을 사람들은 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기억하고 서로를 올바르게 못한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더욱 소외시키는데까지 나아감
 -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배경은 그들의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음. 이를테면 이주민들은 자신들은 이곳에서 떠나지 못해도 자녀들은 반드시 밖으로 보내고 싶어했으며 그래서 자녀 교육에 특히 열심이었다고 함. 또한 자신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이곳 사람들이 아닌 지역 외부 사람들과 계모임을 하고, 외부 지역 사람들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 이주민들은 내부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었던 것. 서로 간의 소외는 결국 이주민들 사이의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서로의 문화가 교류하고 소통되지 못함으로써 자신 이 가졌던 문화와는 단절되고 부산 지역 문화로 급격히 동화되는 경향을 보임

■ 제3장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 제4절 삶의질, 정주성(특성화지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 문헌검토 내용

- 경사지 주거 지역으로 문화기반 시설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 공동체 거점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문화접근성 여건은 양호한 편
- 문화시설로는 서구문화원, 교육시설로는 아미초등학교, 초장중학교, 작은도서관 등 7개소가 있으나, 최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2012년 기차집예술체험장, 아미문화학습관, 한마음행복센터, 아미골행복센터가, 2014년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사업>으로 천마산에코하우스가 조성됨

〈표 3-1-1〉 아미·초장동 문화, 교육, 공동체시설 현황

구분	내용	개소
문화시설	서구문화원	1
교육시설	아미초등학교, 초장중학교, 어린이집(3개소), 작은도서관(2개소)	2
공동체 거점시설	기차집예술체험장, 아미문화학습관, 한마음행복센터, 아미골행복센터, 초장동 주민쉼터, 천마산에코하우스, 경로당 (15개소)	21
합계		24

주 : 활성화 계획상 포함된 공동화장실(14개소)은 공동체 거점시설에서 제외함

- 한편 본 사업에서는 창작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의 관점에서 주민의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

〈표 3-1-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향유 연관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추진 커뮤니티 디자인 및 주민 전문가 양성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 - 주민 상호간 연대감 증대 주민공모사업 -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추진
아미초장 하자마을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 유휴공간을 활용, 청소년 위한 영상실, 세미나실, 실내무대, 야외농구장 마을학교 - 어린이/청소년 문화환경 구축 마을창작공방 - 다양한 연령층 참여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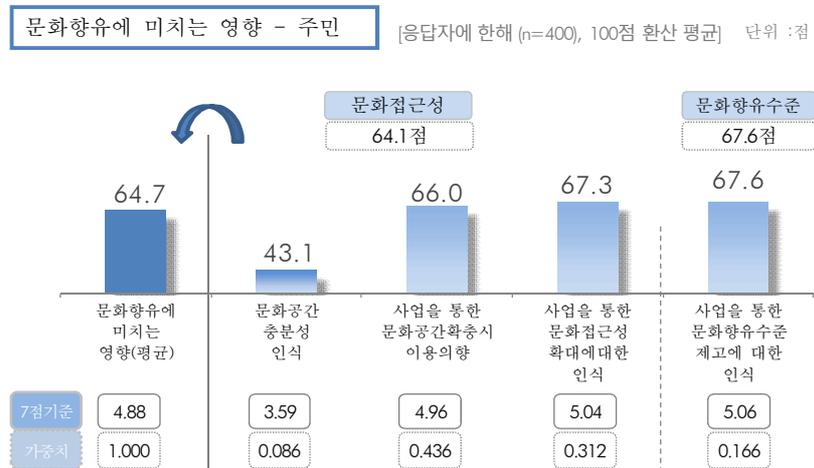
□ 문헌 및 현황분석 결과

-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추진 주체, 주민 참여가 핵심 관건인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으로 파악됨
- 다만, 일반적인 도시재생대학 등과는 차별화하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학습구조 설계, 상호학습 및 조직화 계획도 필요
- 계층별 필요 욕구를 잘 반영한 앵커시설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보임
- 단, 청소년이 제약적인 숫자인 점을 고려시 앵커시설로서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사용 주민을 되려 제약하는지, 지속운영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조직의 전문성, 다양성 측면에 대한 파악이 필요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주민은 본 사업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64.7점(7점 기준 4.88점)으로 영향이 보통 내지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문화접근성 측면에서 ‘사업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시 이용의향’ (66.0점) 및 ‘사업을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에 대한 인식’ (67.3점)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지만 그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이는 최근 2~3년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상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성/연령 등 계층별 차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사업공감도가 높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의 문화적 측면을 주민 스스로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정책 관계자 (주민) 조사 결과는 지역(동), 권역, 성별, 연령, 현 주소지 이전 주소 등 계층간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1년간 문화교육경험이 있는 주민에서 경험이 없는 주민에 비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지수가 높고(+5.8점), 평소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주민(일주일에 3번 이상)에서 영향지수가 높은 특성(+4.8점)을 보임

〈표 3-1-3〉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구분		사례 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주민	문화공간 충분성 인식	사업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시 이용의향	사업을 통한 문화접근 성확대에 대한인식	사업을 통한 문화향유 수준 제고에 대한 인식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합계		(400)	64.7	43.1	66.0	67.3	67.6
지역(동)	아미동	(248)	65.4	42.0	67.5	67.7	68.1
	초장동	(152)	63.4	45.0	63.5	66.6	66.8
		통계검증 (t)	2.134*	n.s	2.930**	n.s	n.s
권역	1중점구역	(300)	64.7	43.4	65.9	67.3	67.9
	2/3중점구역	(100)	64.5	42.3	66.2	67.2	66.5
		통계검증 (t)	n.s	n.s	n.s	n.s	n.s
성별	남성	(200)	64.6	42.7	66.3	67.0	67.2
	여성	(200)	64.7	43.6	65.6	67.5	68.0
		통계검증 (t)	n.s	n.s	n.s	n.s	n.s
연령	10/20대	(61)	64.5	46.7	66.9	65.3	65.8
	30/40대	(99)	66.3	45.3	67.8	68.7	68.7
	50/60대	(160)	64.0	43.0	64.5	67.3	67.6
	70대 이상	(80)	64.0	37.9	65.8	66.9	67.5
		통계검증 (F)	n.s	n.s	n.s	n.s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4.1	45.3	65.6	66.5	65.2
	기타지역(합)	(204)	65.3	41.0	66.3	68.0	69.9
		통계검증 (t)	n.s	n.s	n.s	n.s	-4.314***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69.9	39.6	72.1	72.5	75.0
	경험없음	(360)	64.1	43.5	65.3	66.7	66.8
		통계검증 (t)	3.790***	n.s	2.721**	2.775**	4.189***
평소 친구/지인 만나는 시간	한 달에 몇 번 이하	(136)	61.5	43.9	63.0	63.1	63.6
	일주일에 3번 이상	(264)	66.3	42.7	67.5	69.4	69.6
		통계검증 (t)	-5.024***	n.s	-3.258**	-5.677***	-5.390***

단위 : 점

□ 현황조사 결과

- 본 주민조사 결과는 <표 3-1-4>와 같이 아미·초장동의 문화교육과 생활문화활동 기반이 다소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초장동, 남성, 30/40대의 문화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구체적으로는 문화행사 관람 중에서 전시관람 경험은 14.0%, 공연관람 경험은 18.5%로 낮은 편이었고 영화관람 경험은 5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문화교육 경험은 공연, 미술/사진/서예/공예, 영상미디어, 문학/인문학, 스포츠관련 등 대체로 경험한 주민이 많지 않았음. 생활문화활동 유형별로 5% 미만의 경험을 보이고 있어 생활문화활동 저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파악되며 이에 대한 보충적 접근은 필요해보임
-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공간 방문 경험도 대체로 20%대 미만으로 낮아 본 사업을 통해 문화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임

<표 3-1-4> 아미·초장동 문화활동실태

[각 100%]

구분		(사례수)	1년간 문화행사 관람경험	1년간 문화교육 경험	1년간 생활문화 활동 경험	1년간 문화공간 방문 경험
합계		(400)	58.8%	10.0%	14.0%	56.0%
지역(동)	아미동	(248)	56.5%	11.7%	14.9%	56.0%
	초장동	(152)	62.5%	7.2%	12.5%	55.9%
권역	1중점구역	(300)	58.7%	9.0%	12.7%	54.3%
	2/3중점구역	(100)	59.0%	13.0%	18.0%	61.0%
성별	남성	(200)	59.5%	5.5%	15.0%	53.5%
	여성	(200)	58.0%	14.5%	13.0%	58.5%
연령	10/20대	(61)	82.0%	18.0%	16.4%	59.0%
	30/40대	(99)	73.7%	6.1%	17.2%	65.7%
	50/60대	(160)	55.6%	8.8%	13.1%	55.6%
	70대 이상	(80)	28.8%	11.3%	10.0%	42.5%

- 한편 조사대상 주민들은 <표 3-1-5>에서 나타나듯 마을의 문화공간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51.8%)을 차지하여 문화접근권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아미동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70대 이상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3-1-5> 아미·초장동 문화공간 충분성에 대한 의견

구분		(사례수)	부족(합)	보통	충분(합)
합계		(400)	51.8%	16.8%	31.5%
지역(동)	아미동	(248)	57.3%	11.3%	31.5%
	초장동	(152)	42.8%	25.7%	31.6%
권역	1중점구역	(300)	50.7%	18.0%	31.3%
	2/3중점구역	(100)	55.0%	13.0%	32.0%
성별	남성	(200)	54.5%	13.0%	32.5%
	여성	(200)	49.0%	20.5%	30.5%
연령	10/20대	(61)	42.6%	21.3%	36.1%
	30/40대	(99)	47.5%	15.2%	37.4%
	50/60대	(160)	53.1%	16.9%	30.0%
	70대 이상	(80)	61.3%	15.0%	23.8%

- 주민들은 새롭게 조성/확충되는 비석마을 역사과장, 추모공간, 피난생활박물관 등의 문화공간에 ‘쉼터, 휴식공간’ (34.8%), ‘마을카페 등 커뮤니티공간’ (11.3%) 등의 공간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3-1-6> 아미·초장동에 필요한 문화공간 기능

단위 : %

구분	(사례수)	도서관	공연장 또는 공연 공간	미술 공예 사진 등 전시 공간	영화/영상/미디어 관람 공간	강당 등 집회 교육 공간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연 댄스 등 연습실	공방 목공 소메 이커 스페 이스 등	마을 카페등 커뮤니티 공간	예술가 레지던시	쉼터, 휴식 공간	기타	
합계	(400)	6.0	9.3	7.8	9.0	2.5	10.0	4.8	11.3	2.8	34.8	2.0	
지역(동)	아미동	(248)	4.4	11.7	7.7	8.1	2.0	10.1	4.4	12.5	2.0	35.1	2.0
	초장동	(152)	8.6	5.3	7.9	10.5	3.3	9.9	5.3	9.2	3.9	34.2	2.0
권역	1중점구역	(300)	5.3	7.3	7.0	9.0	2.7	11.0	5.0	11.0	3.3	35.7	2.7
	2/3중점구역	(100)	8.0	15.0	10.0	9.0	2.0	7.0	4.0	12.0	1.0	32.0	.0
성별	남성	(200)	7.0	10.0	6.5	8.0	2.0	11.0	4.0	12.5	3.0	35.5	.5
	여성	(200)	5.0	8.5	9.0	10.0	3.0	9.0	5.5	10.0	2.5	34.0	3.5
연령	10/20대	(61)	13.1	13.1	9.8	13.1	3.3	3.3	9.8	13.1	1.6	19.7	.0
	30/40대	(99)	9.1	8.1	8.1	12.1	3.0	12.1	8.1	9.1	1.0	29.3	.0
	50/60대	(160)	3.8	8.1	7.5	7.5	2.5	10.6	2.5	11.9	4.4	38.1	3.1
	70대 이상	(80)	1.3	10.0	6.3	5.0	1.3	11.3	1.3	11.3	2.5	46.3	3.8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확충될 문화공간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여부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가 앵커시설로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설립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단체를 연계하려는 계획이 있어 향후 청소년들의 문화표현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기독교사회복지관이 관, 청소년, 주민 등과 원만한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두 사람으로 버거운 측면도 있고 새로 건물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괄 운영을 하되 복지관 자체가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필름, 영화, 댄스 등 분야의 좋은 문화예술 단체를 지속적으로 결합할 계획. 뮤지컬 등과 같이 복합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고민 중
- 여타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예술가 협업 계획에 관해서는 현재 위탁운영 주체의 수준으로는 향후 다양한 장르 등 참여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좋은 문화예술 단체 등을 발굴하여 운영의 한 주체로 반영할 계획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내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르와 활동 계획으로 성장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디토리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좋은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여 결합하고자 함. '창작공동체 A' 라는 부산을 기반으로 부산 소재로 그림책을 만드는 예술가 단체와 비석문화마을 할아버지 책을 만드는 협업을 한 사례도 있음
- 현재로서는 문화예술 부분 계획의 주안점이 따로 있거나 전문가는 없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면 다시 재능기부형태로 오는 방식 등의 계획에 그쳐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주체,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해보임
 - 사업 주체들도 어느 정도 복지관의 인력이나 프로그램으로는 문화활동의 장르나 전문성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사업 이후에는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협동조합 등이 위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사회복지관, 서구청에서 새로운 운영기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 기업 펀딩이나 장기프로그램으로 지원받는 방식도 고민 중

□ 확충될 문화공간의 문화적 공간 계획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공간계획은 단순한 조감도 정도이고 청소년 창작활동을 배려한 설계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커뮤니티 디자인)를 추진 중이며, 라키비움(Larchiveum) ⁵¹⁾

51)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세 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

등 복합적 공간 계획은 없음

- 건물 안은 무대, 건물 밖은 객석 등의 구조를 통해 공간의 문화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
- 경사지 주거지만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계단형 구조, 청소년 창작활동을 배려한 디자인/설계 콘셉트, 라키비움 등 복합적 공간기능 설계를 통한 문화적 공간 설계는 부족함

□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 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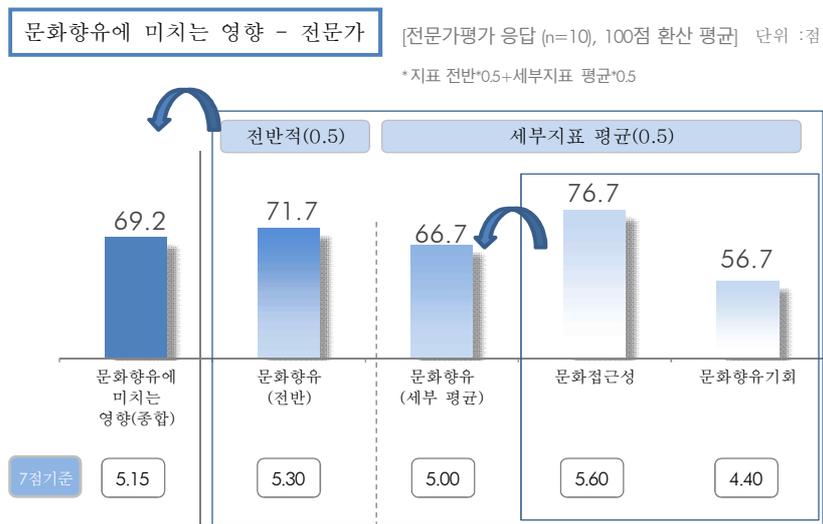
-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주민 자발적인 마을축제 등을 마을 공동체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세대별/계층별 프로그램 이외 어울리는 문화적 활동, 다장르 문화활동에 관한 고민이 부족해 보임
 -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은 축제 외에는 없음. 축제 때도 세대를 아우르는 등의 프로그램 계획은 없고, 현재로서는 청소년, 주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주민들의 경우 기존 문화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 즉, 기존 문화활동과는 다른 ‘정적인 문화’, ‘나눔의 문화’ 등에 관한 욕구가 있고 참여의지도 높음.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가 마을에 많으나 쓰지 않으니 지역 문화상점, 프로그램과 연계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 기존 문화공동체에 집중된 것에서 점차 다양한 문화공동체 형성의 계획/아이디어가 있음
 - 화투그림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등
- 결국 주민의 변화하는 문화욕구를 파악하거나 반영한 계획이나 아이디어는 사업주체 인터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화 분야 전문가의 자문/컨설팅이 필요한 대목으로 파악되었음

□ 문화분야 단체, 인력의 활용

-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 복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부문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왔으나, 주민의 문화시설/공간/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사업 지표로 반영하여 관리할 계획이나 문화기관들과 연계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대상 등 문화분야와 연계가능한 사업에 관한 사전 검토는 아직 미비한 상태임
 - 별도 지표 반영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문화적 지표에 대한 반영을 고민
- 문화시설/단체 등과의 협업 계획에 관해서도 문화재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분야 사업에 관한 반영 계획은 아직 없었음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 전문가는 본 사업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69.2점(7점 기준 5.15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세부 지표별로는 ‘문화접근성’에 대해서는 76.7점(7점 기준 5.60점)으로 평가하였고, ‘문화향유수준’에 대해서는 56.7점(7점 기준 4.40점)으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그림 3-1-2]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 커뮤니티 단위 문화공간의 문화프로그램 계획

- 문화취약계층 지역에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문화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이자, 산동네 피난촌 주거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경사 주거지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단위 문화거점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매우 긍정적임. 특히 노령인구들의 문화접근성이 떨어지는 지형적 조건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공간들은 문화접근성 제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노인, 청소년에 대한 문화 부문 계획이 많이 있어 이들에 대한 문화접근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경우 청소년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임
- 또한 실제 주민들 삶의 조건(고령화, 저소득 등)과 일부 문화 프로그램 간의 문화적 갭(gap)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조성될 문화시설/공간 내지 생활문화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계획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향후 문화예술 활동이 주민들의 실질적 문화향유권 증진까지 이어지기에는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해보임

- 주민들의 문화향유수준은 공동빨래터, 목욕탕 등 중심으로 생활문화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 문화예술분야 단체, 예술가, 관련 사업 연계 계획

-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고민, 전문가 결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다양성, 고유성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자기표현, 소통의 장치로서 문화예술이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지역 내 문화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는가, 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었는지, 외부 문화예술단체와의 문화 접촉 기회를 파악하였는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술, 문화활동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함
- 그간 아미·초장동은 문화의 접근성이 대단히 낮았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몇 군데 기관 의존성이 강해서 문화향유 차원에서 중 다양성을 못 지키고 생태계의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점이며 조성될 시설에서도 도서관, 생활기술 등에 너무 몰입하는 것으로 보임
- 사업주체나 문화 활동가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현황, 사업 현황 등 이해도를 다소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 관련 단체 및 연관 사업을 연계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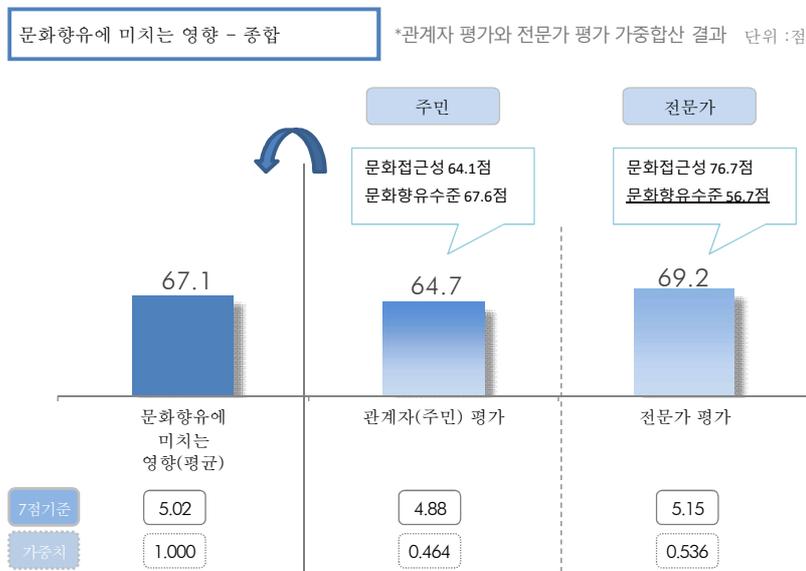
□ 자기표현 장치이자 공동체 형성의 장치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계획

- 현재 문화프로그램 계획은 생활동아리에 가깝고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임. 또한 공간계획은 많으나 이를 채우는 작은 프로그램 계획은 부족함. 문화프로그램을 단순 교육, 동아리로 보는 것을 넘어 자기표현의 장치이자 타자와 교감하는 예술적 활동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됨
- 연령 폐쇄적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음. 믹스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섞일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문화향유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 양태가 다를 것
- 공유공간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이 계층, 주민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저 기존 주민공동체 활동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는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획까지 나아가는지 여부도 중요함

5)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종합

□ 평가 결과 종합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음. 단, 전문가의 경우 문화향유수준에 대해 56.7점으로 상대적으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프로그램 계획의 반영, 문화예술가/단체, 문화시설 협업구조 마련, 주민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계획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1-3]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지수

□ 평가 주체별 평가 내용 요약

- 주민 평가에서는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문화공간 설립을 통한 커뮤니티 단위 문화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반면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보임
- 전문가 평가에서는 계층 특성을 반영한 문화공간 설립 계획이 있고, 주민 자발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이 충분히 있어 사업지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반면, 설립될 문화공간의 운영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다양한 문화단체, 시설, 사업 연계 아이디어가 부족한 점은 다소간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6)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제고 방안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앵커 시설) 등 문화공간의 운영 프로그램 및 공간설계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앵커시설인 점을 고려시 공간에 대한 세부계획에서 1) 내부 프로그램 계획 2) 향후 명확한 운영 모델(위탁운영, 주민 운영주체 육성 등) 계획 3) 예술가 및 단체와의 협업 계획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공간 활용도 제고 및 운영에 대한 고민도 선제적으로 조밀하게 마련하여야 하며 현재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과는 별도로 전문가 영역에서 공간 설계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 경사지 주거지만의 독특한 중층적 구조를 살려 열로 집을 매입해서 베란다를 만들고 브릿지 구조로 공간을 생성하는 시도, 라키비움 같은 복합적 공간기능 고민도 필요
 - 최근 문화공간 조성시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을 거쳐 문화공간의 기능을 탐색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문화단체, 시설, 사업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좋은 도시재생이 되려면 선형적으로 훌륭한 건축가, 활동가, 행정가, 연구자도 들어와야 하며 문화예술의 힘도 빌려서 예술가도 좀 들어와야 함.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좀 더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지켜가야 함
 - 주민의 욕구와 필요, 문화적 고양에 부합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생학습체계 수준에서 공급되는 내용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바, 본 사업비로 문화부분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면, 부산문화재단 등의 연관 사업을 적극 매칭하는 등 공간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전문문화단체 및 예술가들의 참여 및 협력을 추진할 것을 권장함

- 주민 욕구대응 프로그램 계획
 - 1차적으로 문화접근성 차원에서 공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난후 계층별, 키워드별 문화접근을 통해 수혜대상 및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치유의 개념을 통한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현재의 동아리 정도 수준에서 점차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이동이 필요
 - 기존 부산지역 전체에서 운영해오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아미초장 마을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 문헌검토 내용

- 아미·초장동은 2014년 도시재생대학을 시작으로 어린이 마을학교, 주민대상 마을육구조사, 연령별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구상(안)을 작성함
- 활성화 계획 수립기간에는 아미초장 운영위원회(정기 월 1회) 및 아미초장 실무진 회의(상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아미초장 운영위원회가 2015년 4월 발족되어 2016년 2월에는 부구청장, 중간지원조직 총괄코디네이터, 주민협의체 대표의 3인 공동의장 체계인 아미초장 도시재생 운영회 (17명 위원)에서 주요 내용을 협의/결의함
- 주민협의체는 아미동에 아미맘스, 아미골협동조합, 비석마을협의회, 아미농악마을 4개 단체, 초장동에 ㈜행복마을, 늘품협동조합, 행복마을추진협의회 3개로 구성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 3월 개소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의견수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행주체 발굴/육성, 협력 및 네트워크체계 구축, 홍보/모니터링 등을 수행

〈표 3-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운영 체계

구분	구성
아미초장 운영위원회	17명 위원으로 조직 부구청장, 총괄코디네이터, 주민협의체 대표의 3인 공동의장체계
행정협의회	부구청장 직속 12개 부서간 협력적 체계
주민협의체	총 7개 주민 참여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사무국장(역사문화), 활동가(2인), 지역기관 활동가

- 한편 본 사업에서는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문화활동을 커뮤니티 단위에서 시행코자 함

〈표 3-1-8〉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표현 및 참여 연관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주민역량강화 사업	주민공모사업 -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추진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사업 (총 4개소)	공동빨래터, 소셜다이닝, 공동부엌, 소규모 목욕탕 등 열악한 단독주택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에 참여하여 일상적 커뮤니티 유대관계를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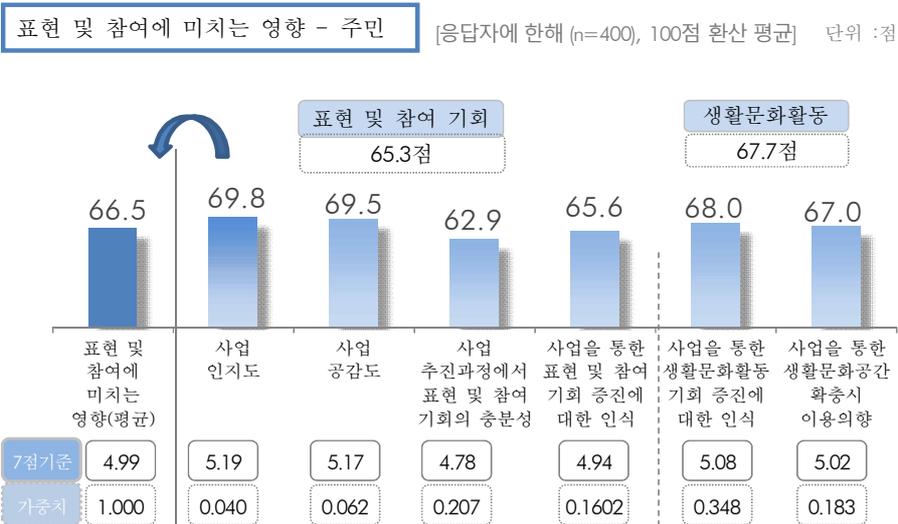
□ 문헌 및 현황분석 결과

- 경사지 주거지역, 좁은 골목길 등 도로/거리 환경을 고려하여 소통과 만남의 공간을 마을단위 커뮤니티 공간에서부터 확충해가려는 계획이 있음
 - 자칫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을 주민의 라이프패턴(life pattern)을 고려하지 않고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계획은 마을 도로/거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임
- 다만 공동체 유대활동을 증진시키는 물론, 사업 이후 공간의 지속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은 나타나지 않아 향후 파악이 필요해보임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주민은 본 사업이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3-1-4]처럼 66.5점(7점 기준 4.99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표현 및 참여 기회 측면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표현 및 참여 기회의 충분성’ (62.9점) 및 ‘사업을 통한 표현 및 참여 기회 증진에 대한 인식’ (65.6점) 등 사업 추진의 거버넌스 측면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지역/성/연령 등 계층별 차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사업공감도가 높은 주민 및 마을리더에 대해 신뢰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표현 및 참여 기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1-4]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정책 관계자 (주민) 조사 결과는 지역(동), 권역, 성별, 연령, 현 주소지 이전 주소 등 계층간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1년간 문화교육경험이 있을 경우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지수가 높고(+7.2점), 마을리더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영향지수가 높게 나타남(+10.6점)

〈표 3-1-9〉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주민	사업 인지도	사업 공감도	사업진 과정에서 표현 및 참여 기회의 충분성	사업을 통한 표현 및 참여회 증진에 대한 인식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회 증진에 대한 인식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 공간 확충시 영향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합계	(400)	66.5	69.8	69.5	62.9	65.6	68.0	67.0	
지역(동)	아미동	(248)	67.7	74.2	70.4	64.7	66.3	68.3	68.5
	초장동	(152)	64.8	62.5	68.0	60.0	64.4	67.7	64.4
통계검증 (t)		2.726**	4.904***	n.s	2.638**	n.s	n.s	3.102***	
권역	1중점구역	(300)	66.6	70.2	70.1	62.8	65.2	68.1	67.3
	2/3중점구역	(100)	66.4	68.4	67.8	63.3	66.7	67.8	65.8
통계검증 (t)		n.s	n.s	n.s	n.s	n.s	n.s	n.s	
성별	남성	(200)	66.5	71.1	69.8	63.2	65.3	68.0	66.5
	여성	(200)	66.6	68.5	69.3	62.7	65.9	68.1	67.4
통계검증 (t)		n.s	n.s	n.s	n.s	n.s	n.s	n.s	
연령	10/20대	(61)	65.7	64.2	69.1	64.5	64.5	66.9	64.8
	30/40대	(99)	67.7	73.4	68.9	65.7	66.5	68.2	68.5
	50/60대	(160)	66.3	70.4	69.0	62.3	65.1	68.1	66.6
	70대 이상	(80)	66.3	68.2	71.7	59.6	66.3	68.5	67.5
통계검증 (F)		n.s	n.s	n.s	n.s	n.s	n.s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5.8	69.7	69.3	62.8	64.5	67.1	65.9
	기타지역(합)	(204)	67.3	69.8	69.7	63.1	66.6	69.0	68.0
통계검증 (t)		n.s	n.s	n.s	n.s	n.s	n.s	n.s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73.0	77.1	75.0	67.1	72.5	75.4	73.8
	경험없음	(360)	65.8	69.0	68.9	62.5	64.8	67.2	66.2
통계검증 (t)		4.558***	2.185*	n.s	n.s	3.877***	3.996***	3.164**	
마을 리더 신뢰도	신뢰하지 않음	(42)	57.1	54.3	58.7	50.0	56.0	61.1	58.7
	신뢰함	(358)	67.7	71.6	70.8	64.4	66.7	68.9	67.9
통계검증 (t)		-6.030***	-4.654***	-5.108***	-4.805***	-5.260***	-4.519***	-3.995***	

□ 현황조사 결과

- 조사대상 주민들은 <표 3-1-10> 결과와 같이 ‘평소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책 입안 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72.5%)
- 상대적으로 초장동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아, 향후 초장동 주민에 대한 의견 표현 기회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표 3-1-10> 평소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책 입안 과정, 시행과정의 의견 표현 및 참여 기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족(합)	보통	충분(합)	
합계	(400)	7.8%	19.8%	72.5%	
지역(동)	아미동	(248)	4.4%	14.9%	80.6%
	초장동	(152)	13.2%	27.6%	59.2%
권역	1중점구역	(300)	8.0%	22.3%	69.7%
	2/3중점구역	(100)	7.0%	12.0%	81.0%
성별	남성	(200)	7.5%	22.5%	70.0%
	여성	(200)	8.0%	17.0%	75.0%
연령	10/20대	(61)	6.6%	24.6%	68.9%
	30/40대	(99)	7.1%	23.2%	69.7%
	50/60대	(160)	7.5%	18.1%	74.4%
	70대 이상	(80)	10.0%	15.0%	75.0%

- 마을 주민리더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사업추진의 결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마을 통반장 등 리더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를 묻은 결과 <표 3-1-11>처럼 다소 신뢰 82.3%, 매우 신뢰 7.3% 등 신뢰한다는 응답이 89.6%로 신뢰도는 높았음

<표 3-1-11> 아미·초장동 주민리더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음	다소 신뢰하지 않음	다소 신뢰	매우 신뢰	
합계	(400)	2.5%	8.0%	82.3%	7.3%	
지역(동)	아미동	(248)		4.4%	87.5%	8.1%
	초장동	(152)	6.6%	13.8%	73.7%	5.9%
권역	1중점구역	(300)	2.7%	6.3%	81.3%	9.7%
	2/3중점구역	(100)	2.0%	13.0%	85.0%	
성별	남성	(200)	2.0%	9.0%	81.5%	7.5%
	여성	(200)	3.0%	7.0%	83.0%	7.0%
연령	10/20대	(61)	1.6%	11.5%	82.0%	4.9%
	30/40대	(99)	1.0%	10.1%	81.8%	7.1%
	50/60대	(160)	1.9%	6.9%	83.8%	7.5%
	70대 이상	(80)	6.3%	5.0%	80.0%	8.8%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주민협의체 구성의 방법 및 절차의 개방성 문제

- 도시재생 사업에서 조직 참여 주민과 일반 주민과의 관계, 주민리더의 대표성 문제는 매우 중요
한데, 본 사업지의 경우 다소 행정 중심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사업 초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웠고, 어느
정도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리더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했음
- 기존 어린이 재생대학에서 진행한 마을주민 욕구조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반영하였고, 도시
재생 모니터링 사업,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사업별 워크숍을 통해
반영함. 세부 24개 사업별로 필요하다면 대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설명
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음
- 사업 추진시 공청회를 열어 다수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통장, 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형태를 주요 의견교환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은 주민을 모아서 설명회
및 스스로 주민이 필요한 것을 짜보는 워크숍 형태도 진행함
- 주민공모사업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500만원 내외로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
-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준주민자치적 참여를 통한 좀더 많은 주민의 표현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까지는 나타나지 않음
-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교환 및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나 좀 더 많은 주민
을 향후 의사결정 구조에 초대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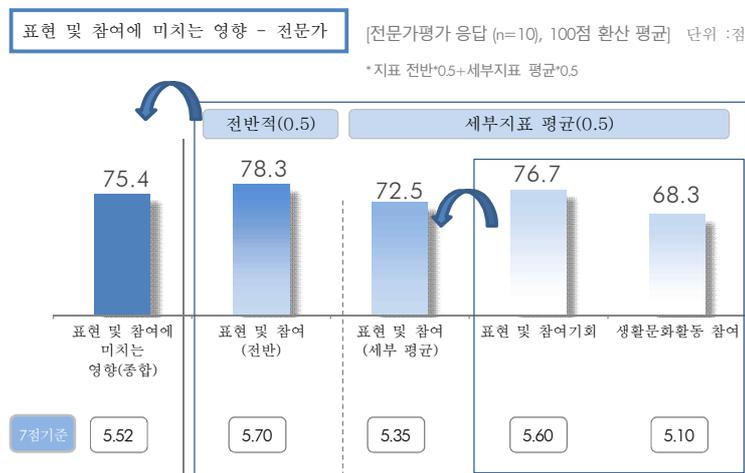
□ 주민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참여 여부

- 주민 축제가 주요한 생활문화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축제를 기점으로 마을의 생활문화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는 계획이 있지만, 사업 이전에 이루어지던 수준 이상의 계획은 없음
- 주민 강사 활용 등의 계획에 대해 언급되지는 않고 마을축제나 개별 사업 참여자로는 주민
을 활용하고 있음. 단, 주민리더의 경우에는 주민 중 문화적 역량이 있는 분을 주민 강사로
초빙하는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음
- 주민들 중 요리를 잘하거나 하는 분을 모셔다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른바, ‘주민강사’ 에
대한 현재의 제약은 마을의 생활문화활동의 확장성에 반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 강사
자격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멀리있는 강사
를 초빙하는 번거로움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고 주민 속에서 선생님을 찾아서 진행한다는 콘
셉트가 너무 좋다는 의견을 보임

- 그러면서 주민은 요리 잘하는 분을 모셔서 같이 밥 해먹고 이야기 나누거나, 주변에 술만 마시는 분들을 초대하거나 반찬을 배달해주는 것을 문화프로그램으로 하는 아이디어 제시
- 생활문화공간(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게스트하우스 등) 지속운영 계획
 - 이용비용을 적게라도 받아서 전기세, 세제 등 구입을 충당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향후 생활문화공간으로 설립되는 곳들의 지속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정착까지만 지원하되 주민이 협의체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며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실제 이용장을 조성한다는 단서를 두고 자 함
 -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며 자판기처럼 이용료로 세제 비용을 충당하고, 관리자가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더 나아가 후원단체, 수익금 환원 구조까지 고민 중임
 - 주민들은 계획 상 나타난 이상의 운영 계획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이를테면 마을에 집안 빨래를 잘 안 해서 정주환경이 너무 열악한 분들이 많은데 이들처럼 빨래를 안 하는 독거노인 등의 빨래를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 등의 좀더 구체적이고 확장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 본 사업이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75.4점(7점 기준 5.52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함. 세부 지표별로는 ‘표현 및 참여기회’ 에 대해서는 76.7점(7점 기준 5.60 점)으로 평가하였고, ‘생활문화활동 참여’ 에 대해서는 68.3점(7점 기준 5.10점)으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그림 3-1-5]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반의 표현 및 참여기회 보장

-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 시점인 2011년부터 사업 추진 차원에서 주민리더가 발굴되고 양성되었다는 측면과 민관 거버넌스가 양호했다는 측면에서 표현 및 참여 기회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담보되었고 현 조직을 매개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다는 점. 또한 현재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주민들의 태도가 적극적이며 확산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앞으로의 주민참여의 범위와 폭이 넓어질 것이라 판단됨
 - 기존의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서 초창기 사업계획 수립에서 주민들이 사업 입안 과정에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음
 -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에서 주민들의 사업제안 및 환류까지 직접 참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집수리 사업단을 주민들로 구성하고 교육 및 양성을 거쳐 협동조합화하고 자립하게 하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함
- 성숙된 주민 리더들이 타 지역에 비해 잘 양성되어 향후 주민리더의 역할이 잘 정립된다면 주민들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잘 안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반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표현 및 참여의 거버넌스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만, 현재 계획이 다소간 리더 중심의 집중이 또 다른 주민에 대한 배제를 불러오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할 것임

□ 생활문화공간의 자생력 확보 방안

- 현재 구축되었고 또 구축될 생활문화 거점들 모두가 자생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활문화공간의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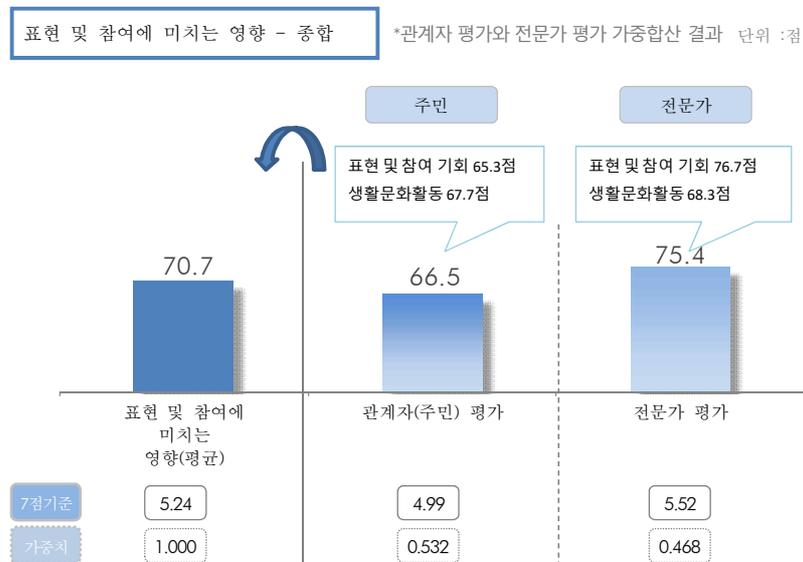
□ 생활문화활동의 확장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생활문화활동 증진에 기여

- 주민들의 주체적 문화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마을학교와 하자센터, 창작공방 등을 시행하거나 운영함으로써 향후 참여율 신장이 기대되지만, 생활문화활동이 대체로 생계지향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음. 또한 주민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 문화적 욕구와 여유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경향이 있음
- 생활문화활동 대부분이 단발성 이벤트, 청소년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일상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활동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간 거리감이 있음

5)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종합

□ 평가 결과 종합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음. 전문가의 경우 표현 및 참여에 대해 본 사업 계획이 사업 관계자로서 주민의 표현과 참여 기회 여건이 잘 조성되어 왔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평가함. 단, 생활문화공간 및 생활문화활동 측면에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주민의 내면적 욕구를 반영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그림 3-1-6]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수

□ 평가 주체별 평가 내용 요약

- 주민 평가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주민의 표현 및 참여 기회가 증진된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마을리더 등에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전문가 평가에서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민주성과 개방성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과 노력 과정을 거친 흔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문화적 표현을 포함하는 생활문화활동 측면에서는 확장성 등이 제약받는 계획이라는 평가도 보임

6)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제고 방안

-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로의 진화 및 환류체계 마련 필요
 - 향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할 때 주민들과의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류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주민들 자체적 고민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내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재정, 공간, 전문가 등)을 계획성 있게 제공하여야 함
 - 향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본다면 이전에 추진체계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 및 표현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임
- 생활문화공간 운영 계획의 문화적 방식 고민 필요
 - 공간 운영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조성과정에서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행과정에서 예술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업 활동을 거쳐 공간의 장소성을 기록하고 공간의 기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 감사 활용 등 자발성 문제와 전문가 활용 문제
 - “문화를 스스로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주민들이 탄생하는가?”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함. 모든 것을 자원봉사나 자발적 참여를 넘어서는 정도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렇게 1~2년은 가능하나 3년 뒤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음
 - 사업 추진의 패턴이 주민으로 하여금 공급되는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의 향유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코디네이터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즉, 사업기간의 종료와 함께 주민들이 자력적인 문화활동의 생산자, 향유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함. 즉, 단순한 주민 교육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수입, 활동비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함
 - 생활문화활동참여의 경우 마을 내의 리더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하며 장르예술, 전문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유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함
 - 청소년 계층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계층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의 사례와 경험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사업 주체 및 협력 파트너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 문헌검토 내용

- 일제강점기 일본인 묘지 위에 한국전쟁 이후 피난촌으로 조성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비석주택과 2015년 전수조사 결과 옥외 127개소 등 비석자원이 산재해있고, 부산 아미농악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대성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등 지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마산, 옥녀봉, 아미산 등 산지와 부산 남항의 향만 사이에 입지한 전형적인 테라스 경관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경사골목 및 계단길 등 독특한 공간구조 보유
- 지역인물, 주민 구술자료와 같은 무형자원도 풍부하게 있는 편이며, 빈민들을 대상으로 자선 사업과 구호활동이 이루어진 영향으로 지역 내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이 많은 것이 특징임
- 한편 본 사업에서는 쌈지마당 만들기 사업,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 사업,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문화유산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룸은 물론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획이 있음

〈표 3-2-1〉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유산 및 경관 연관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 사업 (총 10개소)	지역에 많은 공가/폐가/나대지 등 유휴공간(16 기준 750개)의 우범지대화를 방지하고 옥외 주민공동체 활동 증진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 사업 (총 2개소)	유휴공간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미니주택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축주택 모델 제시
아미로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근대역사테마가로 조성 피난생활박물관 및 정보이용원 조성 비석마을 역사광장 조성 비석마을추모공간 조성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 사업	기존 난립되어있던 탐방로의 통합을 통하여 유형별/코스로 발굴 및 사인체계 통합적 관리

□ 현황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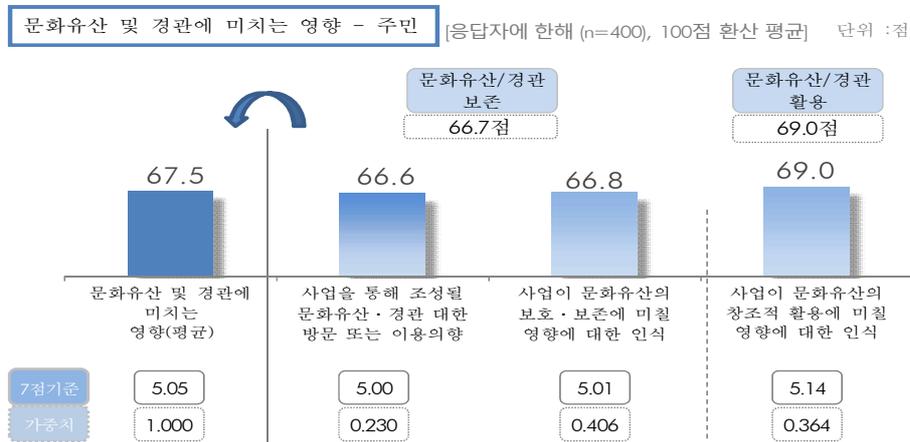
- 지역의 문화유산은 물론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원 등 부족한 옥외 녹지공간 및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옥외 소규모 거점 조성과 이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마을의 중요 자원인 비석을 단순히 소비되는 문화자원이 아닌 계승되고 확산되는 자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인 비석자원을 마을의 고유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설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재맥락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의 테라스 경관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미니주택 모델을 실험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인구유입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주거환경과 정주성을 연결시킨 좋은 계획으로 파악되지만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맥락을 미니주택 설계 및 시공에 실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임
- 역사문화자원을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마을의 역사적 특성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지만 주민과 탐방객 간의 동선 문제 등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바 향후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주민은 본 사업의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67.5점(7점 기준 5.05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사업을 통해 조성될 문화유산 및 경관에 대한 방문 또는 이용의향’ (66.6점) 및 ‘사업이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66.8점) 등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사업이 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69.0점) 등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하였음
- 사업공감도가 높은 주민과 문화시설 방문경험이 있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2-1]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현황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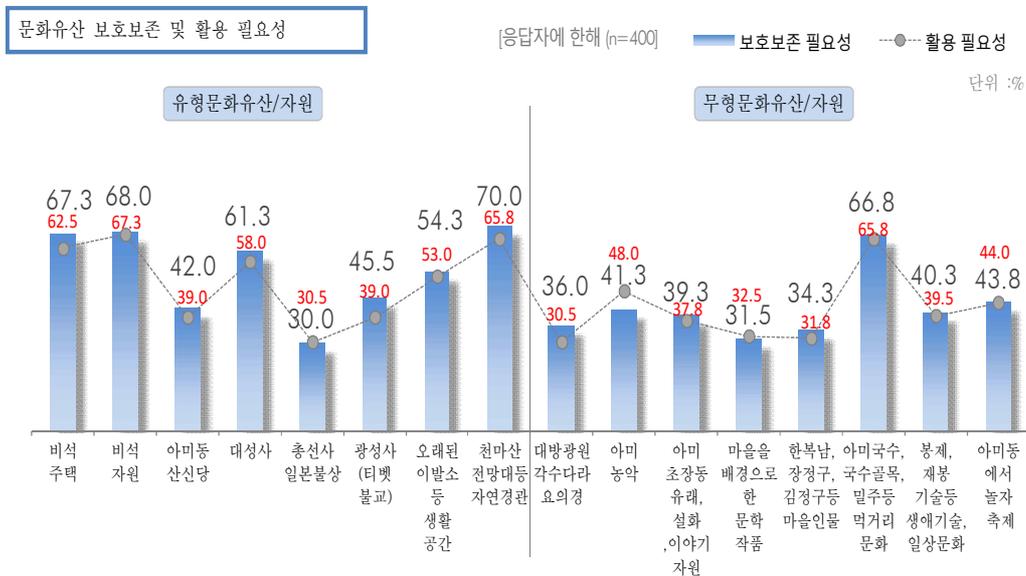
- 정책 관계자 (주민) 조사 결과는 지역(동), 권역, 성별, 연령, 현 주소지 이전 주소 등 계층간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1년간 문화교육경험이 있는 주민일수록 영향지수가 높고(+5.2점), 마을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주민일수록 영향지수가 높게 나타남(+5.8점)

〈표 3-2-2〉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주민	사업을 통해 조성될 문화유산·경관에 대한 방문 또는 이용의향	사업이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사업이 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합계		(400)	67.5	66.6	66.8	69.0
지역(동)	아미동	(248)	67.9	67.3	67.0	69.4
	초장동	(152)	66.9	65.4	66.4	68.4
통계검증 (t)			n.s	n.s	n.s	n.s
권역	1중점구역	(300)	67.5	66.7	66.7	69.0
	2/3중점구역	(100)	67.6	66.3	67.0	69.0
통계검증 (t)			n.s	n.s	n.s	n.s
성별	남성	(200)	67.7	66.2	67.3	69.2
	여성	(200)	67.4	67.0	66.3	68.8
통계검증 (t)			n.s	n.s	n.s	n.s
연령	10/20대	(61)	65.0	63.7	65.0	65.8
	30/40대	(99)	68.3	68.4	66.2	70.5
	50/60대	(160)	67.6	66.4	66.9	69.2
	70대 이상	(80)	68.5	67.1	68.8	69.2
통계검증 (F)			n.s	n.s	n.s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6.6	66.2	65.7	67.8
	기타지역(합)	(204)	68.5	66.9	67.8	70.2
통계검증 (t)			-2.035*	n.s	n.s	-2.292*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72.8	74.6	69.2	75.8
	경험없음	(360)	67.0	65.7	66.5	68.2
통계검증 (t)			3.881***	4.129***	n.s	4.413***
마을 이미지	부정적	(66)	63.2	61.1	62.4	65.4
	긍정적	(334)	68.4	67.7	67.7	69.7
통계검증 (t)			-3.473**	-3.494**	-2.783**	-3.059**

- [그림 3-2-2]를 보면 주민들의 마을의 유·무형 문화유산 및 자원에 관한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는데 이는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고 최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자원이 발굴되어 알려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사 대상자 주민의 77.0%가 비석주택을, 70.5%가 비석자원을 인지하고 있어 마을의 형성배경으로서 비석 자원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아미농악의 인지도는 34.0%에 그쳤음
- 주민들은 마을의 유·무형 문화유산 및 자원에 관하여 대체로 고르게 보호 및 보존, 더 나아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하는 비석주택과 비석자원에 관한 보호·보존 및 활용 필요성이 60%이상으로 나타났음



[그림 3-2-2] 문화유산 보호·보존 및 활용 필요성

- 한편 아래 <표 3-2-3>에서처럼 비석주택과 비석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활용에 관한 의견에서 아미동, 1중점구역과 초장동, 2/3중점구역간의 입장차이가 나타났는바, 향후 마을의 형성배경에 관한 촘촘한 아카이브를 통해 상호간 입장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필요해보임

<표 3-2-3> 문화유산 보호·보존 및 활용 필요성

구분	(사례수)	보호·보존 필요성		활용 필요성	
		비석주택	비석자원	비석주택	비석자원
합계	(400)	67.3%	68.0%	62.5%	67.3%
지역(동)	아미동	75.4%	75.0%	71.4%	73.4%
	초장동	53.9%	56.6%	48.0%	57.2%
권역	1중점구역	72.7%	72.3%	69.3%	73.7%
	2/3중점구역	51.0%	55.0%	42.0%	48.0%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비석’을 해석하는 관점 및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여부

- 비석마을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비석이 일본인 공동묘지로서 식민통치 기간 동안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마을 정체성을 대표하여 쓰는 것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이 탄생한 배경이 되는 비석에 대한 현황조사는 꼭 필요함
-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본 사업을 망자에 대한 화해, 치유를 위해서라도 비석을 정비해서 추모공간을 만들 당위성이 충분하며, 특히 시대적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추진의지를 보임
 -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고 마을의 역사 배경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비석 자원을 일본인이라고 하여 홀대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어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진행코자 함
 - 더 나아가 부산에서 추진 중인 ‘유네스코 피난도시(1차 신청)’에 아미·초장동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함
- 주민 FGI에서는 ‘지금 우리/우리 마을을 만드신 분들이다!’ 라는 긍정적 개념으로 재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마을 이미지 개선 효과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보임

□ 기존 민속학 연구, 지정문화재 관련 문헌연구 반영 또는 자원조사 여부

- 전반적으로 비석, 상석 등 전반적인 문헌조사 또는 자원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의 반영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산대 등에서 지역학 연구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나 별도로 비석의 숫자 등을 조사하는 과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지역 주민의 구술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르신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구술 작업 및 아카이브 작업을 센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 공모전을 통해 오래된 물건을 모으고자 함. 구술사 작업은 일차적으로 지역 대학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그 후에 빠진 내용 부분을 사무국장 등이 진행하고 있음
- 추모공간 조성을 위한 논리, 근거로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자원조사는 상기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치유, 화해, 평화라는 상위 가치로 사업의 당위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지역적 특성 및 맥락을 고려한 건축 및 경관 계획 여부

- 마을의 다른 가옥과 비슷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주요 건축물을 설계, 시공할 예정이고, 벽체, 지붕, 재료, 색깔 등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둔 계획은 아직은 없었음
 -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지향점이 주거환경 개선 등 기능적인 점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마을원형과의 조응성 등은 향후 고민할 점이라는 의견
-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테마가로화 조성 사업, 비석주택 사업 등을 추진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료는 현재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어서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 중임

□ 주택 관련 사업 추진시 조사 및 유형화 작업

- 집수리 사업, 미니주택, 복덕방 사업 등이 주택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시 전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30개 정도 아미·초장동 주택 현황 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함
- 집수리 사업의 경우, 아마추어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하여 실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미니주택 사업의 경우, 부산(산복도로)이라는 특성상 모듈이라는 유형화 작업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가구 기초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면밀한 DB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것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함. 단, 표준화된 모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현장에 맞춘 구조로 설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음. ‘협소주택’ 관점에서 필지 크기, 합필 등에 따른 유형화는 아직 없음.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경사지 주택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은 아니었음.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축을 원하는 분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유형화 작업을 위한 별도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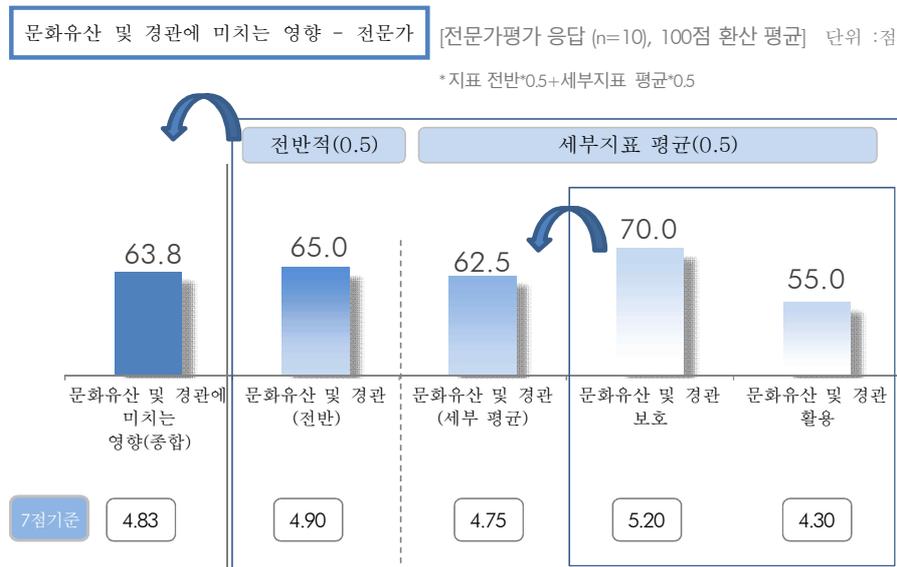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인식 및 활용 계획

- 아미농악이 이 지역에 유일한 지정문화재(무형)인데 이를 단순한 전수가 아닌 행복마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 농악을 연습하고 공연하거나 아미초등학교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생 활동 등 확장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복남, 장정구 같은 지역 출신 인물의 스토리를 활용할 의향은 있으나 사업 계획에는 없음. 다만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이러한 인물을 부각할 수는 없지만 생가나 레코드사가 있던 자리 등을 스토리로 반영할 예정임.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 지적이 있었고 아미동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잘 되신 분들을 멘토로 해서 초청하거나 테마화하는 것 고민 중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인식과 문화적 활용 계획이 있어 지역 문화유산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공간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 피난생활박물관 등을 조성시 마을 자원 아카이빙 결과와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계획과 주민 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계획, 단순 탐방이 아니고 아카이빙 작업 결과로서 구술, 기록물 등을 배치하여 연계할 계획 및 생활박물관 문을 열면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 등도 고민하고 있음
 - 마을 청소년이 직접 할아버지/할머니를 취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화도 진행하고 있음
 - 쌈지마당은 기본적으로 ‘우리동네 쌈지마당 소위원회’ 와 도시재생대학 주민커뮤니티 디자인에서 텃밭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여 공간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 본 사업이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63.8점(7점 기준 4.83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함. 세부 지표별로는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 에 대해서는 70.0점(7점 기준 5.20점)으로 평가하였고,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 에 대해서는 55.0점(7점 기준 4.30점)으로 보호와 보존의 차원에서 활용의 차원으로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그림 3-2-3]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 사업지 마을의 통시적 역사와 문화유산을 고려한 사업

- 도시재생 사업에서 놓치기 쉬운 마을 역사와 문화적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아미·초장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의 고유한 유·무형 자산을 보존하고 물리적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경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계획으로 문화유산 및 경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아미마을 내 비석군을 존치하면서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전반적으로 해당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계획 상에 나타남

□ 마을의 고유성을 공간과 장소에 투영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

- 아미초장 마을의 상징이 ‘비석’ 인데, 현재 프로그램 상으로는 비석에 대한 강조가 약한 상황임(추모공간 조성 이외에는 없어 보임). 창조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집수리 시에 디자인 측면에서 비석을 드러내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집수리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계획상으로는 마을 전체의 경관(가옥형태와 구조)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마을의 고유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임.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하는 작업(집수리 사업, 미니주택 등)이므로 디자인에도 지역적 특성 고려 필요함. 디자인적 심미적 효과 뿐만 아니라 일조, 채광, 통풍 측면에서 집수리에서 효과가 있음
 - 한 집을 혈면 주변에 4~5집은 위 일조, 채광, 통풍 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음

□ 문화유산 및 경관의 창조적 활용 계획은 다소 미흡

- 다만, 보호/보존을 넘어 문화유산이나 경관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음. 문화유산은 지역을 특색있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지역 내 문화유산의 일부를 활용한 계획이 아닌, 마을 공간 전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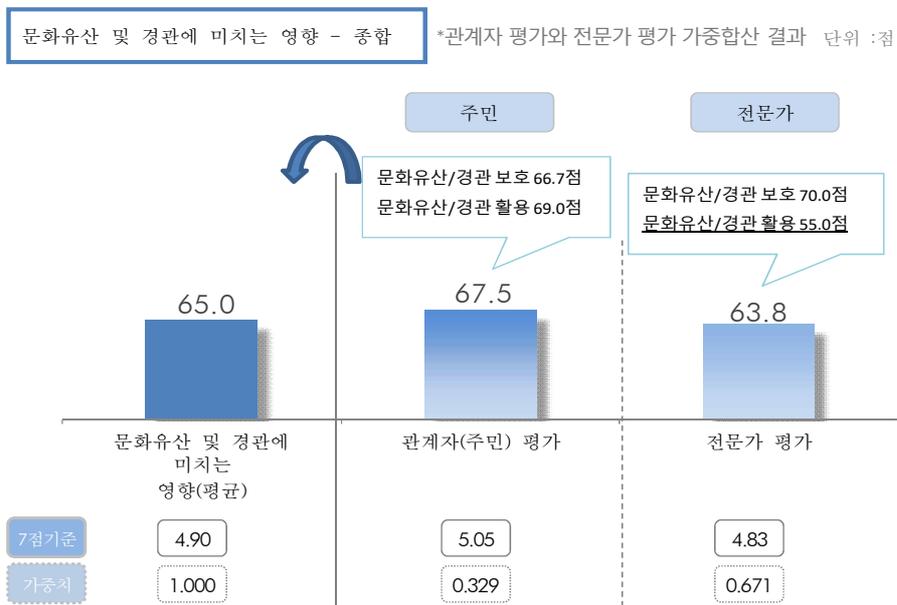
□ 공간 조성 이후 운영 프로그램 등 계획은 보완이 필요

- 쌈지마당의 경우 지역 콘셉트 해석과 적용여부, 공간 패턴분석과 일상적 만남 증진 계획 등이 있는 지에 따라 공동체,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문화적 이벤트, 커뮤니티디자인 워크숍, 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등 과정 프로그램을 거쳐, 조성 이후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해야함

5)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종합

□ 평가 결과 종합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음. 단, 전문가의 경우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에 대해 55.0점으로 상대적으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그림 3-2-4]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지수

□ 평가 주체별 평가 내용 요약

- 주민 평가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의 문화유산 및 경관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활용하여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문화 공간이 생겨날 경우 방문 및 이용의향도 높았음
- 전문가 평가에서는 마을의 고유한 통시적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사업 계획이며 이러한 문화적 역사성을 사업 추진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긍정적이거나 이를 장소에 투영하거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공간조성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활용 계획은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6)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제고 방안

□ 학술적 고증 및 심층적 조사/아카이브 구축 필요

- 비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본 조사 수준을 넘어 특징적인 문화유산 및 자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학술적인 고증과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자원들의 집약화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과 재평가 작업, 피난문화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주민들간의 이질적인 의견들, 일제잔재, 삶의 공간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피난도시 부산의 상징 중 한 곳으로서 사업지는 경사지 주거형태, 비석 위 임시주거의 이야기 등 상징성을 가지기에 충분한데, 이러한 상징성을 지금의 비석이라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보편적이고 상위의 가치로 승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를테면 ‘평화’, ‘화해’, ‘치유’ 등의 가치, 키워드를 내세워 주민, 방문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일본인의 잔재 문화라는 주민내부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방식이 필요
 - 문화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비석 문화 마을의 고유한 스토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비석자원 활용가이드’ 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좀 더 좋은 문화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다양한 연구자,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지역유산 및 자원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활용 시도가 가능함

□ 집수리사업, 공간 조성시 업사이클링 관점 필요

- 집수리 사업을 할 때, 건축디테일 등에 대한 기록화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대상 주택에 거주했던 주민의 흔적을 아카이브형태(담벼락에 기록하는 방식 등)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마을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옥에 대해 전체 경관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음. 빨래터나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디자인에도 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창작 스페이스를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가옥(2, 3개)을 업사이클링(upcycling) 함으로써 기존 문화경관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에서 발굴된 옛 사진, 옛 물건 등을 벽면이나 담벼락, 거점 공간에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는 등의 접근방식을 통해 장소성을 공간에 체현할 수 있음

□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방안

- 도레도레코드사 옛 공간에 한복남이 제작했던 음반들을 수집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공간과 카페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지역 명소로 구축하거나, 활성화하려는 가로변에 국수집을 오픈. 취약계층의 식사와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마을식당으로 운영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을 콘텐츠화하여 고유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주민 참여형 휴먼콘텐츠 사업 필요

- 주민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자산들을 스스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발견하기 위한 휴먼콘텐츠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주민들의 합의와 일체감을 통해 마을을 보존하고 공동 발전을 꾀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조사연구와 수복형 건축 방식이 매우 유의미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인 등의 아웃소싱을 통해 다양한 자극과 아이디어가 유입되는 것도 바람직함
-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관광콘텐츠형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트피케이션 등 주민의 일상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 문헌검토 내용

- 아미초장동에는 총 37개(아미동 21개, 초장동 16개)의 주민조직에 574명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본격적인 도시 재생 관련 주민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 아미초장 운영위원회가 2015년 4월 발족되었으며 2016년 2월에는 부구청장, 중간지원조직 총괄코디네이터, 주민협의체 대표의 3인 공동의장체제인 아미초장 도시재생 운영회 (17명 위원)에서 주요 내용을 협의/결의함
- 주민협의체는 아미동에 아미맘스, 아미골협동조합, 비석마을협의회, 아미농악마을 4개 단체, 초장동에 (주)행복마을, 늘품협동조합, 행복마을추진협의회 3개로 구성됨

〈표 3-2-4〉 아미·초장동 주민조직 현황

구분	내용	개소	회원(명)
아미동	건강마을만들기주민협의체, 마을공동재산관리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방위협의회, 비석마을주민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21	364
초장동	꿈터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늘푸른행복돋움이회, 늘품협동조합, 바르게살기운동초장동위원회, 새마을문고회, 새마을지도자초장동협의회 등	16	210
합계		37	574

- 한편 본 사업에서는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 속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3-2-5〉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체 연관 사업

관련 사업	내용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사업 (총 4개소)	공동빨래터, 소셜다이닝, 공동부엌, 소규모 목욕탕 등 열악한 단독주택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에 참여하여 일상적 커뮤니티 유대관계를 증진
아미초장 하자마을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 유휴공간을 활용, 청소년 위한 영상실, 세미나실, 실내무대, 야외농구장 마을학교 - 어린이/청소년 문화환경 구축 마을창작공방 - 다양한 연령층 참여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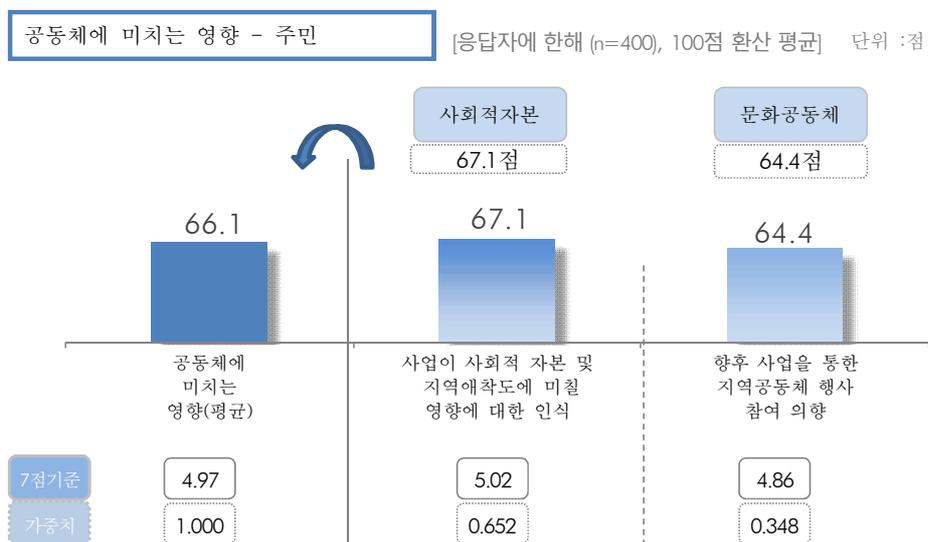
□ 현황분석 결과

- 경제, 사회적 목적으로 다양한 주민 조직이 형성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다수가 참여하거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에서 금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일상적 만남, 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함
- 특히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사업은 사업지 마을의 공간적, 물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커뮤니티 단위에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적 만남을 증척시켜간다는 좋은 기획으로 보임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주민은 본 사업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66.1점(7점 기준 4.97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사업이 사회적 자본 및 지역애착도에 미칠 영향’ (67.1점) 및 문화공동체 측면에서 ‘향후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의향’ (64.4점) 등에 대해 비슷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업공감도가 높거나 평소 마을 내에서 교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수가 높았음. 일상적 만남의 시간을 통해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잘 알림으로써 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관여도와 호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3-2-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정책 관계자 (주민) 조사 결과는 지역(동), 권역, 성별, 연령, 현 주소지 이전 주소 등 차이로 공동체 영향지수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1년간 문화교육경험이 있는 주민의 영향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6.3점)

〈표 3-2-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주민	사업이 사회적자본 및 지역애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향후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의향	
		평균	평균	평균	
합계	(400)	66.1	67.1	64.4	
지역(동)	아미동	(248)	66.8	67.6	65.2
	초장동	(152)	65.1	66.2	63.0
통계검증 (t)		n.s	n.s	n.s	
권역	1중점구역	(300)	66.2	67.1	64.4
	2/3중점구역	(100)	65.9	66.8	64.3
통계검증 (t)		n.s	n.s	n.s	
성별	남성	(200)	65.5	66.5	63.7
	여성	(200)	66.8	67.6	65.1
통계검증 (t)		n.s	n.s	n.s	
연령	10/20대	(61)	63.6	63.5	63.9
	30/40대	(99)	65.5	66.0	64.5
	50/60대	(160)	66.7	67.8	64.6
	70대 이상	(80)	67.8	69.7	64.2
통계검증 (F)		n.s	5.144**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5.0	65.8	63.4
	기타지역(합)	(204)	67.2	68.3	65.3
통계검증 (t)		-2.333*	-2.418*	n.s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71.8	71.2	72.9
	경험없음	(360)	65.5	66.6	63.4
통계검증 (t)		3.325**	2.337*	4.729***	
마을 내 평소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 수	0-5명 미만	(168)	63.9	65.0	61.8
	5-10명 미만	(126)	67.3	68.1	65.9
	10명 이상	(92)	67.5	68.3	65.9
통계검증 (F)		7.510***	5.301**	6.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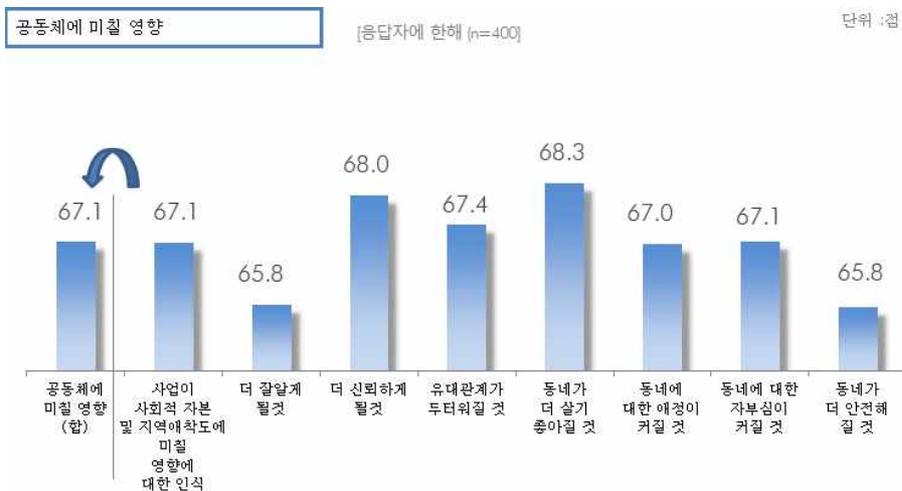
□ 현황조사 결과

- [그림 3-2-6]에서처럼 주민들은 대체로 공동체 평가 점수가 평균 64.8점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님. 특히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서 ‘동네에 대한 자부심’ 63.5점 및 치안/안정감으로서 ‘밤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낌’ 63.1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3-2-6]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체 평가

- 한편 사업을 통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 결과는 [그림 3-2-7]과 같이 기존 공동체 평가 64.8점에서 2.3점 높아진 67.1점으로 사업의 공동체 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크지 않은데 이는 사업의 성격을 물리적 환경 개선 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3-2-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체에 미칠 영향

□ 현황조사 결과

- 본 사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향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3-2-7>과 같이 대체로 4명 중 3명 정도가 참여할 의향을 보여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임

<표 3-2-7> 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향

[각 100.0% 중 비참여의향과 보통을 제외하고 참여의향만 표시함]

구분		(사례수)	도시재생 대학	아미동에서 놀자 축제	마을학교	마을창작 공방
합계		(400)	71.0%	79.5%	71.5%	75.5%
지역(동)	아미동	(248)	77.8%	83.1%	77.4%	78.6%
	초장동	(152)	59.9%	73.7%	61.8%	70.4%
권역	1중점구역	(300)	70.0%	79.3%	71.0%	73.3%
	2/3중점구역	(100)	74.0%	80.0%	73.0%	82.0%
성별	남성	(200)	71.0%	76.0%	74.5%	76.0%
	여성	(200)	71.0%	83.0%	68.5%	75.0%
연령	10/20대	(61)	73.8%	65.6%	75.4%	73.8%
	30/40대	(99)	71.7%	84.8%	70.7%	75.8%
	50/60대	(160)	70.0%	81.3%	71.9%	76.9%
	70대 이상	(80)	70.0%	80.0%	68.8%	73.8%

- 사업 대상지 마을 주민의 공동체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 ‘마을내 지인, 친구 등에 한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 수를 파악한 결과는 <표 3-2-8>과 같이 평균 6.4명으로 타 농촌마을(15명 내외)이나 도시마을(10명 내외) 비해서 약간 낮은 사회관계망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 만남을 통한 관계망 형성이 중요함⁵²⁾

<표 3-2-8> 마을 내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 수

[각 100.0% 중 비참여의향과 보통을 제외하고 참여의향만 표시함]

구분		(사례수)	평균 (명)	0명 (절대적 고독)	1-5명 미만	5-10명 미만	10-20 명 미만	20명 이상
합계		(400)	6.4	2.1%	41.8%	32.5%	17.5%	6.2%
지역(동)	아미동	(248)	6.6	2.5%	39.7%	33.5%	17.2%	7.1%
	초장동	(152)	6.2	1.3%	45.0%	30.9%	18.1%	4.7%
권역	1중점구역	(300)	6.9	.7%	40.6%	31.3%	20.5%	6.9%
	2/3중점구역	(100)	5.2	6.0%	45.0%	36.0%	9.0%	4.0%
성별	남성	(200)	6.1	3.6%	47.9%	25.0%	17.7%	5.7%
	여성	(200)	6.8	.5%	35.7%	39.8%	17.3%	6.6%
연령	10/20대	(61)	4.8	1.7%	61.7%	23.3%	10.0%	3.3%
	30/40대	(99)	5.4	4.3%	53.8%	24.7%	14.0%	3.2%
	50/60대	(160)	6.8	1.9%	32.5%	41.4%	17.8%	6.4%
	70대 이상	(80)	8.2	0.0%	30.8%	30.8%	26.9%	11.5%

52) 일반마을 평균 9.4명, 사업마을 평균 20.7명, 출처: 한국문화원연합회, 2016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성과평가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간 갈등 및 해결 방안

- 아미동의 경우 20개가 넘는 다양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으며, 예부터 토박이인 아랫마을 사람들과 윗마을 사람들(피난 이후에 몰려오신 분들)의 문화적 갈등이나 토박이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배타적인 생각도 있음
- 사업 초기라서 드러난 갈등은 많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아미동과 초장동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보이지 않는 알력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갈등이 터지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금씩 이해관계 등을 조정해나가려고 함. 이를 통해 사업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 갈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
- 주민들 스스로는 아미동과 초장동, 윗마을과 아랫마을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

□ 집수리 사업 수혜자 선정 등 문제

- 주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실습교육 과정으로 시행하고 향후 심화교육을 거쳐 저소득층 주택 및 공간(전입가구)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자 함
- 주민 FGI에서는 집수리 사업 추진시 시급히 집수리가 필요한 주택,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고 사업 주체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함

□ 탐방로 구축시 프라이버시 문제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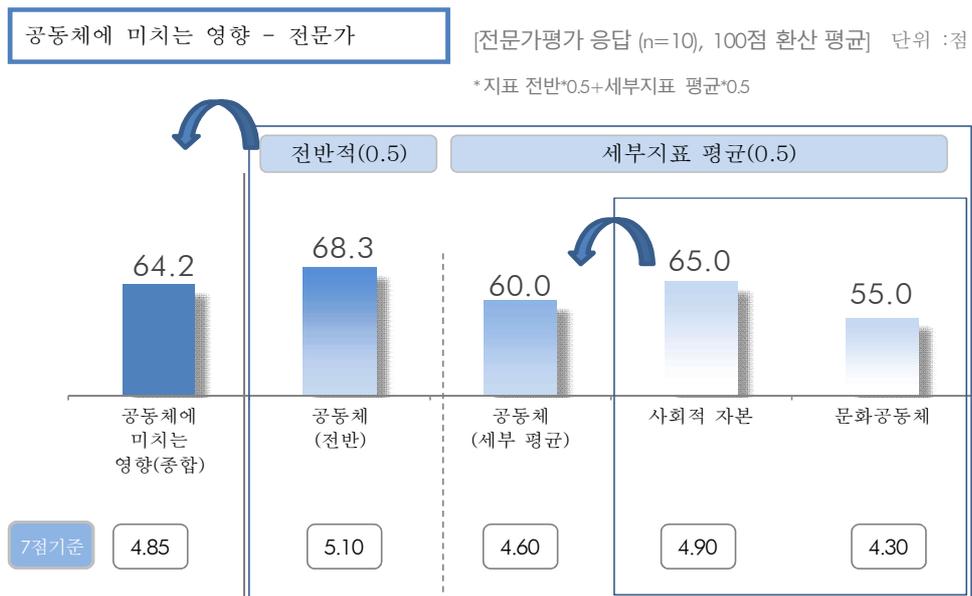
- 주거지 관광명소화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는 탐방로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일상공간과 탐방로가 겹치지 않도록 할 계획정도로 생각 중
- 탐방로에 대한 명확한 운영 방안,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은 다소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파악됨
- 주민들도 탐방로 코스에 있는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연령, 계층 통합형 자치 문화공동체 형성

- 기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발굴된 리더들이 자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어 주민 중심의 문화공동체 형성이 기대됨
- 청소년, 주부, 어르신 등 타겟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계획이 적절함. 다만 현재 문화활동은 공동체 속에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인 문화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적인 연령, 계층 통합형 문화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
- 주민들 스스로도 사업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 본 사업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64.2점(7점 기준 4.85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세부 지표별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65.0점(7점 기준 4.90점)으로 평가하였고, ‘문화공동체’에 대해서는 55.0점(7점 기준 4.30점)으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그림 3-2-8]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 소통의 장으로서 공유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

- 마을의 특성 상 도시에 비해 사회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임. 여기에 마을베란다 공동 이용장, 쌈지마당 등은 주민들 간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됨
- 다만 공유공간에 맞는 일상적 소통, 활동을 통한 주민간 공감을 일으키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공동체 형성 계획은 아직 없었음

□ 자치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

- 공동빨래터, 쌈지공원 등 개별사업적 협력이 아닌 주민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규칙과 운영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은 실질적 공동체의 역할로 안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실험적으로 주민 스스로 자치운영모델을 만들어보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
- 집수리 개선 사업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경우 공동체 내에서의 주민들 간의 신뢰나 교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음. 협력적 관계망 구축과 확장성에 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 단체, 시설,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내재적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은 좋으나 문화활동이 궁극적으로 자기 표현과 타자의 이해, 그에 기반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을 고려시 현재 활동들을 통해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지는 명확하지 않음
- 특히 지역의 다양한 문화 단체, 시설, 예술가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양성의 증진에 기여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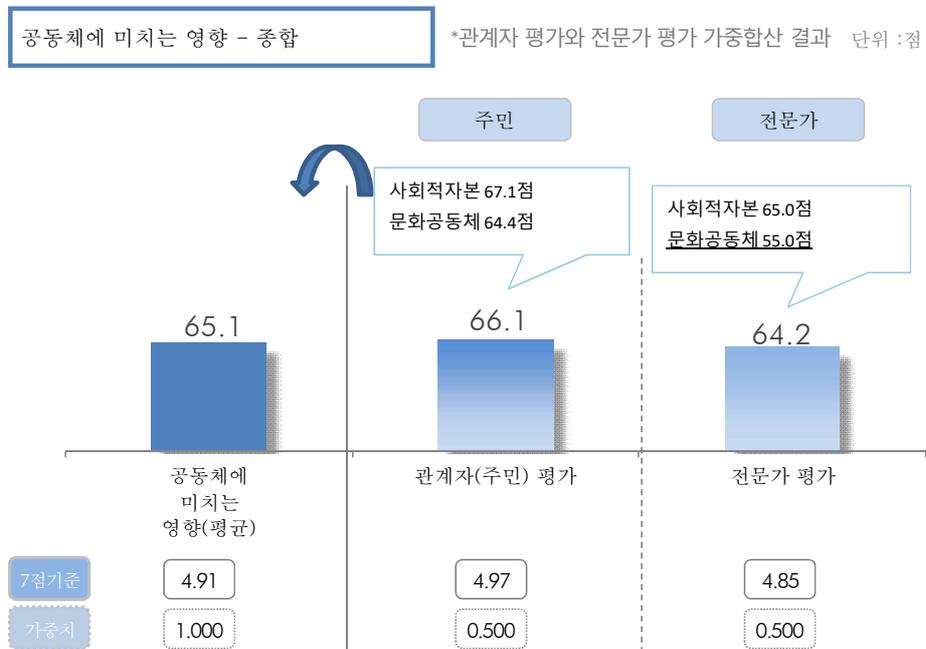
□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접근

- 사례분석 등의 결과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듯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공간을 배려하지 못하면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고 큰 교착에 빠질 수도 있음
- 실제 본 사업지는 주민 일상공간을 어느 정도 관광콘텐츠화 한다는 점이 주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구체적 접근이 없을 경우 공동체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종합

□ 평가 결과 종합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음. 단, 전문가의 경우 문화공동체에 대해 55.0점으로 상대적으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수혜적 사업에서의 주민 대화형 합의(컨센서스) 절차, 문화예술 단체/시설과의 협업구조 마련, 프라이버시 배려 계획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2-9]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수

□ 평가 주체별 평가 내용 요약

- 주민 평가에서는 문화활동이 다소 부족한 아미·초장 마을에 사업을 통해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고 함께 문화활동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전문가의 경우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질적인 문화공동체 형성까지 이어질지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문화단체, 시설, 예술가 참여와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제고 방안

- 집수리 사업 등 수혜자가 특정적인 사업에 대한 주민 대화형 합의(컨센서스) 절차가 필요
 - 집수리 사업에서 자기 집을 제외하고 가장 수리가 필요가 집을 주민들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하는 식의 의견 수렴 과정. 마을내부의 공동 합의나 규약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는 절차적 학습과정(procedural learning)을 통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협력적 공동체 문화 형성 및 공동체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주민 자치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형성과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좀 더 창의적인 전략과 프로세스가 필요함
 - 사업기간의 종료와 함께 ‘공동체 활동’ 도 종료가 되는 전국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반복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을 극복하 위하여 주민 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
 - 주민강사, 주민활동가/기획자 양성과 지원, 마을코디네이터, 문화기획자, 마을미디어 등

- 다양한 문화단체 등의 네트워크와 문화복지 관련 사업의 연계 필요
 -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내재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외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유입도 고려해볼 만함. 다만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부산대병원 등과의 MOU 추진 등
 -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동아리 조직 등이 미진한 현실에서 문화공동체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외부적 계기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 참여를 견인할 사업들의 보강이 필요함. 기존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들(통합문화이용권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생활문화동아리, 인문학동아리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일상의 삶,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사업 방향이 필요
 - 가옥구조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관광과 결합되는 사업에서 ‘주민 프라이버시 확보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절대적 환대’ 가 이루어지는 마을로의 접근이 필요함⁵³⁾

53) 개인과 공동체는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는 것과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 것 사이에는 본디 아무 모순도 없다. 개인에게 자리/장소를 마련해주고 그의 영토에 울타리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인 까닭이다. 뒤르켐이 지적했듯이,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사생활의 자유는 오히려 커진다.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2015) p 202 중 발췌>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 문헌검토 내용

- 아미·초장동은 여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취약 지역임
- 2016년 1월 기준 고령화율이 25.9%인 ‘초고령화 사회’ 로 부산시(14.6%) 및 서구(20.2%) 평균을 모두 상회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는데 독거노인이 1,330명으로 전체 세대 대비 17.7%(인구대비 8.9%)를 차지함. 기초생활수급자는 1,303명, 954세대로 전체 인구의 8.7%(전체 세대의 12.7%)에 해당함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도 68.5%로 부산시(73.9%)와 서구(71.2%)에 비해 낮음

〈표 3-3-1〉 아미동, 초장동 취약계층 인구 현황

구분	세대	전체세대 대비 비율	인구(명)	전체인구 대비 비율
전체인구 및 세대 *	7,495	-	14,921	-
취약계층				
** 독거노인	1,330	17.7%	1,330	8.9%
** 기초생활수급자	954	12.7%	1,303	8.7%

출처 : * 2016.0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6.01 아미동,초장동 주민센터 관내 자료

- 한편 본 사업에서는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있음

〈표 3-3-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연관 사업

관련 사업	내용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노후건축물(34.9%) 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및 주거환경 저하 등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수리교육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집수리 사업단의 자활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사업 (총 4개소)	공동빨래터, 소셜다이닝, 공동부엌, 소규모 목욕탕 등 열악한 단독주택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에 참여하여 일상적 커뮤니티 유대관계를 증진
아미초장 하자마을	마을창작공방 다양한 연령층 참여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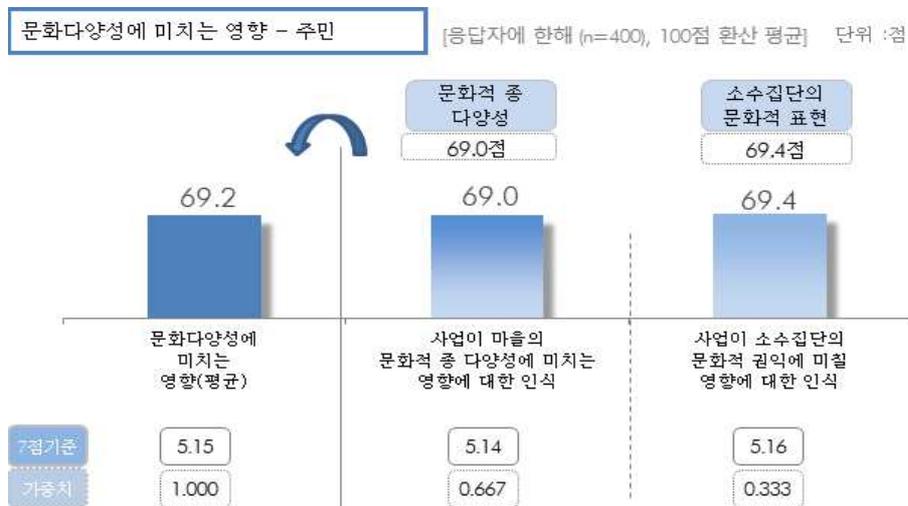
□ 현황분석 결과

- 마을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문제를 잘 반영한 사업이며 단순한 집수리교육을 지양하고 경수리에서 중수리로 기술력 제고에 기반한 실질적인 일자리 설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은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바람직함
- 집수리에는 기술적인 부문 뿐만 아니라 마을경관, 디자인 등의 종합적인 부문을 고려해야 하는데 계획상에는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음
- 마을 내 청소년, 노년 세대의 문화활동을 증진하는 점은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일용직 근로자, 남성 등도 주요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주민은 본 사업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69.2점(7점 기준 5.15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문화적 중 다양성 측면에서 ‘사업이 마을의 문화적 중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69.0점) 및 ‘사업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69.4점)에 대해 주민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사업공감도가 높거나, 평소 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주민일수록 상대적으로 문화다양성 영향지수가 높았음.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3-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관계자(주민) 설문조사

○ 정책 관계자 (주민) 조사 결과는 지역(동), 권역, 성별, 연령, 현 주소지 이전 주소 등 계층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1년간 문화교육경험이 있는 주민의 영향지수가 높고(+7.3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기개방적인 주민의 영향지수가 약간 높은 특성(+5.4점)을 보임

〈표 3-3-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주민	사업이 마을의 문화적 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사업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평균	평균	평균
합계		(400)	69.2	69.0	69.4
지역(동)	아미동	(248)	69.2	69.2	69.2
	초장동	(152)	69.2	68.9	69.7
		통계검증 (t)	n.s	n.s	n.s
권역	1중점구역	(300)	68.9	68.9	69.1
	2/3중점구역	(100)	69.8	69.5	70.3
		통계검증 (t)	n.s	n.s	n.s
성별	남성	(200)	69.0	68.8	69.4
	여성	(200)	69.3	69.3	69.3
		통계검증 (t)	n.s	n.s	n.s
연령	10/20대	(61)	67.5	67.2	68.0
	30/40대	(99)	69.7	69.7	69.7
	50/60대	(160)	69.2	69.1	69.6
	70대 이상	(80)	69.6	69.6	69.6
		통계검증 (F)	n.s	n.s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8.6	68.5	68.6
	기타지역(합)	(204)	69.7	69.5	70.1
		통계검증 (t)	n.s	n.s	n.s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75.7	75.8	75.4
	경험없음	(360)	68.4	68.3	68.7
		통계검증 (t)	4.652***	4.346***	3.929***
다양한 문화 자기개방 정도	폐쇄적(합)	(49)	64.4	63.9	65.3
	개방적(합)	(351)	69.8	69.8	69.9
		통계검증 (t)	-3.755***	-3.630***	-2.941**

□ 현황조사 결과

- 사업지 대상 주민들의 문화의 가치 인식은 아래 <표 3-3-4>와 같이 ‘전통문화’, ‘상업(대중)문화’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순수예술’, ‘대안문화/독립문화/인디문화’ 등에 관하여는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생각하고 있음

<표 3-3-4> 아미·초장동 주민의 문화 가치 인식

[각 100.0% 중 중요하지않음과 보통을 제외하고 중요함만 표시함]

구분	(사례수)	순수 예술	대안문화/ 독립문화/ 인디문화	하위 문화	전통 문화	상업 (대중) 문화	
합계	(400)	64.0%	61.8%	71.5%	76.8%	74.5%	
지역(동)	아미동	(248)	64.9%	61.7%	74.6%	81.5%	79.0%
	초장동	(152)	62.5%	61.8%	66.4%	69.1%	67.1%
권역	1중점구역	(300)	60.7%	57.3%	68.3%	75.7%	71.3%
	2/3중점구역	(100)	74.0%	75.0%	81.0%	80.0%	84.0%
성별	남성	(200)	63.5%	61.5%	71.0%	76.0%	77.0%
	여성	(200)	64.5%	62.0%	72.0%	77.5%	72.0%
연령	10/20대	(61)	75.4%	62.3%	73.8%	68.9%	78.7%
	30/40대	(99)	69.7%	68.7%	71.7%	77.8%	78.8%
	50/60대	(160)	60.6%	58.8%	68.8%	75.0%	72.5%
	70대 이상	(80)	55.0%	58.8%	75.0%	85.0%	70.0%

- 사업지 대상 주민들은 <표 3-3-5>처럼 대체로 소수집단에 대하여 포용정도가 80.0% 내외로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에 대하여 개방적인 편임

<표 3-3-5> 아미·초장동 주민의 소수집단 포용정도

[각 100.0% 중 동의하지않음과 보통을 제외하고 동의함만 표시함]

구분	(사례수)	국적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	성 소수자	세대가 다른 사람	
합계	(400)	82.5%	79.0%	80.8%	82.5%	37.5%	82.3%	
지역(동)	아미동	(248)	81.5%	76.2%	79.0%	81.9%	35.9%	77.4%
	초장동	(152)	84.2%	83.6%	83.6%	83.6%	40.1%	90.1%
권역	1중점구역	(300)	84.3%	78.7%	82.0%	82.7%	35.7%	81.7%
	2/3중점구역	(100)	77.0%	80.0%	77.0%	82.0%	43.0%	84.0%
성별	남성	(200)	82.0%	80.5%	79.0%	82.5%	35.0%	84.0%
	여성	(200)	83.0%	77.5%	82.5%	82.5%	40.0%	80.5%
연령	10/20대	(61)	78.7%	77.0%	77.0%	80.3%	29.5%	83.6%
	30/40대	(99)	83.8%	78.8%	80.8%	85.9%	40.4%	83.8%
	50/60대	(160)	83.8%	81.9%	82.5%	80.0%	38.1%	81.9%
	70대 이상	(80)	81.3%	75.0%	80.0%	85.0%	38.8%	80.0%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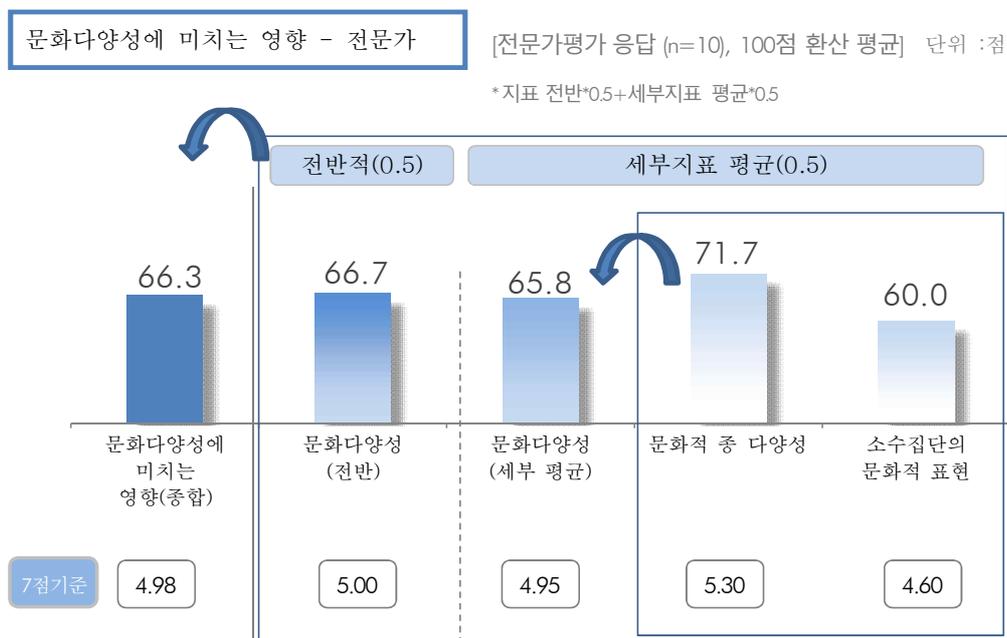
- **아미·초장동만의 고유한 마을 문화 증진 계획 및 문화적 다양성 계획**
 - 특정 단체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그 외 다양한 문화적 경험 및 전문성을 마을로 유입할 계획 및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 향후 문화단체, 예술가/단체 발굴을 거쳐 협업구조를 마련하고자 하고 현재도 그러한 연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마을 내 소수집단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 독려 계획**
 - 마을 내 상대적으로 많은 노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참여 프로그램이나 독려 계획이 별도로 있지는 않음
 - 한마음행복센터는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20여분의 다문화 가정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을 마을 축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활성화 계획 구상하고 있음
 - 오히려 마을 내 40~60대 남성 중에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밥보다는 술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도 많고, 화투를 많이 치는 할머니들도 많음. 마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소수 집단이고 지속적으로 사업 과정이나 축제 등에서 나오시도록 하고자 함
 - 주민들은 일용직 남성,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산발적, 개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업 과정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되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들이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에 생기는 문화공간 등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이라고 함

- **마을 문화공간의 전용(專用)**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공간 이용객을 청소년으로 단정하고 있음. 이 경우 마을내 청소년 인구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을 문화공간별로 이용객을 연령대별로 구별하고 있음
 - 주민들은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되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쉬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냄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 본 사업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66.3점(7점 기준 4.98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세부 지표별로는 ‘문화적 종 다양성’에 대해서는 71.7점(7점 기준 5.30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해서는 60.0점(7점 기준 4.60점)으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그림 3-3-2]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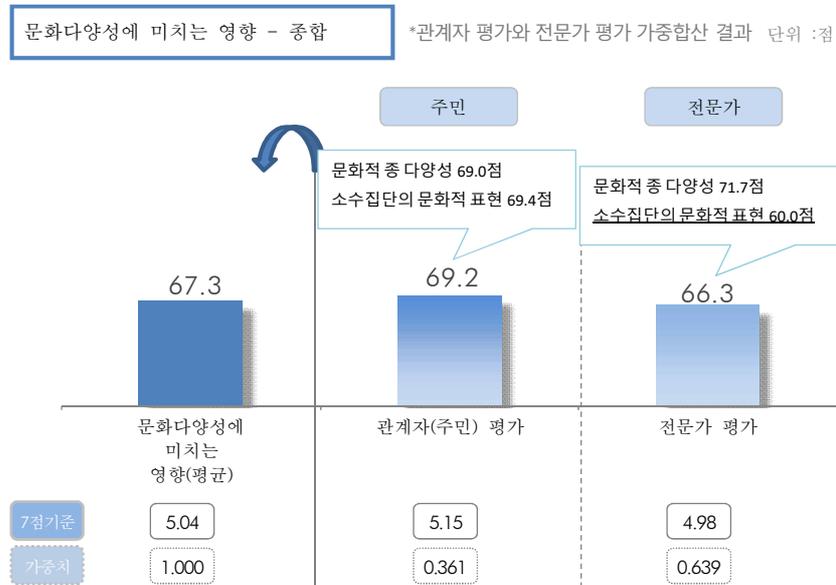
- 아미·초장동만의 고유한 역사성과 경관을 극대화하는 계획이 긍정적
 - 피난마을이라는 마을 정체성을 도시재생 사업에 잘 포함시키고 있어 도시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
 - 마을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경관 등이 고유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독특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미·초장동만의 지역문화, 도시민속, 경계 문화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문화취약계층으로서 주민의 문화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주거여건이나 접근성의 열악함을 넘어서고자 주민주체의 학습 모임으로 시작된 아미맘스와 같은 주부 공동체가 본 사업을 만나면서 자생성을 확보하고 지역내부의 취약한 지점을 발

- 견하고 개선하고자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아울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방, 복지관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은 향후 문화적 가치를 신장하는 역할이 되리라 기대됨
 -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미맘스를 비롯하여 청소년 및 노년세대의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는 계획은 매우 긍정적이며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마을의 공동화 현상 속에서 노인을 주체로, 마을의 자각적 주인으로 형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작업으로 보여짐
 - 아미·초장동의 많은 노년층 인구에 대응하여 노년층에 대한 마을 창작공방은 동아리 활동정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일거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더 나아가 청소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 배치는 마을의 미래와 결부된 문제로 적합한 방향임
- 참여주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은 부족
- 사업 참여주체들의 특성을 살려 내용적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계획은 부족함. 마을 내 소수집단이 어떤 집단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된 마을에서 노인이 소수집단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노년층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소수집단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여성,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자마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그 외의 소수계층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졌으면 함
 - 현재 사업 계획은 본질적 의미에서 소수집단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장려하는 데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이용자의 제한 등 내부 폐쇄성은 지양
- 지역 내부의 결속과 자생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내부로만 결속되고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듯한 독립구조는 또 다른 고립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됨
 - 소수집단 층으로 설정한 청소년의 경우, 창작스페이스가 청소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 청소년과 다른 세대가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문화공간의 전용(專用)은 또 다른 이용객을 제약하고 마을 내 다양한 구성원간의 문화적 표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으로 역기능(逆機能)할 수 있음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

□ 평가 결과 종합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음. 단, 전문가의 경우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해 60.0점으로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문화를 매개로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가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하는 사업 운영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3-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지수

□ 평가 주체별 평가 내용 요약

- 주민 평가는 본 사업이 아미·초장동 지역의 문화적 총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도 약간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 전문가들은 약간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 아미·초장동 만의 독특한 도시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총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지만, 마을 내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활동을 장려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6)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제고 방안

- 예술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마을 문화적 맥락의 재해석과 어메니티 극대화
 - 계획 단계에서 발굴되지 않은 지역의 문화 단체, 예술가, 창작자 등의 발굴과 협업 과정 설계가 필요함
 - 예술가/단체가 마을에 대해 충분히 읽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올 시 마을의 이미지와 어메니티를 극대화하고 문화적 중 다양성 제고에 도움이 됨. 다만,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관광콘텐츠 방식은 지양하고 마을의 고유성, 장소성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마을 내 소수집단에 관한 발굴 및 참여 장치 마련
 - 마을 특성상 일용직에 의존하는 40~50대 남성들이 소수집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노년층에 가장 관심사인 건강, 의료서비스 등과 생활문화적 측면을 결합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고민도 필요. 일용직노무자, 남성 등 마을 내에서도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집수리사업단, 우리동네 복덕방사업과 결합하기 위한 결합적 문화적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좋을 것임
 - 예를 들면 1950년대 건축디테일을 표방하는 모던공방(문고리, 창살, 격자무늬 틀) 운영을 통해 향후 자재를 만들어 일자리카지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활동의 다양성 확보
 - 작은 규모의 다양한 마을그룹이 자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기획부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각종 커뮤니티 공간에 점진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문화적 표현이 배려되고 존중되었으면 함

- 주민 계층간의 관계망의 확산
 -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지역 내에서 고립되기 쉬운 계층들의 참여와 관계망이 구축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판단됨. 다만 현재의 관계망의 확산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행계획이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 문헌검토 내용

- 아미·초장동은 인구 유출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산업·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건축물노후화 등 정주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 1975년 49,571명의 인구정점이던 아미초장동은 2010년 16,598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1980년과 비교시 64.13%의 인구감소율을 보였음. 산업이탈도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2004년 기준 871개소에서 2013년 674개소로 22.6%의 산업체가 폐업 또는 유출되었음
- 한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2012년 실시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아미농악마을: 제품 생산 및 식음료, 먹거리 판매) 등이 진행되면서 문화를 매개로 마을만들기 차원의 노력이 있어왔음. 행복주택 사업('14~'18)이 아미동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어 젊은 계층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음
- 한편 본 사업에서는 <표 3-3-6>처럼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인적 창조성을 제고해가고자 함

<표 3-3-6>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창조성 연관 사업

관련 사업	내용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노후건축물(34.9%) 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및 주거환경 저하 등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수리교육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집수리 사업단의 자활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유휴공간 750개소(16)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자-수요자간 연계시스템 마련 및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의 매력있는 공간 발굴 및 활용가치 증대/인구유입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 사업	방문객 체험시설 대응 및 비석문화 마을 고유의 문화관광 제공을 통한 지역 공유경제환경 조성
근린상권 활력 사업	고지대 약국 0개,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감천문화마을에서의 관광객 유입에 대응하는 근린상점 조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화

□ 현황분석 결과

-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은 750여개소의 유휴공간으로 인해 지역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핵심사업으로 파악됨. 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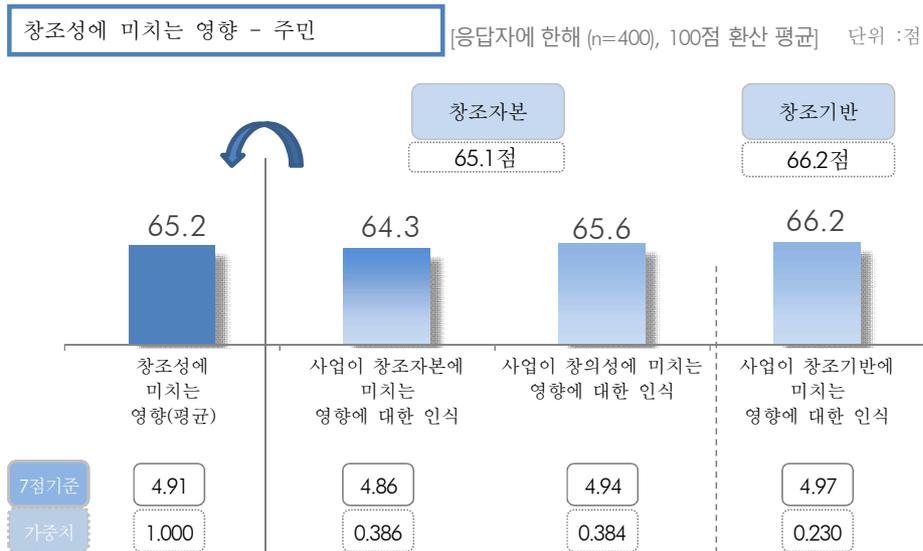
단순한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주택사업으로는 과급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둘을 연결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이슈 파이팅 등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 파악 필요

- 근린상권 활력 사업은 근린생활 환경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점, 식당 등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계획임. 단, 자칫 외부 중심으로 관광객 대응 시설로 조성될 경우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필품, 식당 등이 배제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술교육 못지않게 사업 모델 수립 및 브랜딩 과정도 중요함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주민은 본 사업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65.2점(7점 기준 4.91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함. 창조자본 측면에서 ‘사업이 창조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64.3점) 및 ‘사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65.6점)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보였고, 창조기반 측면에서도 ‘사업이 창조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66.2점)에 대해 약간 영향있음으로 평가함
- 지역/성/연령 등 계층별 차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사업공감도가 높거나 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주민의 창조성 영향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3-4]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정책 관계자 (주민) 조사 결과는 지역(동), 권역, 성별, 연령, 현 주소지 이전 주소 등 계층간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1년간 문화교육경험이 있는 주민의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지수가 높고(+5.6점), 마을 협동조합 등에 참여 의향이 있는 주민의 창조성 영향지수가 약간 높은 특성(+4.6점)을 보임

〈표 3-3-7〉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주민	사업이 창조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사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사업이 창조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합계		(400)	65.2	64.3	65.6	66.2
지역(동)	아미동	(248)	65.3	64.7	65.3	66.5
	초장동	(152)	65.1	63.7	66.1	65.7
		통계검증 (t)	n.s	n.s	n.s	n.s
권역	1중점구역	(300)	64.9	63.7	65.2	66.2
	2/3중점구역	(100)	66.4	66.0	66.8	66.2
		통계검증 (t)	n.s	n.s	n.s	n.s
성별	남성	(200)	64.1	63.1	64.8	64.6
	여성	(200)	66.4	65.5	66.4	67.8
		통계검증 (t)	-2.299*	n.s	n.s	-2.909**
연령	10/20대	(61)	62.2	60.7	63.7	62.6
	30/40대	(99)	65.0	63.5	65.3	67.0
	50/60대	(160)	66.2	65.8	66.3	66.8
	70대 이상	(80)	65.9	65.0	66.3	66.9
		통계검증 (F)	n.s	2.792*	n.s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3.9	62.8	64.5	64.8
	기타지역(합)	(204)	66.5	65.8	66.7	67.6
		통계검증 (t)	-2.633**	-2.417*	-1.964*	-2.471*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70.3	67.9	71.7	72.1
	경험없음	(360)	64.7	63.9	65.0	65.6
		통계검증 (t)	3.423**	n.s	3.769***	3.522***
마을 협동조합 등 설립시 조합원 참여의향	비참여	(161)	62.5	62.1	62.3	63.7
	참여	(239)	67.1	65.8	67.9	67.9
		통계검증 (t)	-4.438***	-2.827**	-5.062***	-3.763***

□ 현황조사 결과

- <표 3-3-8>에 나타나듯이 사업지 대상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인지에 대해 76.5%가 살기좋은 곳이라고 응답하였고 떠나고 싶다는 응답도 7.8% 있었음

<표 3-3-8> 아미·초장동 주민의 정주의향

구분		(사례수)	떠나고싶음(합)	보통	살기좋음(합)
합계		(400)	7.8%	15.8%	76.5%
지역(동)	아미동	(248)	6.0%	12.9%	81.0%
	초장동	(152)	10.5%	20.4%	69.1%
권역	1중점구역	(300)	8.3%	18.3%	73.3%
	2/3중점구역	(100)	6.0%	8.0%	86.0%
성별	남성	(200)	8.5%	18.5%	73.0%
	여성	(200)	7.0%	13.0%	80.0%
연령	10/20대	(61)	4.9%	32.8%	62.3%
	30/40대	(99)	13.1%	16.2%	70.7%
	50/60대	(160)	6.3%	12.5%	81.3%
	70대 이상	(80)	6.3%	8.8%	85.0%

주 : 떠나고싶음(합)은 떠나고 싶음 1~3점 응답 합계, 살기좋음(합)은 5~7점 응답 합계임

- <표 3-3-9>처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창조인력에게 매력적이라고 하는 응답이 66.5%,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응답이 68.0%이었음

<표 3-3-9> 아미·초장동의 창조자본

구분	(사례수)	창조인력에게 매력적인 곳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			
		매력적이지 않음(합)	보통	매력적임(합)	변화/혁신을 거부함(합)	보통	변화/혁신이 이루어짐(합)	
합계	(400)	10.5%	23.0%	66.5%	7.0%	25.0%	68.0%	
지역(동)	아미동	(248)	9.7%	19.4%	71.0%	5.6%	23.0%	71.4%
	초장동	(152)	11.8%	28.9%	59.2%	9.2%	28.3%	62.5%
권역	1중점구역	(300)	12.3%	24.3%	63.3%	8.3%	26.3%	65.3%
	2/3중점구역	(100)	5.0%	19.0%	76.0%	3.0%	21.0%	76.0%
성별	남성	(200)	10.5%	27.0%	62.5%	6.0%	28.5%	65.5%
	여성	(200)	10.5%	19.0%	70.5%	8.0%	21.5%	70.5%
연령	10/20대	(61)	9.8%	27.9%	62.3%	6.6%	23.0%	70.5%
	30/40대	(99)	14.1%	19.2%	66.7%	9.1%	26.3%	64.6%
	50/60대	(160)	10.0%	20.6%	69.4%	5.0%	26.3%	68.8%
	70대 이상	(80)	7.5%	28.8%	63.8%	8.8%	22.5%	68.8%

- 그 외 마을에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내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참여할 의향을 묻은 결과 59.8%(있음 57.0%, 매우 많음 2.8%)가 참여의향을 보였음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복덕방 사업을 통한 마을의 공유지대화

-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은 주거환경과 근린경제 활력이 쇠퇴된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역내 공유지대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지역의 창조적 활동, 아이디어, 새로운 시도 등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DB구축이 선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없었고 향후 DB구축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근린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예술가 작품을 두거나 동아리 동방이나 작업실 문의도 오고 있어 이런 분들을 연결하고자 함
- 주민들은 빈집조사 및 복덕방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기대감이 높음. 실제 빈집, 빈방(2층 전체 등)이 주변에 꽤 많으나 놀리고 있는 집이 많으므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함. 빈집에 좀 더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주민을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서로 아는 사이라 조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좋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을 통한 마을 구성원들의 새로운 사고, 경험을 장려할 것으로 보임

□ 근린상권 활력 사업에서 현재의 협치구조를 벗어나는 다양한 생태계 협업 계획

- 본 사업에서는 아미맘스, 아미골 협동조합 등 3개 정도 기존 주민조직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인큐베이팅을 거쳐 감천문화마을 160만명 관광객 진출입 동선에 오픈하여 아미로의 활기 재생을 목표로 함. 초기에는 이들 지역 내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신규 창업자 유도함. 최종적으로 5~6개는 주민이 운영(아미맘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참여자 확대)하고 나머지 5~6개 정도는 마을과 소통할 수 있는 청년/창작자 등을 중심으로 유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
- 일반적으로 근린재생형 스트리트(street)를 조성하는 사업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인력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계획에서는 창업인력을 유인할 구체적 계획보다는 기존 주민조직 중심의 계획이며, 근린상권 활력 사업에서 현재의 협치구조를 벗어나는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를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이디어는 부족하여 주민과 외부 인력 간의 협업을 통한 창조적 활동은 다소 제약될 것으로 보임
 - 청년 창작자 등 지역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갈 마음이 있는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 현재도 알아보고 있는 중. 예술가들을 너무 배제하지는 않고 <창작공동체A>와 같이 지역에 좋은 예술가/단체는 적극 연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볼 예정이고 <미니어처 제작>, <음식메뉴 개발>, <봉제인형> 등 킬러콘텐츠라고 할 만한 것을 발굴 과정에 있음. 지금으로서는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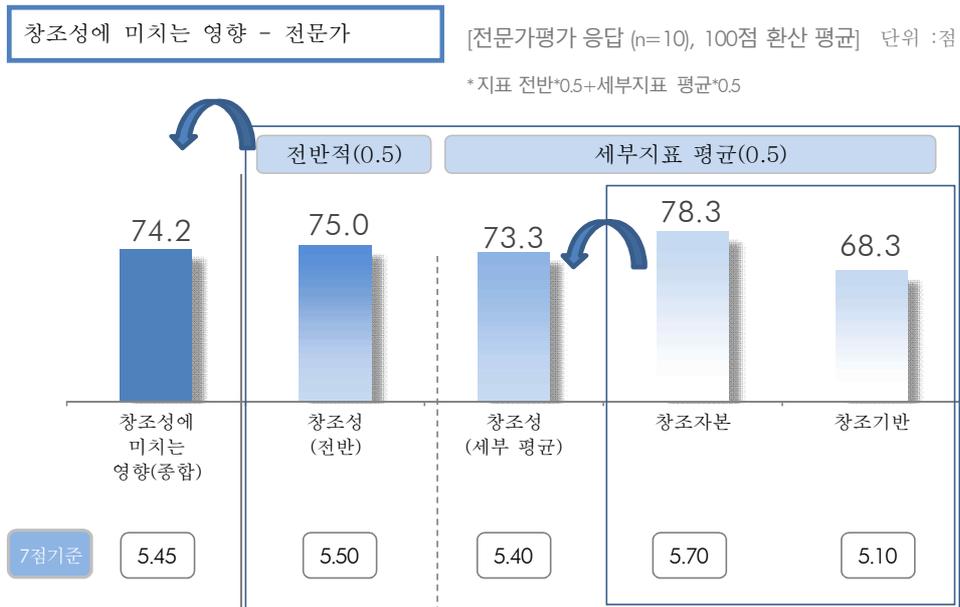
한 활동을 하는 분과 접촉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임

□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수익 발생의 공적기금화 계획

- 마을기업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환원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추진 중임. 아직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사업이 기초적인 단계. 아직 사업 실행이 6개월 정도라 현재 까지는 수익이 발생한 후를 생각하기보다 사업기반 다지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논의할 구조가 있음. 장기적으로 기금화 등을 생각하고 있음
- 주민들은 벌써부터 주택 매매 등을 독려하는 사람이 오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개개별로 이웃들에게 팔지 말고 구청에 말해서 공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하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 본 사업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74.2점(7점 기준 5.45점)으로 영향이 ‘약간 있는 편’으로 평가하여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영향이 큰 편으로 평가함. 세부 지표별로는 ‘창조자본’에 대해서 78.3점(7점 기준 5.70점)으로 평가하였고, ‘창조기반’에 대해서 68.3점(7점 기준 5.10점)으로 평가하였음



[그림 3-3-5]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평가 결과

- 마을 내재적 인적자산, 물적자산의 발굴 및 활용에 대한 창의적 접근이 있음
 - 마을에 숨어있는 인적자산들의 창의적 재능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 자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결합하는 등 인적자산에 대한 커뮤니티 단위 접근이 있음
 - 근린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먹거리 사업, 카페 사업, 공방 사업)도 기본적으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의 창조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집수리사업단, 복덕방 사업 등을 통한 창조기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향후 집수리사업단,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을 통하여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주환경, 근린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성 기반을 확산해 가는 계획이 있음
 - 복덕방 사업은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창조성 관점에서는 계획 자체로도 중요한 아이টে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과 인력을 결합하는 다양한 창조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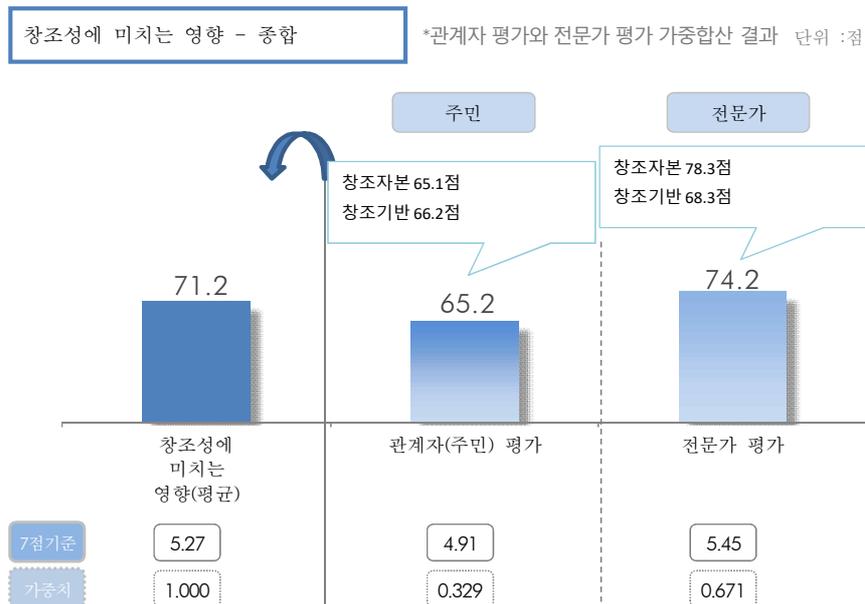
- 복덕방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에 대한 고민이 부족
 - 복덕방 사업이 <공적자산을 사적공간에 활용하자>는 이른바 리퍼블릭(re-public)으로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시도는 좋아 보이나, 현재 계획으로서는 단순한 DB구축이 아닌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고민과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한 활성화 전략은 부족함
 - 이를테면 복덕방 사업의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이벤트, 스토리텔링 등이 없다면 자칫 창조기반을 마련하기보다 일반적인 부동산업 내지 사적영역을 확대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음

- 주민 구성원의 아이디어 및 역량 강화에 기여
 - 자생적으로 설립된 주부조직이 본 사업과 결합되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듯이 집수리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동네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임. 온 생애를 살아왔던 동네인 만큼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과 악조건을 스스로 떨치고자 노력하는 힘이 창조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역량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단, 집수리사업단의 활동이 경수리, 중수리 등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단순 기능강습적 성격의 활동에 그치고 있어 창조성 제고에 한계가 어느 정도 보임

-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계획은 부족
 - 감천문화마을로 이어지는 상점거리 활성화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성과 장기적 관점의 플랜이 있는 반면,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임차인(주민 창업자, 청년 창작자 등)이 일정 기간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설정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해보임
 - 특히 감천문화마을이 포화상태에서 당 사업지로의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의 확대가 예측되는 데 반해 현재 계획 단계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지책이 미비함

5)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

- 평가 결과 종합
 - 관계자(주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모두 영향이 ‘약간 있는 편’ 으로 평가하고 있음. 단, 주민에 비해 전문가에서 사업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집수리 사업단 및 복덕방 사업의 운영모델 보완, 마을 내 공유지대 선점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완화 계획, 마을의 공유지대화 계획 등이 반영될 경우 사업의 문화적 영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3-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지수

□ 평가 주체별 평가 내용 요약

- 주민 평가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지역의 창조성과 사업을 통한 지역의 창조성 증진에 대한 기대치 격차가 크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해도가 아직은 미비한 영향으로 보임. 다만, 주민리더들은 계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복덕방 사업 등의 재생, 공유지대화 측면의 사업 방향에 대한 기대감과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음
- 전문가들은 우리 동네 복덕방 사업이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서 다양한 세부 사업의 결과를 종합함은 물론 향후 지속가능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은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규약 등이 마련되면 창조성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평가함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제고 방안

□ 기능적 측면을 넘어 문화적 사유와 실험이 필요

- 사업을 통해 창조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사유와 실험이 결합되었으면 함. 이를테면 집수리사업단의 활동이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문화예술적 활동과 표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니주택보급사업도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적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창조적 생산물(시대적 디자인이 반영된)로 표현된다면 참여자의 예술적 참여의향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의 장소성을 공간에 체현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단순 교육형을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나 다양한 문화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갈 수 있음

□ 공유지대를 확대하는 창조적 사업으로서 복덕방 사업과 상권 활력사업

-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주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내 거점시설, 커뮤니티 문화공간 등의 공유지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음
- 상권 활력사업도 개별 상가의 성장보다 상가 생태계가 중층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공유지대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한 생태계 조성 전략이 있어야함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마을 내 공유지대 조성 및 운영매뉴얼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을 철저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마을 내 다양한 공유공간, 공유지, 공유활동 등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공적운영이 가능한 공유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 복덕방 사업의 운영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어떻게 복덕방을 통해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할 것인가?’, ‘빈집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시 마을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을 형성하여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빈집 소유주와 외부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차단할 것인가?’, ‘축적된 공동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정,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조례’ 등을 시/구, 정부 차원의 정책을 참고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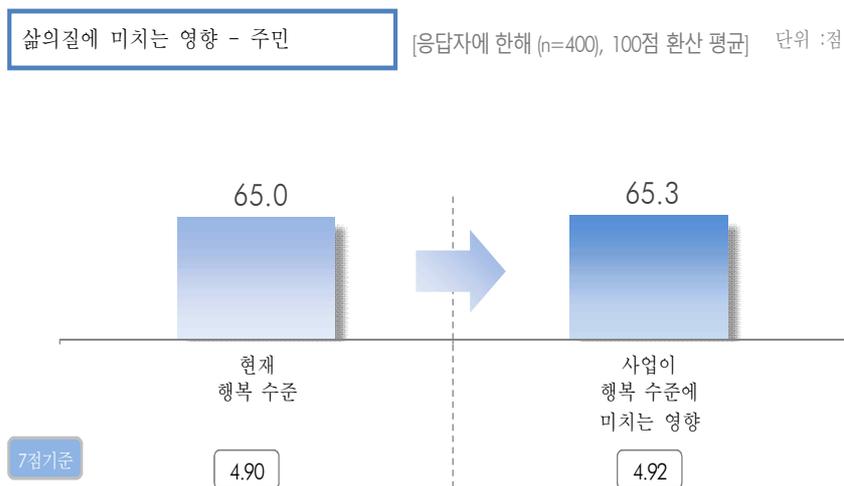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주체화와 주민 지속적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주체화(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수익모델이 중요하나, 초기단계에서 수익중심으로 나가면 결국 현실적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주민참여 동력이 떨어짐. 참여주민들의 커뮤니티 강화와 협동조합과 마을의 선순환적 교류와 기여, 개방성과 지역성을 유지하여 점차 공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절 삶의질, 정주성(특성화 지표)에 미치는 영향

1.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삶의질(Quality of Life)의 변화를 기대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실제 [그림 3-4-1]처럼 조사결과 는 사업을 통한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첫째, 아직 사업 초기이다보니 도시재생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충분 하지 않은 영향이 크며, 둘째,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 보전 관련 사업 등의 주민 관여도가 포괄적이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득수준 등 일반적으로 삶의질에 영향이 큰 변수 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 볼 때 아미동, 초장동 지역 주민들 대체로가 지역의 변화와 그로 인한 개별 주민 삶의 수준 증진 등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것이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삶의질 점수 차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재 사업의 방향성이 주민들에게 이해되기에는 다소간 인지도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줌
- 이러한 점은 향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선제되어야할 주민의 호응도, 참여도 측면에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4-1]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계층별로는 아미·초장동 주민 계층별로 현재 행복 수준 및 사업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대감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후적으로 파악된 변수로서 커뮤니티 활동 정도, 마을주민 신뢰도 등이 활발하거나 긍정적인 층에서 '삶의 질' 현재와 기대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표 3-4-1〉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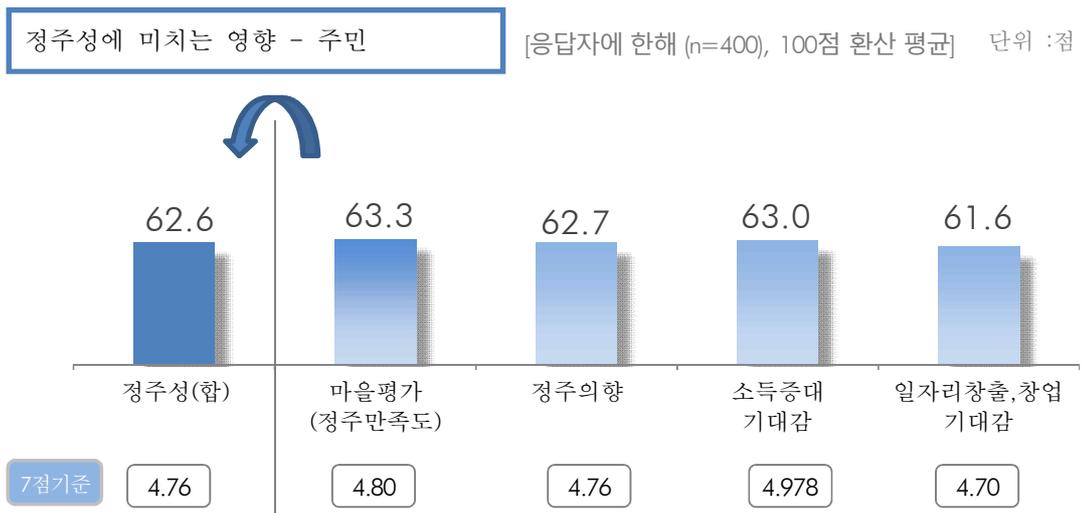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현재 행복 수준 (A)	사업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B)	격차 (B-A)
			평균	평균	
합계		(400)	65.0	65.3	0.3
지역(동)	아미동	(248)	65.5	65.4	(0.1)
	초장동	(152)	64.4	65.1	0.7
		통계검증 (t)	n.s	n.s	
권역	1중점구역	(300)	65.4	65.5	0.1
	2/3중점구역	(100)	63.8	64.7	0.9
		통계검증 (t)	n.s	n.s	
성별	남성	(200)	64.6	64.5	(0.1)
	여성	(200)	65.5	66.1	0.6
		통계검증 (t)	n.s	n.s	
연령	10/20대	(61)	65.3	63.1	(2.2)
	30/40대	(99)	64.1	65.7	1.6
	50/60대	(160)	65.9	66.0	0.1
	70대 이상	(80)	64.2	65.0	0.8
		통계검증 (F)	n.s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4.3	64.8	0.5
	기타지역(합)	(204)	65.8	65.8	-
		통계검증 (t)	n.s	n.s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68.3	73.8	5.5
	경험없음	(360)	64.7	64.4	(0.3)
		통계검증 (t)	n.s	4.763***	
평소 친구/지인 만나는 시간	한 달에 몇 번 이하	(136)	60.3	62.3	2.0
	일주일에 3번 이상	(264)	67.5	66.9	(0.6)
		통계검증 (t)	-5.954***	-3.641***	
마을 리더 신뢰도	신뢰하지 않음	(42)	54.8	56.3	1.5
	신뢰함	(358)	66.2	66.3	0.1
		통계검증 (t)	-4.727***	-4.682***	
마을 이미지	부정적	(66)	55.6	57.1	1.5
	긍정적	(334)	66.9	66.9	-
		통계검증 (t)	-6.453***	-5.187***	
마을 내 평소 교류 하며 지내는 사람 수	0-5명 미만	(168)	63.4	64.5	1.1
	5-10명 미만	(126)	65.2	66.1	0.9
	10명 이상	(92)	66.8	64.3	(2.5)
		통계검증 (F)	n.s	n.s	
다양한 문화 자기개발 정도	폐쇄적(합)	(49)	54.8	56.5	1.7
	개방적(합)	(351)	66.5	66.5	-
		통계검증 (t)	-5.340***	-5.110***	
마을 협동조합 등 설립시 조합원 참여의향	부정적	(161)	60.9	60.9	-
	긍정적	(239)	67.9	68.3	0.4
		통계검증 (t)	-5.787***	-6.063***	

2.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이 정주성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Settlement)의 변화를 기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실제 조사결과는 [그림 3-4-2]와 같이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성이 ‘약간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 정주성을 크게 마을평가(정주민족도), 정주의향, 소득증대 기대감, 일자리창출, 창업 기대감의 4개 차원으로 확인한 결과는 4개 차원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음
- 성/연령/지역 등 계층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평소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이 ‘20명 이상’인 주민의 정주의향은 70.1점인 반면 ‘0명(절대적 고독층)’인 주민의 정주의향은 52.1점으로 약 20점의 차이를 나타내, 일상적 만남, 커뮤니티 활동이 많을수록 정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4-2]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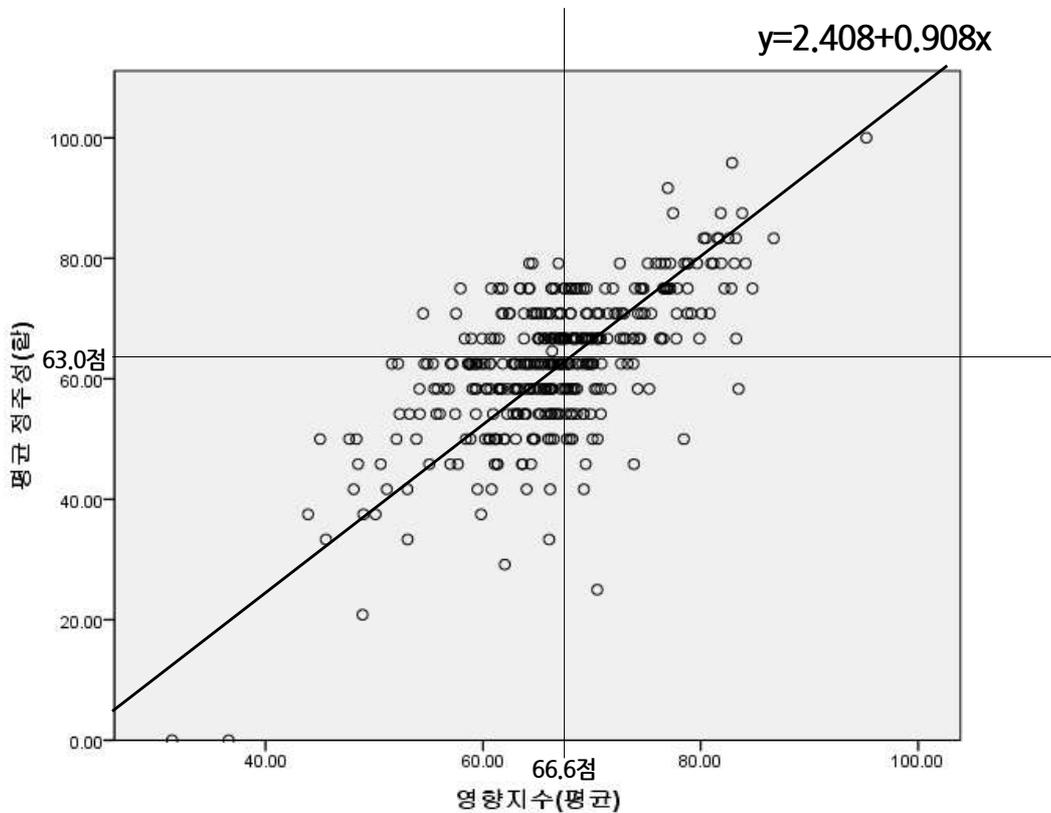
○ 계층별로는 정주성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문화교육경험이 있거나, 기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거나 마을리더 신뢰도가 높은 주민일수록 정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자 설문조사 계층별 분석(t,F검증)

구분		사례 수	단위 : 점				
			정주성(합) 평균	정주성-마을 평가 평균	정주성-정주 의향 평균	경제적 기대-소득 증대 평균	경제적 기대-일자리 창출, 창업 평균
합계		(400)	62.6	63.3	62.7	63.0	61.6
지역(동)	아미동	(248)	63.2	64.0	64.1	62.8	61.8
	초장동	(152)	61.7	62.0	60.3	63.3	61.4
통계검증 (t)			ns	ns	2208*	ns	ns
권역	1중점구역	(300)	62.7	63.7	63.1	62.7	61.4
	2/3중점구역	(100)	62.5	62.0	61.5	64.0	62.3
통계검증 (t)			ns	ns	ns	ns	ns
성별	남성	(200)	61.6	62.3	60.9	61.9	61.3
	여성	(200)	63.7	64.3	64.4	64.1	61.9
통계검증 (t)			ns	ns	-2311*	ns	ns
연령	10/20대	(61)	59.6	61.2	58.5	58.5	60.1
	30/40대	(99)	63.0	63.1	61.6	64.3	63.0
	50/60대	(160)	63.4	64.3	64.0	63.9	61.5
	70대 이상	(80)	63.0	62.9	64.6	63.1	61.5
통계검증 (F)			ns	ns	ns	2660*	ns
현 주소지 이전 주소	아미/초장동(합)	(196)	61.9	62.8	62.3	61.6	60.9
	기타지역(합)	(204)	63.3	63.6	63.0	64.3	62.3
통계검증 (t)			ns	ns	ns	ns	ns
1년간 문화교육경험	경험있음	(40)	65.9	67.9	69.2	63.8	62.9
	경험없음	(360)	62.3	62.7	61.9	62.9	61.5
통계검증 (t)			2811**	2180*	2872**	ns	ns
평소 친구/지인 만나는 시간	한 달에 몇 번 이하	(136)	58.6	59.3	57.8	59.4	58.0
	일주일에 3번 이상	(264)	64.7	65.3	65.2	64.8	63.5
통계검증 (t)			-4838***	-4016***	-4665***	-3611***	-4072***
마을 리더 신뢰도	신뢰하지 않음	(42)	52.6	52.0	49.6	54.8	54.0
	신뢰함	(358)	63.8	64.6	64.2	64.0	62.5
통계검증 (t)			-5838***	-4211***	-4401***	-4117***	-4065***
마을 이미지	부정적	(66)	54.3	53.5	52.5	56.1	55.1
	긍정적	(334)	64.3	65.2	64.7	64.4	62.9
통계검증 (t)			-4815***	-4815***	-4360***	-3679***	-3587**
마을 내 평소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 수	0-5명 미만	(168)	61.1	61.4	60.8	62.2	61.1
	5-10명 미만	(126)	63.7	64.3	63.1	65.3	62.2
	10명 이상	(92)	64.6	64.9	64.3	61.1	61.6
통계검증 (F)			ns	ns	ns	3253*	ns
다양한 문화 자기개발 정도	폐쇄적(합)	(49)	55.2	54.4	54.8	55.8	55.8
	개방적(합)	(351)	63.7	64.5	63.8	64.0	62.4
통계검증 (t)			-4570***	-3508**	-2918**	-3928***	-3363**
마을 협동조합 등 설립시 조합원 참여의향	부정적	(161)	58.7	59.4	58.3	58.9	58.4
	긍정적	(239)	65.3	65.8	65.6	65.8	63.8
	통계검증 (t)		-5689***	-4247***	-4563***	-4923***	-4013***

□ 문화영향이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영향지수(산술평균)와 정주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그림 3-4-3]과 같이 두 변수간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민의 문화영향이 높을수록 정주성에 대한 기대 수준 및 정주의향도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사업을 통한 문화영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의 정주성도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로서 정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의 세부 지표별 문화영향력을 제고해가는 노력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한정된 시간과 자원 조건 안에서 문화영향력과 정주성을 모두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더 영향력이 높은 지표에 대한 선택적 집중이 필요함



[그림 3-4-3] 문화영향이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 R제곱=0.391, F=254.1로 모형이 유의함

□ 정주성에 대한 문화영향 지표별 영향력

- 한편 상기 정주성에 어떤 지표의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정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지표별로 분석할 결과는 <표 3-4-1>과 같음. 앞서 예측된 것처럼 ‘공동체’ (B=0.480)의 영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창조성’ (B=0.297), ‘표현 및 참여’ (B=0.158) 순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정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동체’, ‘창조성’, ‘표현 및 참여’로 요약됨
- 주목할 점은 ‘창조성’이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영향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물리적, 인적 투자의 결과가 지역(마을)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주민 정주성의 결정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음
-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 공감에 기반한 사회자본 형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서 문화적 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4-1> 정주성에 대한 문화영향 지표별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689	3.636		-.740	.460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018	.071	-.014	-.251	.802	.412	2.430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58	.076	.129	2.070	.039	.334	2.990
1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019	.068	.015	.274	.784	.453	2.209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480	.064	.391	7.462	.000	.469	2.13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051	.066	.042	.778	.437	.450	2.220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297	.059	.252	5.012	.000	.509	1.965

※ R제곱=0.493, F=63.715로 모형이 유의함, VIF는 3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대체로 낮음
 잔차 독립성은 Dubin-Watson 검정 통계량 1.633으로 미확정 (독립변수 6, 관찰치 400의 임계치 1.57≤D≤1.78)

■ 제4장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1. 평가결과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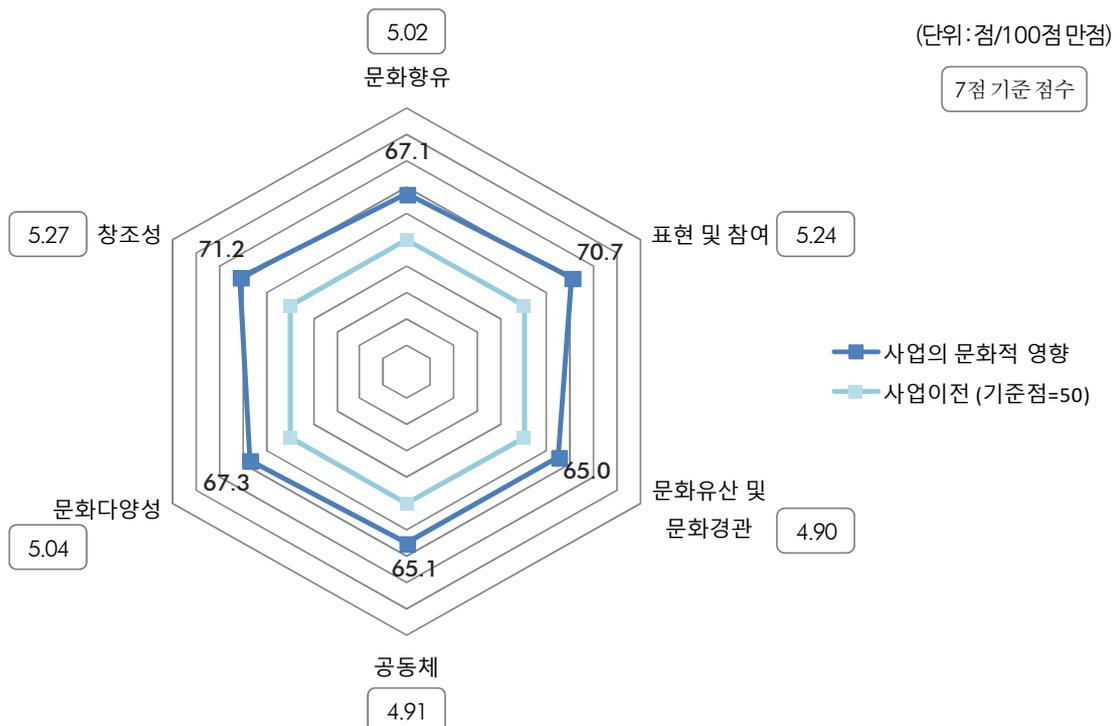
- 문헌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설문조사, 관계자 FGI 및 인터뷰, 전문가 평가를 통해 도출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표 4-1-1>, [그림 4-1-1]과 같음

<표 4-1-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단위 : 점/100점 만점)

구분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전문가평가점수	69.2	75.4	63.8	64.2	66.3	74.2
주민평가점수	64.7	66.5	67.5	66.1	69.2	65.2
문화영향지수	67.1	70.7	65.0	65.1	67.3	71.2

주: 문화영향지수는 100점 척도로 환산한 주민평가점수와 전문가평가단 평가점수를 가중합산한 결과값임



[그림 4-1-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사업단, 관 조직의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짐
 -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특히 일상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생활문화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되며 이 영향이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정서적 공감대와 활력을 만들고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마을문화의 형성, 문화적 주체의 새로운 형성, 문화적 향유, 소비, 생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미초장마을에서 주민의 문화적 참여와 표현, 생산을 위한 균형감있는 좋은 기획으로 판단됨
 - 사업기간의 종료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적 주체로서 주민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공간적, 내용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복제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아미초장마을의 고유한 유·무형 자산과 인적 자산에 기초한 사업으로 보임
- 지역 특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엿보이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임
 - 결과적으로는 지역 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주민조직과 활동의 확산과 연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함
- 프로그램들 간 균형이 적절하고, 마을의 문화적/역사적 경관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서가 마련되어 매우 체계적이고, 실현가능성 또한 있어 보임
 - 앞에서 지적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숙지하고 향후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함
-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사업 계획과 내용이 다소 부족함
 - 공간 조성 계획에 비해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이 다소 미흡함. 아울러 문화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의 참여와 협력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권장함
- 주민리더, 생활문화, 역사자원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준비된 도시재생 사업지로 판단됨
 - 특히 생활문화 및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복덕방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산화까지 고민하고 있음은 타 지역과는 다른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마을 내 소수, 문화자원의 집약화, 프로그램의 편중 등은 외부 컨설팅 및 전문가관간의 결합을 통해 풀어 나감으로서 좀 더 마을의 문화적 향유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
-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정주환경의 개선, 주민의 자긍심 고취 등에 있어서 본 사업의 효용성은 매우 크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체화 하는 프로그램의 방식도 매우 긍정적임
 - 아쉬운 것은 이런 모든 내용에 문화적 요소가 함께 가미되고 부여되었다면 그 효과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 문화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특히 지역의 문화관련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접촉을 넓혀 주민들

- 의 문화육구의 증진과 향유 및 창조력까지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 마련이 필요
-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공동체, 주민 자발성, 마을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잘 살린 계획으로서 사업지 주민과 지역 전반의 문화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도구적 관점에서의 문화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 있음. 맥락(context)과 의미(meaning)를 지속적으로 포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구성하는 건축, 경관 디자인, 문화프로 그램과 활동, 주민 육성 등 전반적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요약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을 제고하는 공간, 프로그램, 인력 계획이 있고 사업 주체의 추진의지도 명확하여 현 상태에 비해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수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산동네 마을의 특성에 부합하게 앵커시설로서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와 생활문화공간으로 공동이용장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 축제, 문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함
- 반면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인 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면 이를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 및 계획,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은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 문화향유 차원의 중 다양성의 불균형, 생활동아리에 너무 치중한 문화활동 계획, 연령 폐쇄적 프로그램,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에 대한 연계방안 부재, 문화시설/단체의 네트워크 부재 등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함
 - 주민 욕구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동아리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위치 이동이 필요하고 지역 문화재단 등의 지역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등의 지원 사업(문화매개인력)을 연계하여 협업구조를 마련하여 갈 필요가 있음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 계획의 수립과정과 추진과정에서 정책 당사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절차와 단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생활문화활동에 대한 사업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공적으로나 문화적 활동 과정에서 표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주민의 일상적 활동을 문화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과 그에 대응하는 예산이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 및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행정 편의상 기존 주민조직, 지역단체 리더 위주의 다소 폐쇄적인 거버넌스와 생활문

회공간의 조성 문제는 주민 대다수의 표현 및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지역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도 제약될 우려가 있음

- 주민리더를 다양한 연령대와 특성별로 발굴하는 계획이나 주민 내발적 기획력을 제고하는 계획은 부족해보임
- 실질적인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와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환류체계 마련이 시급
- 생활문화를 다소 간 단순한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서 기능을 설정하고 있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만남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능동적 표현,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참여 활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 마을 형성 배경인 일본인 비석자원과 비석주택을 시대적 눈높이와 보편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마을의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고, 기타 다양한 마을 유·무형 자원을 보호하여 가치를 제고하려는 계획이 있어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를 통한 가치 계승과 문화유산 및 경관의 고유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교육, 관광 등 연계 사업에 접목/활용하여 그 가치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함은 물론 주민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비석, 비석주택 등 지역의 옛갈리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질적 의견을 모아 산동네이자 피난도시의 대표 마을로서 의미와 상징성을 한층 높은 차원에서 형성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를 넘어 활용차원에서 본 사업 계획은 비석자원과 마을 형성의 스토리, 산동네 전형의 마을경관, 자연경관 등의 '지역 자원읽기'가 다소 부족하여 맥락적(context)으로 문화유산 및 경관의 비맥락적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
 - 비석 등 지역 문화자원의 학술적 고증 및 심층적 조사/아카이브 구축에 기반한 피난문화의 가치평가와 현재성 강화가 부족하여 문화유산 및 경관의 가치 확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더불어 집수리 사업, 공동이용장 조성 등에서 신축보다는 기존 유휴 공간을 업사이클링하는 방식 등의 문화적 공간조성을 통한 장소성 증진의 체현이 필요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윗마을과 아랫마을, 토박이와 이주민간의 갈등과 기존의 20개가 넘는 주민조직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의 장으로서 공유 공간 조성 계획과 마을축제를 매개로 하는 공동체 활동 계획이 있어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정/완화하고 주민 간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킴은 물론,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자본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확장시켜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청소년 교육, 노인 문제 등을 해결하고 주민 간의 신뢰와 자발적 참여, 결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집수리 사업 등에서 소외되는 주민의 불만과 갈등이 예상되며 향후 주민 참여가 폐쇄적으로 또 다른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고, 문화단체/시설, 예술가/단체 등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지속성 확보 부문은 다소 부족해보임
 -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주민 대화형 컨센서스와 공동의 합의나 규약 등을 마련하여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감천문화마을 등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의 동선과 주민 일상의 공간이 충돌하는 문제는 향후 주거지가 관광지화되어 거주민이 떠나는 이른바,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문제로 나타날 여지가 큼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아미·초장동만의 산동네, 경사지주거지의 고유한 역사성과 경관을 극대화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잘 녹여내고 있으며 마을 내 취약계층의 문화나 권익을 보호하는 계획과 활동이 있어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장려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반면 기존의 일부 특정 복지단체 및 주민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놓치고 있는 마을 내 기타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접근은 다소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세대 간 단절적인 사업 구조인 느낌이 있음
 - 마을 내 소수집단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장려하는 데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 청소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스페이스의 창작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수 있고 문화공간의 전용(專用)은 또 다른 이용객을 제약하고 마을 내 다양한 구성원간의 문화적 표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으로 역기능(逆機能)할 수 있음

□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 주민을 발굴/양성하고 다양한 외부인재와 결합하는 계획이 있고, 복덕방 사업 등 공유자산을 확보하여 공유지대를 구축하는 계획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발생하는 수익의 환원구조에 대한 계획도 있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주민과 지역의 창조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복덕방 사업과 상권 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 내 공유자산을 확대해간다는 관점이 주요함
- 반면 복덕방 사업, 미니주택 보급사업, 근린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서 외부 인재의 유입 및 결합을 통한 다양한 창업인력 유인 방안, 콘텐츠의 상품화 계획은 다소 보완이 필요함
 - 집수리 사업단, 복덕방 사업 등이 다소 기능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창조성이 발현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주민 등의 사적활동의 결과가 공적결과와 공동의 이익으로 지역에 남을지는 의문이 있음

□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결과 요약

○ 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결과 요약은 아래 <표 4-1-2>와 같음

<표 4-1-2>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결과 요약

(단위 : 점)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항목 가중치	평가 주체 가중치	7점 척도	100점 환산 점수	전문가 평가 점수	정책 관계자 평가 점수	종합 점수 (영향 지수)
1. 문화영향영향지수	1) 전문가 평가 점수							
	①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00	53.6	5.15	69.2	69.2	64.7	67.1
	2) 정책관계자 평가 점수							
	① 문화공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8.6	46.4	3.59	43.1			
	② 사업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시 이용의향	43.6		4.96	66.0			
③ 사업을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에 대한 인식	31.2	5.04		67.3				
④ 사업을 통한 문화향유수준 제고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16.6	5.06		67.6				
2. 표현 및 참여영향지수	1) 전문가 평가 점수							
	①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	100	46.8	5.52	75.4	75.4	66.5	70.7
	2) 정책관계자 평가 점수							
	① 사업인지를	4.0	53.2	5.19	69.8			
	② 사업에 대한 공감도	6.2		5.17	69.5			
	③ 사업추진 과정에서 표현 및 참여기회의 충분성	20.7		20.7	62.9			
	④ 사업을 통한 표현 및 참여 기회 증진에 대한 인식	16.0		12.0	65.6			
⑤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기회 증진에 대한 인식	34.8	34.8		68.0				
⑥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공간 확충시 이용의향	18.3	18.3		67.0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영향지수	1) 전문가 평가 점수							
	①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100	67.1	4.83	63.8	63.8	67.5	65.0
	2) 정책관계자 평가 점수							
	① 사업을 통해 조성될 문화유산 및 경관에 대한 방문 또는 이용의향	23.0	32.9	5.00	66.6			
② 사업이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40.6	5.01		66.8				
③ 사업이 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36.4	5.14		69.0				
4. 공동체영향지수	1) 전문가 평가 점수							
	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100	50	4.85	64.2	64.2	66.1	65.1
	2) 정책관계자 평가 점수							
① 사업이 사회적자본 및 지역애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65.2	50	5.02	67.1				
② 향후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행사참여 의향	34.8		4.86	64.4				
5. 문화다양성영향지수	1) 전문가 평가 점수							
	①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100	63.9	4.98	66.3	66.3	69.2	67.3
	2) 정책관계자 평가 점수							
① 사업이 문화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66.7	36.1	5.14	69.0				
② 사업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33.3		5.16	69.4				
6. 창조성영향지수	1) 전문가 평가 점수							
	①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100	67.1	5.45	74.2	74.2	65.2	71.2
	2) 정책관계자 평가 점수							
	① 사업이 창조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38.6	32.9	4.86	64.3			
② 사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38.4	4.94		65.6				
③ 사업이 창조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3	4.97		66.2				

제2절 정책적 제언

1. 종합적 제언

○ 평가의 주요 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등은 아래 <표 4-2-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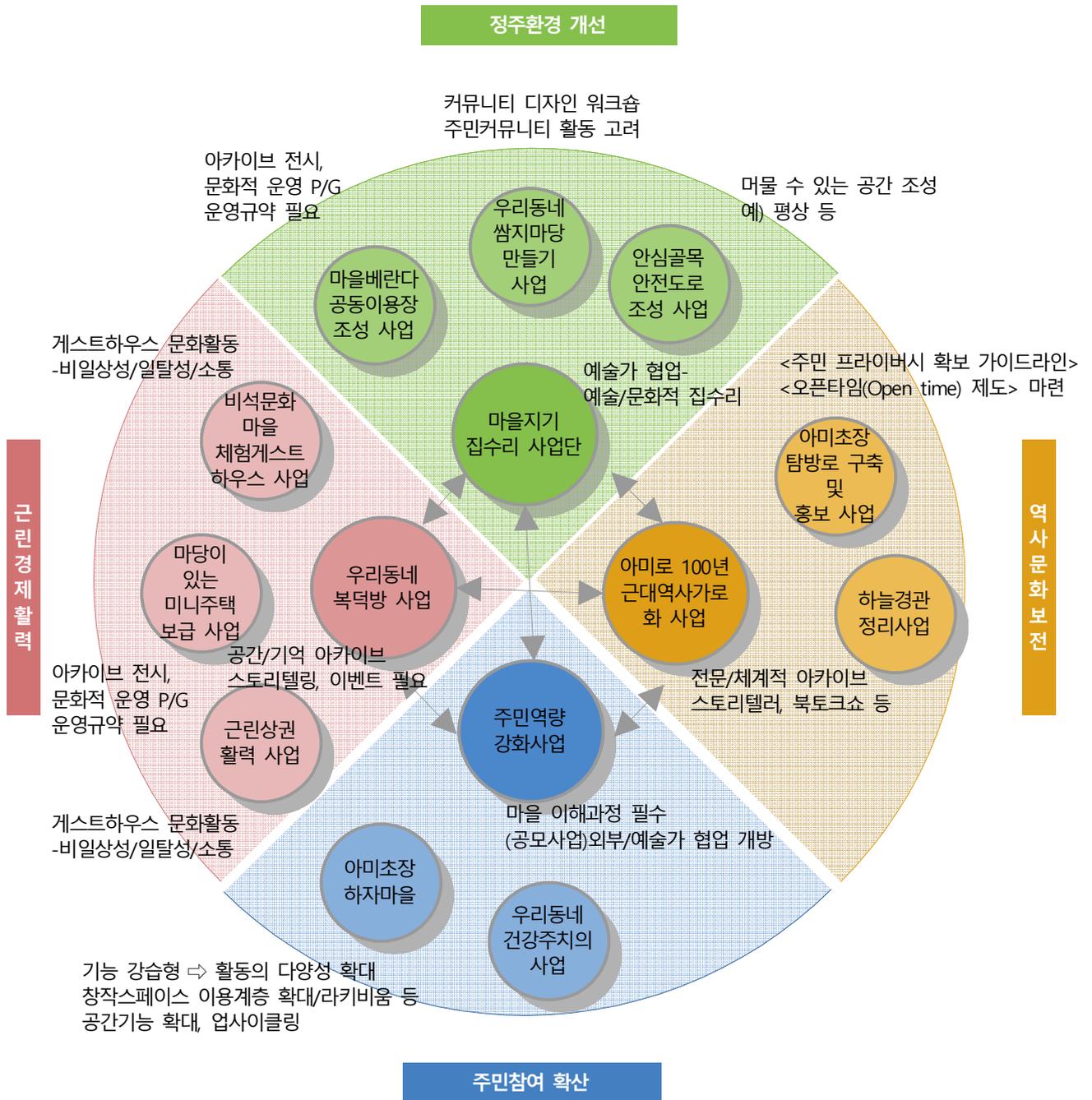
<표 4-2-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정책 및 계획의 기존 내용 (before)	평가의 주요내용	개선과제 (afte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주민리더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과 주민, 활동가 등 참여 주체의 역할 등이 잘 짜여진 계획임 문화분야 외부 파트너십, 문화분야 인력 또는 연계단체가 다소간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분야 인력(활동가) 확충 또는 외부 전문가 결합 → 도시문화기획자 활용 (부산시 '도시재생일자리 프로젝트' 교육생 등 연계) 	창조도시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모사업 및 하자미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연령대 폐쇄적, 기능 강습형 문화활동 성격이 강함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에 다소간 제약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활동 종류와 성격을 확대할 필요 → 문해교육, 리터러시 교육, 생활문화 활동 등 	창조도시과 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단체가 문화부문 사업을 위탁운영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문화향유 및 표현참여, 공동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위탁단체의 전문성, 다양성에 다소간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문화영향으로 발현되는 데 제약요건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운영 조건에 협업/연계 추진 항목을 명시 → 협업 단체 발굴, 협업내용 명시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기록화 사업 추진을 통해 비석 자원, 피난마을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계승, 활용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석에 대한 아카이브 연구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고 비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정해 경계 도시의 고유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전문적, 학술적 접근이 부족하여 콘텐츠의 원형성을 보여 주는데까지는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석, 미술자원 아카이브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 연구 및 전문 자문 필요 → '도시민속, 문화인류학 등 전문가 자문' 및 '아카이브 연구' 필요 → 비석마을의 '생애사, 개인사 연구/콘텐츠 사업' 필요 	창조도시과 부산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사업을 통해 비석주택 등 문화자원을 명소화하여 지역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로와 주민 일상공간의 중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프라이버시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보호 → '오픈타임제(Open time)' 	창조도시과

정책 및 계획의 기존 내용 (before)	평가의 주요내용	개선과제 (afte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덕방, 미니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덕방, 미니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슬럼화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주택현황 분석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은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덕방 사업 핵심사업화 → 고토부키초 사업 심층 분석/벤치마킹 → 복덕방 사업 비중 강화 (예산, 인력)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건립을 통해 교육문화시설 확충, 지역 인재 유출 방지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창작스페이스 공간의 규모에 비해 이용객을 적은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이용 범위 확대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 수립 필요 → ‘라키비움’, ‘격대격 교육 프로그램’ 등 고민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상권 활력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다양한 점포 설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경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단, 지대 상승에 대한 젠트리화 방지원화 계획이 없어 향후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내부 규약, 구차원의 상생 협약 마련 → ‘상생협약 조례’ 및 규칙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자마을 사업을 통한 주민 다수의 문화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 생활문화를 결합한 문화활동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보임 •통합문화이용권, 지역문화재단 연계를 통한 후속 사업 계획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사업 연계 시너지 제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연계 및 마을기업 등을 사용처로 등록 추진 • ‘일용직 근로자, 남성 대상 문화프로그램’ 필요 	문화관광과 부산문화재단 부산서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단체와의 협업 계획이 있지만 다소간 한정된 네트워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연계파트너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사업 연계 필요 예)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청년어르신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이용장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설립/활용할 계획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될 공간의 지속운영 프로그램 계획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의 지속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 생활문화를 거점으로 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등 	문화관광과 ※담당 : 지역문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화 등 사회적경제 주체화 계획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순환구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업 모델, 상품 계획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발굴 및 콘텐츠/상품화 과정 필요 → ‘비즈니스 모델 발굴’ 단계 및 전문 컨설팅 필요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 ※담당 :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2. 세부사업별 제언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별 제언은 아래 [그림 4-2-1]과 같음



[그림 4-2-1] 2017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세부사업별 제언 개념도

1) 정주환경 개선

□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단 운영

- 기능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의 건축적 맥락과 상징을 투영할 수 있는 방안의 업사이클링 관점의 문화적 방식이 필요함
- 집수리 사업단 주민의 입장에서 공간의 기억을 공간에 기록하는 ‘문화적 건축’ 자부심
 - 주민과 방문객 입장에서는 마을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배경으로서 건축
 - 집수리 사업단의 일자리 설계에서의 통합복지적 관점
- 예술가와의 실험/테스트베드 과정을 통해 상기 방식을 지역에 맞게 정립 가능

□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 마을 고유의 상징과 이미지를 투영하고 면밀히 조사된 아카이브를 전시하고 스토리텔링하며 파사주(passage)에 이러한 콘텐츠를 표현하는 것과 함께 조성 이후 주민의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문화적 운영모델이 필요
 - 기능 보장 문제가 있으므로 일부 벽면 등에 아카이브 사진을 전시하는 등의 방식
- (주민의견에서와 같이) 빨래해주는 날 등의 문화적 운영 프로그램 결합은 의미있음
-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서 공동이용장이 지속운영가능하도록 운영규약 등이 마련 필요

□ 우리동네 쌈지마당 만들기 사업

- 조성과정에서의 주민과 예술가가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입시키고 기능중심의 공간보다 활동중심의 공간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쌈지마당 만들기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을 통한 주민참여, 벽면녹화(wall farming), 예술공원 관점의 조성 등 필요

2) 근린경제 활력

□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 마을의 주택/공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아카이브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DB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간 유형별 계열화와 스토리텔링의 결합이 필요
- <아미·초장동 공가의 기억 아카이브>처럼 공간 조사와 기억에 대한 총체적 아카이브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집의 역사를 기록하고, 집의 역사, 기억을 파는 것이 되어야 함
- 주택 면적, 층별 등의 유형별 계열화 및 특성 설명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함

□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 사업

- 다소 부족한 생활문화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문화활동 계획을 추가한다면 다양한 방문객과의 비일상적, 일탈적 문화활동 경험을 선사하고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주민과 여행자가 함께하는 여행토크쇼, 영화의 밤 등 게스트하우스에 어울리는 문화활동이 가능함

□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 사업

- 상기 언급한 ‘주택/공간 조사’에 기반하여 기억과 상징,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공간에 기록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이를 통해 향후 미니주택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 근린상권 활력 사업

- 내부 주민과 외부 창업인력, 창작자 등이 협업하면서 공유자산을 확보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것에서 전문가 등의 도움이 있다면 인근 감천문화마을 등과 구별되는 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주민에게 일순위로 필요한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파는 곳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편의점, 슈퍼 등이 부족하여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얻는 주민을 일컫는 ‘생필품 난민 현상⁵⁴⁾’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완화하는 공동상생협약 등에 관한 선제적 대응 필요

54) 일본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고령화로 노인들이 야채, 생선 등 생필품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건강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회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반찬거리, 각종 생필품을 골목 상점에서 배달하도록 연계하였음

3) 역사문화 보전

□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 다양하고 중층적인 산동네, 피난마을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심층적으로 조사/아카이브하여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향과 함께 박제된 역사가 아닌 이를 현재화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으로서 주민 마을스토리텔러, 아미·초장 길위의 인문학, 북토크쇼 등 활동 계획도 필요
 - 아미·초장동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 역사문화 및 구술/생애사 전반의 아카이브
 - 역사문화 프로그램 결합 : 주민마을스토리텔러 양성, 길위의 인문학, 북토크쇼 등

□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사업

-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절대적 환대가 발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일상공간과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주민 프라이버시 확보 가이드라인’, ‘오픈타임(Open Time)’ 제도 도입이 필요
 - ‘주민 프라이버시 확보 가이드라인’ : 동선분리, 일상공간 배려 매너 등 제시
 - ‘오픈타임(Open time)’ 제도 :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인원만큼 마을을 돌아보도록 하는 운영시간 및 인원 규칙, ‘도시산책자’로서 지켜야할 행동규칙 등을 제시

4) 주민참여 확산

□ 주민역량강화사업

- 특정한 목표에 주안점을 둔 기능 교육 등을 지양하고 사업 초기에는 주민다수가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사례를 학습하고 마을과 자신, 공동체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문학적 교육이 결합되어야 할 것임
 - ‘마을 땅밟기’ : 마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 필요
 - 주민공모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외부 예술가/기획자와의 협업사업 개방’ 필요

□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설계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기능과 일어날 활동을 좀 더 확장적으로 반영하여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기능 강습형, 생활동아리 형태에 국한되지 말고 소통하고 사유하는 활동으로서 (주민 의견으로는 정적인 활동) 경계가 없는 문화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신축과 업사이클링의 결합 시도와 라키비움, 열리고 확장하는 공간 설계관점 필요

□ 사업지 문화영향 제고를 위한 포지셔닝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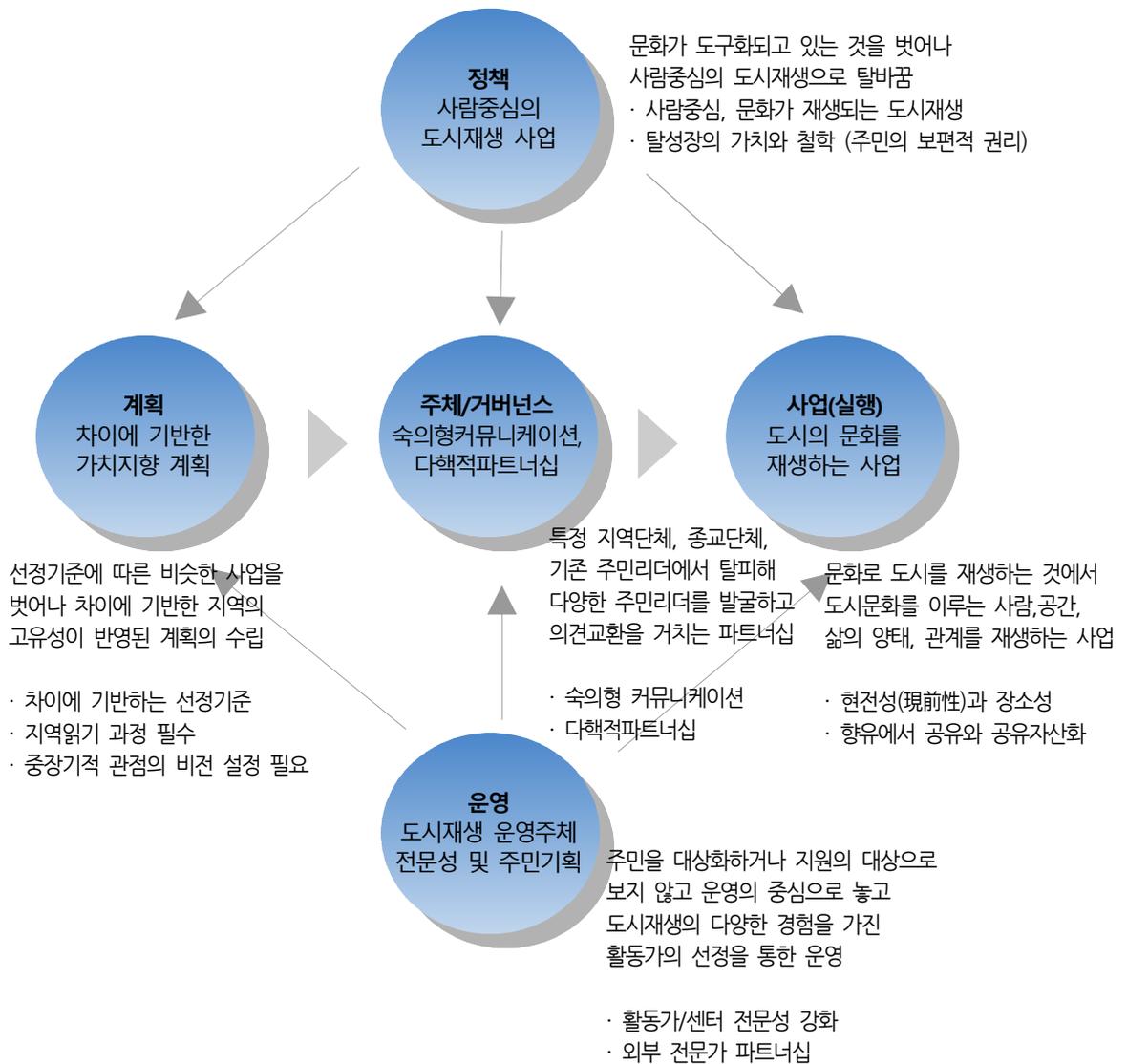
- 아미·초장동 사업지 주민의 10%만이 공연, 미술, 영상, 인문학, 스포츠 등의 문화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주민의 문화교육 및 문화영향력 지형을 사분면으로 나누면 아래 <표 4-2-2>와 같음
 - 문화교육 경험이 있고 영향지수가 높은 주민(7%)을 향후 잠재 주민리더로 적극 발굴함은 물론 주민활동가, 주민강사로까지 성장시키는 인력 설계가 필요함
 - 문화교육 경험은 없으나 영향지수가 높은 주민(40.5%)은 대체로 마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참여의지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대학’ 등 기획과 의견제안의 장으로 적극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문화교육 경험이 없고 영향지수가 낮은 주민(49.5%)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2-2>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 제고를 위한 포지셔닝 제언

	문화교육 비경험 x 영향지수 높은 주민	문화교육 경험 x 영향지수 높은 주민
비율	40.5%	7.0%
사업 제언	· 사업 전반의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 · ‘도시재생 대학’ 등 연계	· 주민 활동가, 주민강사 양성 · 잠재 주민리더로 발굴/양성
	문화교육 비경험 x 영향지수 낮은 주민	문화교육 경험 x 영향지수 낮은 주민
비율	49.5%	3.0%
사업 포지셔닝	· 관심사별 문화프로그램 참여 · ‘하자마을 사업’ 등 참여형 프로그램 연계	-

3. 도시재생 사업(대상과제)의 문화적 영향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이자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화적 영향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아미·초장동 과제 및 김해시 원도심 과제 전문가평가단 등이 참여하는 <통합포럼>(2019.09.19. 대구예술발전소)을 개최하고 아래 [그림 4-2-2]와 같이 발전 방안을 도출함



[그림 4-2-2]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적 영향 제고 방안

□ 정책 :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물질중심, 성장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개발, 재개발의 유인과 기획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도심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즉 기존의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을 수정하고자 한 ‘안티테제(antithese)’의 성격을 가진 정책임.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책대상인 ‘도시’에 정책도구인 ‘재생’을 단순히 결합시킨, 이른바 이중집합에 그치고 둘 간의 완전한 결합으로서 완결성은 부족함
 - 사회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물질적인 스키마(schema, 圖式)가 주요한 최종 목표이자 동기로 작동하고 있음
 - 도시를 ‘문제’로만 보는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만의 구조화된 ‘아비투스(habitus)’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상의 문제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문화가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문화가 도구화되고 사업의 포장재로서 활용되는 부작용을 가져옴
- ‘도시재생’이 내포하는 의미대로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재생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공간, 사람, 문화까지 사업의 의미를 확대하여 공간, 사람, 문화가 재생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방향 전환 및 승화가 필요함
 -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물질적 스키마를 극복하고 문화가 도구화되는 것이 아닌 (이른바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지양하고) 사람의 삶의 양태와 태도로서 문화를 도시차원에서 재생하여 문화가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여야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참여 주민의 지속성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함
 - 기존 도시 개발 정책의 성장주의, 체계화된 거버넌스, 도구화되는 주민 등의 문제에 균열을 가져오고 주거, 사회경제적, 더 나아가 문화, 복지 차원의 보편적 권리를 회복하는 동시에 ‘도시에 대한 권리’⁵⁵⁾를 (주민이) 획득하는 데까지 방향 설정이 필요

□ 계획 : 차이에 기반한 가치지향 계획

- 기존 국토부의 관문심사 등 사업 계획 수립부터 확정 및 시행 전 과정에서 선정 기준 및 과평평가의 기준이 대체로 보편성과 균형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다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테마와 구조를 만들어내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은 몇몇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탈락되거나 수정/보완을 요청받고 결과적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비슷하지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계

55)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 the right to the city)』에서 도시권은 애타는 호소인 동시에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권은 도시 일상생활이 쇠퇴하는 위기에서 비롯하는 실존적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는 의미에서 호소였다. 또한 도시권은 이 위기를 똑똑히 직시해 대안적 도시생활을 창조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요구였다. ... 생성과 만남의 여지는 물론 미지의 새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할 여지가 열린 갈등적이고 변증법적인 도시생활이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반란의 도시』, p9)

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 계획 간의 기시감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정주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인데 보편적 심사기준을 너무 심하게 고려해야 하다보니 행정의 보편적 기준에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도 예산에 따라 끼워 맞추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계획 수립단계에서 일부 특정 분야(도시계획, 조경 등)의 전문가 의견 비중이 높은 문제도 있음

○ 장기적으로 차이에 기반한 지역의 고유성과 장소성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 대상 지역/마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재’로서 도시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계획과 선정기준이 마련/보완되어야 하며, 향후 마을에서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선언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사업이 뒷받침되는 구조가 필요함
- 현재 활성화계획 등의 기본계획은 대체로 공간, 인구사회학적, 경제/산업적 여건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을 통합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문지리적’, ‘통합자원’ 관점에서의 지역읽기 과정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현재의 5년 정도는 한 도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7~8년 정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에서 초기 3년은 마중물이자 지역/마을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비전 설정 및 계획이 필요함

□ 주체/거버넌스 : 숙의형 커뮤니케이션, 다핵적파트너십

○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형식적으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의 내면의 의견과 무의식의 결핍, 삶에 대한 태도와 관심에까지 깊이 반영하는 것은 부족하고 다양한 주민리더와 참여자를 발굴하기보다 행정 편이상 기존 주민조직의 리더 등을 활용하고 있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 중심의 사업 구조는 다소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구조임

- 주민의 피로감을 이유로 다양한 주민의 면밀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면대면, 소통의 과정을 생략하고 절차적인 공청회, 간담회를 거버넌스의 유일한 도구로 활용함
- 주민을 대상화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결국 특정 지역단체, 종교단체, 기존 주민리더 등 다수의 의견만 반영되고 주민들 중 소수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움
- 최근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동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임

○ 특정 지역단체, 종교단체, 기존 주민리더에서 탈피해 다양한 주민리더를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결합하여 의견교환을 거치는 다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숙의형 커뮤니케이션(deliberative communication)⁵⁶⁾ : 좀 더 질적으로 성숙하고 심화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결과 주민(시민)들의 시민성을 실현하고 단순한 자기 이익을 넘어서 공공선과 공적 영역에 관한 관심을 발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

- 다핵적 파트너십 : 기존의 일부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도시재활성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파트너십의 분야와 방향을 다핵적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통해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실행) : 도시의 문화를 재생하는 사업

- 현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예산 계획 성격이 강하고 그로 인해 정주환경 개선, 근린경제 활력, 역사문화 보전, 주민참여 확산이라는 칸막이를 사업 계획단계에서 가질 수 밖에 없고 (연계사업을 중요하게 보고는 있음)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이른바, 도구화, 앵커팩터 내지 아이টে으로 활용하는 데 그침
 - 앵커팩터 내지 아이টে으로서, 주민을 불러모으고 지역에 이슈를 불러일으켜 큰 투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문화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즉, 문화적 재생이나 문화의 재생이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재생에서 문화는 도구일 뿐 아니라 도시의 권리와 주민의 삶을 재생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목적이기도 함
 - 한편, 도시에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이 혼합되어있는 바 자칫 공적정책의 결과가 사적이므로 귀속되거나 공간이 전유되고 지역 지대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살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의 반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것에서 도시문화를 이루는 사람, 공간, 삶의 양태, 관계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실행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여 장소성을 실현하고 도시 공간의 공유지대를 확산하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 현전성(現前性)과 장소성⁵⁷⁾ : 문화를 향유의 대상,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마을에 존재로서 남겨지도록 하는 사업 관점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마을/지역의 맥락(context)과 이미지, 기억 등이 총체적으로 축적되고 발현되는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함
 - 향유에서 공유와 공유자산화 : 개인의 문화 향유, 개발이익의 향유는 개인에서 점차 지역을

56) 공공사안들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열린 참여를 실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려는 커뮤니케이션. 공공의제에 관한 토론과정에 공중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실현함으로써 고품질의 여론을 형성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질적으로 보다 성숙·심화시킬 수 있음. 아렌트(Arendt)는 공적영역(public realm)은 상이한 관점들과 무수한 입장들이 공존하면서 다원적 시민성이 발현되는 공동의 세계이고 이러한 공동의 세계는 일종의 ‘더불어 하나되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공간이자 시민성이 충만한 공동체적 마당으로 설명하였음 (박승관(2000),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중 요약 발췌)

57) “인간은 자신이 한번 의미를 부여한 장소를 쉽게 잊지 못하는 존재이다. 장소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한 장소를 떠나는 것은 그 장소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며,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뿐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p.285~287 요약 발췌)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가는 과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앞선 반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폐가 또는 나대지 등을 중심으로 공유자산을 확보해가고, 이를 재생(업사이클링)을 통해 기능을 제공하여 공유지대를 공동체 내에서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함⁵⁸⁾

□ 운영 : 도시재생 운영주체 전문성 및 전문인력 파트너십

- 최근 활동가의 특혜논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활동가 특성상 단기 계약이며 주민과 관, 전문가 사이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며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확장적 업무를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향후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를 미시적으로 추진해가는 활동가들의 역량과 전문성,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필요함
- 주민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학습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운영주체 및 도시재생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의 선정을 통한 운영과 전문인력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전반의 선순환 운영 도모
 - 활동가/센터 전문성 강화 :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문화기획, 문화활동, 사회적경제 분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체 기획 뿐만 아니라 연대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활동가 대상 문화기획학교 등을 마련하여 그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업 성과 제고. 더불어 활동가와 센터는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학습하는 역할에 대한 설정
 - 외부 전문가 파트너십 :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의 한정된 분야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분야의 활동가를 선정하여 도시재생 사업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센터 인력의 부족한 문화, 사회적경제 등 분야에 대하여 지역의 문화기획,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을 컨설팅으로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생태계 전반의 중심적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임

58)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생협약 정책,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공동체형 트러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지표 개선 방안

-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바 기존 평가지표의 보완적 지표로서 활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문화를 향유자 차원에서 활동과 생산자의 개념으로 확장 : 문화활동
 - 문화발전의 경우 문화를 발전의 도구이자 완성, 통일성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차이와 차별, 다양성⁵⁹⁾에 기반하는 새로운 생성이라는 점에서 ‘문화창조’
 - 창조성의 경우 문화를 매개로 국민/시민들의 소통을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재생산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 생활문화활동 참여 지표는 일반적인 문화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 영향이 문화활동 내지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동일하며 의미적으로 특정한 문화활동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지표 개념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표 4-2-3〉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지표 개선 방안

기존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존 세부지표	개선 방안	
		평가지표(안)	세부지표(안)
공통 지표 (핵심지표)			
문화기본권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문화향유수준	1. 문화활동	문화접근권(access) 문화활동 기회와 참여 ※ 일상(생활)문화활동 포함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2. 표현 및 참여	숙의형커뮤니케이션 다학적가버넌스
문화정체성		문화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경관 보호 문화유산/경관 활용	3. 문화유산 및 경관	지역성(맥락)의 보존과 확산 현전성/장소성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4. 공동체	공동체와 사회자본 프라이버시와 환대
문화발전		문화창조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5. 문화다양성	문화적 종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표현 ※ 계층문화 포함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창조기반	6. 지속가능성	지역 (물적인적)자원 순환/확산 공유지대 및 공적영역 확대
특성화지표(자율지표)			
이상에서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의 문화적영향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과 지표			

59) “문화란 영혼이 그 자체의 내부에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것 - 따라서 아직 실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존재하는 것-이 더 고양되고 완성되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신세계의 어떤 지점에 고정된 이름을 들 수 있는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신세계 그 자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활력이 분출되는 것, 일종의 내적인 형식적 총동을 따르는 정신세계의 가장 고유한 맹아가 발전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모든 개별 형성물은 단지 영혼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게오르크 짐멜, 『문화이론』, p.20~21 중)

제3절 **이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1. 성과

□ 사업지 이해에 바탕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적용

- 본 연구에서는 이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정책적 목표와 사업지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영향평가 지침 상의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적용하였음
- 특히 비석마을, 피난도시 특성을 가진 사업 대상지 특성을 다양한 문헌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에 임하여 내면화되고 적용가능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체계적, 합리적 평가 실시를 통한 신뢰도 확보

-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각계 분야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평가와 정책 관계자 평가(주민)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한편 문화, 도시계획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평가단을 심도깊게 운영하여 평가에 임함으로써 평가 자체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음

□ 사업 주체의 문화에 대한 인식 환기

-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힘으로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성과가 가능함을 제시하여 사업 주체의 인식을 환기하였음
- 사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주체의 평가 결과 이해도를 제고하였음

□ 세부 사업별 아이디어 제시

- 수차례 평가 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이슈를 도출한 뒤 사업주체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몇 가지 유용성이 기대되는 사업을 제시함
-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 주체에게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문화영향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업주체의 사업 반응을 도모하였음

2. 과제

□ 조사 대상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 보완

- 문화영향평가 조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역, 사람, 사업 각 차원에서 조사 대상의 제약이 있었고 이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지역의 경우 핵심 사업 지역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사업 범위가 2중점 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파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람의 경우도 비석문화마을 인근의 주민 중심으로 정성적인 인터뷰 평가가 있었는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했음
 - 사업의 경우 연계 사업, 부처 협업 사업에 관한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선택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였음

□ 정책 관계자(주민) 조사의 조사 신뢰성 제고 방안 필요

- 평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관계자(주민) 조사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공감도에 따라 응답자 응답의 신뢰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관계자(주민) 조사의 경우 숙의형 조사(deliberative survey) 등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조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보임

□ 평가 결과의 해석에 있어 타당성 보완 필요

-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민, 전문가 평가 결과를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평가 결과 해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 연구 결과와 비교하거나,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등 다면적 평가 및 결과 해석이 필요해보임

□ 사업 주체 이해도 증진을 통한 문화영향평가 반영도 제고 노력 필요

- 본 문화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이 필요할 것임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국내문헌 및 도서

- 게오르크 짐멜 지음, 김덕영, 배정희 옮김(2007). 게오르크 짐멜의 문화이론
- 류교열(2008). 1920년대 식민지 해방도시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죽음의 폴리틱스
- 김연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 김용욱(1994). 근대개항기의 부산행정-1976-1910년을 중심으로
- 김종욱(2015). 부산의 대중음악-영도에서 부산항까지, 부산 사람들과 함께 한 부산의 대중음악
- 김준영 등(2016).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부산,영주,안동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현재의 지성 159
- 남지현 (2014).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집을 대상으로
- 남택부(2013).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2014). 반란의 도시
- 문예은(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 박규택·이상봉(2013).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 박승관(2000). 속의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 박진석(2017). 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연구-영국의 커뮤니티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박현희(2013). 낙후된 산동네가 한국의 대표적 문화마을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 신병윤(2013).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공적 공간구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 신우진 등(2016). 주민에 의한 성공적 도시재생: 영국 코인스트리트(Coin Street)
- 유승훈(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 유해연 등(2014). 베를린의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근린재생(QM)프로그램 연구
- 이유섭(2011). 근대역사환경 보전에서 진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임대근(2016).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로서 도시재생 연구
- 전창진·정철모(2014).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운장·김잔아(2016). 이화동 마을벽화 훼손 사건을 통해 본 공공미술의 문제-아렌트의 '공적 영역' 개념을 중심으로
- 정희영(2015).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주거공간 발생 및 변화과정
- 조명래(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 차철욱 등(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 황영식(2012). 도심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교연구-부산 태극마을, 비석마을, 안창마을

보도자료 및 브리핑자료

“근대문화거리에 일본전통의상이 꼭 필요한가요?” (전라일보, 2016년 8월 8일)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912>

근대 건축 문화유산의 현황과 활용 (네이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86725&cid=51946&categoryId=55025>

“나는 마을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오카베 도모히코 (이로운넷, 2012년 11월 23일)

<http://www.eroun.net/35695>

도시재생의 벽화마을, ‘갈등·대립·분열’...“이제는 지울까요?” (세계일보, 2017년 4월 23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23000026>

[마을만들기사례]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2324>

‘부산의 산토리니’ 감천문화마을 지도 강매 논란 (서울신문, 2016년 6월 19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0011006>

‘4층 호스텔 신축 논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경남도민일보, 2016년 7월 12일)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12871>

상가 신축 놓고 동피랑 정체성 위기 (부산일보, 2016년 7월 5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705000108>

알기쉬운 도시재생-사례로 알아보는 도시재생 -국외편- 01<일본 네리마구>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www.ggursc.or.kr/bbs/board.php?bo_table=easy_city&wr_id=2&sst=wr_hit&sod=desc&sop=and
&page=1](http://www.ggursc.or.kr/bbs/board.php?bo_table=easy_city&wr_id=2&sst=wr_hit&sod=desc&sop=and&page=1)

일본 네리마구, 주민들과 함께 일군 우수 근린재생 사례지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웹진)

[http://webzine.dgucenter.or.kr/webzine/bbs/board.php?bo_table=example_oversea&wr_id=12
&SA=](http://webzine.dgucenter.or.kr/webzine/bbs/board.php?bo_table=example_oversea&wr_id=12&SA=)

웹사이트

감천문화마을 <http://www.gamcheon.or.kr/>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동피랑마을 <http://www.dongpirang.org/>

순천도시재생지원센터 <http://urc.sc.go.kr/scurc/>

지역정보포털 <http://www.oneclick.or.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Ⅰ 부록 Ⅰ

1. 관계자 설문지
2. 전문가 평가서
3. 평가결과 요약표(서식 5)
4. 정책제언 도출(서식 6)

1. 관계자 설문지

설문D			면접원 ID		조사일시	2017.07.	
-----	--	--	--------	--	------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행기관	 코뮤니타스	 EMBRAIN a Macromill Group company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뢰로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7월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 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진 :
강구민 팀장 (코뮤니타스)
양혜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민오 차장/박주찬 과장 (마크로밀 엠브레인)

문의사항 :
☎ 02-3406-3921/02-3406-3974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동네 어디입니까?

① 아미동 ② 초장동 ③ 그 외 지역 → 설문 종료

SQ1-1 (면접원용) 아래 2개 중 응답자가 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1 구역	② 2 구역
비석마을을 포함하는 아미로 인근 지역 (사업중점지역)	아미동 아미동 주민센터, 아동보호 종합센터, 새마을금고 뒤 마을 초장동 해돋이로 아래 초장동주민센터, 초장성당, 초우빌라, 삼성빌라 인근 지역
	관음사 서편, 아미시영 아파트, 아미맨션을 오르는 길 아미초, 원광사 아래 부산대병원 인근

SQ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년

| 사업 개요 |

- 사업명 :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아미초장동은 한국전쟁 이후 일본인 공동묘지와 피난민의 난민촌으로 시작하여 부산 원도시의 배후 지역으로 성장하였으나 불량노후경사주거지로 현재는 사회경제물리적 쇠퇴로 인한 인구유출 및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아미초장동의 산동네 피난촌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고지대 근린상원 활력을 회복함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비석 주택과 비석 등의 역사문화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마을 고유의 매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 (약 5년)
-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초장동 일원 1,166,199㎡ (1.16km², 35만평)
- 사업규모 : 99억 4천만원 (마중물사업에 한정)
- 소관부서 : 부산광역시 서구청
- 사업내용 **※ 대상사업 상세자료 참조**

- ① 정주환경 개선 -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쌈지마당 만들기, 안신골목 안전도로 조성 등을 통해 옥내외 생활안전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분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② 근린경제 활력 - 지역내 공폐가를 조사/발굴하여 소유자와 임차 희망자간 정보제공 및 연계하는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게스트하우스 설립,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 근린상권 복원 등 활력제고 사업
 - ③ 역사문화 보전 - 비석자원, 최근 발굴된 비석주택, 남향이 보이는 자연경관 등 아미초장동 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매력을 살린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탐방로구축/홍보사업, 하늘경관 정리사업
 - ④ 주민참여 확산 - 주민역량강화사업, 아미초장 하자마을,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등 지역의 노년층, 일반주민,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창작활동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 사업 종합구상도



I.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사업의 취지나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다
- ②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다
- ④ 전혀 모른다

문2. 귀하는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목표나 취지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감 안함)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1. (문2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 문화 향유와 표현 및 참여

문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6년 7월-2017년 7월 현재까지) 다음의 문화행사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 | | |
|----------------------------------|------|------|---------|---------|
| 1) 공연 관람 (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댄스 등)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2) 전시 관람 (미술·사진·서예·공예 등)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3) 영화 관람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4) 역사문화유적지 관람(탐방)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5) 스포츠경기 관람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문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6년 7월-2017년 7월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다음의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공공기관 예시 :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등

- | | | |
|------------------------------------|------|------|
| 1) 공연(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댄스 등) 강의/교육 | ① 있다 | ② 없다 |
| 2) 미술·사진·서예·공예 등 시각예술분야 강의/교육 | ① 있다 | ② 없다 |
| 3) 영상·미디어 강의/교육 | ① 있다 | ② 없다 |
| 4) 문학·인문학(역사/철학 등) 강의/교육 | ① 있다 | ② 없다 |
| 5) 스포츠 관련 강의/교육 | ① 있다 | ② 없다 |

문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6년 7월-2017년 7월) 다음의 생활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활동에 모두 체크해주시오. (복수응답)

※ 생활문화활동 : 일반 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제로 일상적 삶 속에서 직접 창작·발표 등에 참여하는 활동
예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문화창작·발표활동 및 이를 위한 연습·교육·기획 활동 등 포함

- ① 문학 동호회 활동 / 문학 창작활동 / 문학행사 개최 (시/소설 짓기, 시화전, 개인도서출판 등)
- ② 음악 동호회 활동 / 음악창작활동/ 음악 발표회 (합주,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
- ③ 연극·뮤지컬 동호회 활동 / 연극·뮤지컬 창작활동/ 연극·뮤지컬 공연발표
- ④ 무용·댄스 동호회 활동 / 무용·댄스 공연발표
- ⑤ 영상·미디어 동호회 활동 / 영상·미디어 창작활동 / 영상·미디어 발표
- ⑥ 미술·사진·서예·공예 동호회 활동 / 미술·사진·서예·공예 창작활동 / 전시회
- ⑦ 스포츠 동호회 활동 / 스포츠 경기
- ⑧ 없다

문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6년 7월-2017년 7월) 생활권(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다음의 문화공간에 몇 회나 방문하셨습니다습니까?

- | | | | | |
|---------------------------------|------|------|---------|---------|
| 1) 도서관(작은도서관, 문학관 포함)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2) 공연장(문예회관, 소공연장 포함)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3) 박물관·미술관(대안공간 포함)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4) 영화관(작은영화관 포함)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5) 생활문화공간*(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연습/창작공간)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6) 역사문화유적(고궁, 능, 사찰 등)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7) 체육시설(운동장, 경기장 등)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8) 공원/광장 | ① 없다 | ② 1회 | ③ 2회~3회 | ④ 4회 이상 |

※ 생활문화공간 : 주민들이 생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문7.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동네에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 귀하는[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이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확충되는 비석마을 역사광장 (비석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수집하는 공간), 비석마을 추모공간 (유·무형 지역문화재를 보유한 대성사 내 추모공간 조성), 피난생활박물관 (비석주택 매입, 주민자료 수집으로 마을역사 아카이빙기록물 전시) 등의 문화공간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순위까지 기입해주시오.

(1순위 :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① 도서관
- ② 공연장 또는 공연공간
- ③ 미술, 공예, 사진 등 전시공간
- ④ 영화/영상/미디어 관람 공간
- ⑤ 강당 등 집회·교육공간
- 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 댄스 등 연습실
- ⑦ 공방, 모공소, 메이커 스페이스 등
- ⑧ 마을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 ⑨ 예술가 레지던시(창작 스튜디오 등)
- ⑩ 쉼터, 휴식공간
- ⑪ 기타 (_____)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또박또박 읽어줄 것)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창작스페이스, 노년층 대상 창작공방** 등을 건립하고 그 안에서 맞춤형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진행하여 마을 어르신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위와 같은 공방 등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민쉼터, 운동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쌈지마당 만들기 사업, 공동빨래터, 소규모 공동목욕탕** 등 다목적 공간인 **공동이용장**을 확충할 계획도 있습니다.

문10.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창작센터, 노년층 창작공방” 등의 문화공간이 확충된다면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문의향 없음	보통이다				방문의향 매우 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10-1. (문10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② 비용이 부담되서 ③ 멀어서 ④ 교통이 불편해서 ⑤ 관심이 없어서
⑥ 잘 몰라서 ⑦ 기타 ()

문12.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쌈지마당(쉼터, 놀이터, 운동 시설 등 다기능 옥외 커뮤니티 공간), 공동이용장(공동빨래터, 소셜다이닝, 공동부엌 기능 포함),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등의 생활문화공간이 확충된다면 방문 또는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없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12-1. (문12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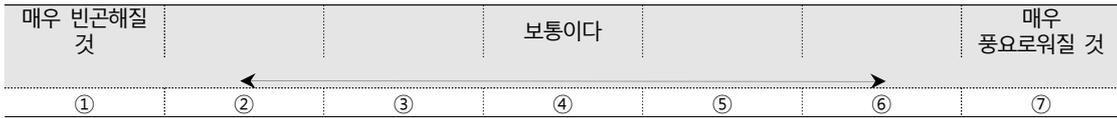
- ① 시간이 없어서 ② 비용이 부담되서 ③ 멀어서 ④ 교통이 불편해서 ⑤ 관심이 없어서
⑥ 잘 몰라서 ⑦ 기타 ()

문14.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으로 주민들이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축소될 것	보통이다				매우 확대될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14-1. (문14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6.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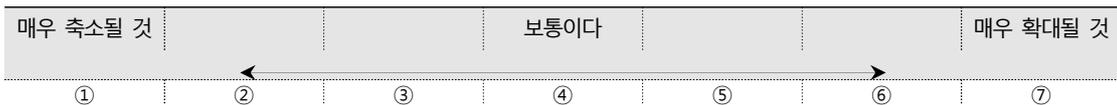
↳ 문16-1. (문16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또박또박 읽어줄 것)

본 사업에서는 아미·초장 주민이면 누구나 사업 계획 수립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인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도시재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상호간 연대감 증진, 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를 추진함은 물론, 마을학교,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등의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 일상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문18.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 기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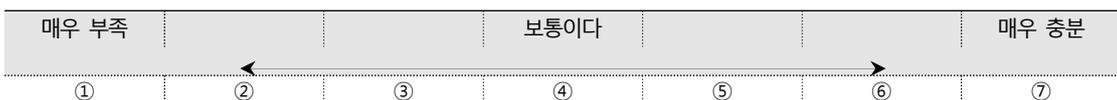


↳ 문18-1. (문18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9. 귀하는 평소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입안 과정이나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의견을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0. 귀하는[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의 계획 수립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1.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으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
현이나 참여 기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21-1. (문21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문화유산 · 경관 및 공동체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박또박 읽어줄 것)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비석자원, 비석주택 등을 통합관리하는 아미로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탐방로로 연결하는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학교, 하자학교, 마을축제 등을 통해 마을 내 여러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특히 아미초장동의 강점인 **원도심 경관자원 보전 및 조망권**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늘경관 정리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인근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이 비석마을로 유입하게 하고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고유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22. 귀하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계시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주시요.

유형문화유산			
<p>① 비석주택</p>  <p>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아미동에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이 이곳에 정착하고 공동묘지 비석들을 건축자재로 사용하면서 마을 곳곳에 비석주택이 등장함</p>	<p>② 비석자원</p>  <p>일본인 비석을 주춧돌, 계단 등으로 사용함. 2015년 1월 현장전수조사 결과 옥외에 127개소의 비석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p>	<p>③ 아미동 산신당</p>  <p>부산 서구에 있는 16개 당산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산신을 숭배하는 뜻에서 만들어졌음. 아미동 산신당이 아미동에 4개의 당산이 더 있음</p>	<p>④ 대성사</p>  <p>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절마다 남겨진 일본인 혼령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고 있음. 그 외, 묘지석을 이용한 석탑이 다수 있음</p>
<p>⑤ 총선사 일본불상</p>  <p>불상이 세워진 후 인근 지역에 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매해 석가탄신일에 주민들이 제를 지내고 소망을 기원</p>	<p>⑥ 광성사 티벳불교</p>  <p>국내 유일의 티벳사찰. 3층 법당에 경전, 탱화, 띠라보살 등이 있음. 주재하는 모든 스님이 티벳스님이며 여름철 템플스테이도 가능</p>	<p>⑦ 오래된 이발소, 국수집 등 생활공간</p>  <p>주민들의 생활의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인 최근에는 보기 힘든 오래된 이발소, 할머니 국수집 등 사랑방 공간</p>	<p>⑧ 천마산 전망대 등 자연경관</p>  <p>천마산, 옥녀봉, 아미산 등 산지와, 부산 남항의 항만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테라스 경관으로 2014년 영화의 배경장면으로 출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선정</p>

무형문화유산			
<p>⑨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p>  <p>1465년(세조 11)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을 후대에 번각한 것. 동일판본이 확인되지 않아 희소가치있음. 15세기 한글공부에 중요 자료</p>	<p>⑩ 부산 아미농악</p>  <p>부산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농악으로서 음력 정초에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을 빌어주는 걸립굿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p>	<p>⑪ 아미초장동 유래, 설화, 이야기 자원</p> <p>움집을 의미하는 '애막'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한자로 아미(峯巒)가 되었다는 아미동 유래와 목마장이 영도의 절영도 목마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명이 초장으로 바뀌 불렀다는 초장동 유래</p>	<p>⑫ 마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등</p>  <p>「아미동 아이들」, 「힐아버지집에는 귀신이 산다」 등 아미초장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p>
<p>⑬ 한복남, 장정구, 김정구 등 마을출신/관련 인물</p>  <p>도미도레코드를 창업한 <빈대떡신사> 작곡가 한복남, 5백여곡 히트곡의 가수 김정구. 전직 프로복싱 선수로서 세계복싱평의회 세계챔피언 장정구 등</p>	<p>⑭ 아미국수, 국수골목, 밀주 등 먹거리문화</p>  <p>피난민들이 비석마을에 정착하면서 다섯 군데 국수집이 생겼음. 현재는 다섯 가게 중 한 곳만이 남아있고, 국수골목이 형성되었음</p>	<p>⑮ 봉제, 재봉기술 등 생애기술, 일상문화</p>  <p>전쟁 이후 일본인이 빠져나간 빈집을 메웠던 신발, 섬유, 봉제공장과 노동자의 생애기술과 이들의 이야기</p>	<p>⑯ 축제 '아미동에서 놀자'</p>  <p>2014년 시작된 마을축제로서 지역자생조직인 '아미맘스'와 부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자발적 주민 축제</p>
<p>⑰ 기타 ()</p>	<p>⑱ 없음</p>		

문23. 귀하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에 방문 또는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방문 또는 체험하신 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 | | | | |
|------------------------------|--------------------------|-------------------------|-------------------|
| ① 비석주택 | ② 비석자원 | ③ 아미동 산신당 | ④ 대성사 |
| ⑤ 총선사 일본불상 | ⑥ 광성사(티벳불교) | ⑦ 오래된 이발소 등 생활공간 | ⑧ 천마산 전망대 등 자연경관 |
| ⑨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 ⑩ 부산 아미농악 | ⑪ 아미초장동 유래, 설화, 이야기 자원 | ⑫ 마을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
| ⑬ 한복남, 장정구, 김정구 등 마을출신/관련 인물 | ⑭ 아미국수, 국수골목, 밀주 등 먹거리문화 | ⑮ 봉제, 재봉기술 등 생애기술, 일상문화 | ⑯ 축제 '아미동에서놀자' |
| ⑰ 기타 () | ⑱ 없음 | | |

문24. 귀하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이 보호 또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 또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 | | | | |
|------------------------------|--------------------------|-------------------------|-------------------|
| ① 비석주택 | ② 비석자원 | ③ 아미동 산신당 | ④ 대성사 |
| ⑤ 총선사 일본불상 | ⑥ 광성사(티벳불교) | ⑦ 오래된 이발소 등 생활공간 | ⑧ 천마산 전망대 등 자연경관 |
| ⑨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 ⑩ 부산 아미농악 | ⑪ 아미초장동 유래, 설화, 이야기 자원 | ⑫ 마을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
| ⑬ 한복남, 장정구, 김정구 등 마을출신/관련 인물 | ⑭ 아미국수, 국수골목, 밀주 등 먹거리문화 | ⑮ 봉제, 재봉기술 등 생애기술, 일상문화 | ⑯ 축제 '아미동에서놀자' |
| ⑰ 기타 () | ⑱ 없음 | | |

문25. 귀하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 | | | | |
|------------------------------|--------------------------|-------------------------|-------------------|
| ① 비석주택 | ② 비석자원 | ③ 아미동 산신당 | ④ 대성사 |
| ⑤ 총선사 일본불상 | ⑥ 광성사(티벳불교) | ⑦ 오래된 이발소 등 생활공간 | ⑧ 천마산 전망대 등 자연경관 |
| ⑨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 ⑩ 부산 아미농악 | ⑪ 아미초장동 유래, 설화, 이야기 자원 | ⑫ 마을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
| ⑬ 한복남, 장정구, 김정구 등 마을출신/관련 인물 | ⑭ 아미국수, 국수골목, 밀주 등 먹거리문화 | ⑮ 봉제, 재봉기술 등 생애기술, 일상문화 | ⑯ 축제 '아미동에서놀자' |
| ⑰ 기타 () | ⑱ 없음 | | |

문27. 본 사업을 통해 기존의 비석자원과 마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조성될 “근대역사테마길, 피난생 활박물관, 비석마을 역사광장 및 추모공간” 등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문의향 없음	보통이다					방문의향 매우 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7-1. (문27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9.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아미동, 초장동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을 보호 또는 보존하는 데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침해.훼손	보통이다					보호 보존에 큰 도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비석주택, 비석관련 자원 및 사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오래된 이발소, 천마산 전망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아미농악, 마을유래/이야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마을 인물, 먹거리, 생애기술, 일상문화, 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세부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또는 보존에 대한 의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9-1. (문29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1.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이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이미중, 초장동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31-1. (문31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또박또박 읽어줄 것)

본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 가운데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주민들이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는 창작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주민활력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아미동에서 놀자 축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33. 귀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만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웃과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동네 주민들 사이에는 유대관계가 두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동네로 이사기야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리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우리 동네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종종 이웃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우리 동네에서 밤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지역이나 조적을 위해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5. 귀하는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이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다음의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네 주민들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동네 주민들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동네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더 두터워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동네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동네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5-1. (문35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 공동체 행사인 ‘아미동에서 놀자’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38. 향후 지역에서 진행될 도시재생대학, ‘아미동에서 놀자’ 축제, 청소년 창작활동/동아리,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마을창작공방 등 문화활동 및 공동체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 의향이 있다면 세부 프로그램(또는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은 어떠합니까?

	참여의향 없음			보통이다			참여의향 매우 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민 상호간 연대감 증진위한 ‘아미동에서 놀자’ 축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창작활동/동아리 및 마을학교 (창작스페이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노년층 등 전 계층 대상 관심사에 따른 마을창작공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전반적인 참여 의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문화다양성과 창조성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또박또박 읽어줄 것)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인종, 국가별로 다른 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소수의 문화라도 존중받고 장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령층 비율이 높은 아미동·초장동에 대해서는 실버문화를 존중/장려하기 위해 성인층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활용하시어 예술·창작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마을창작공방을 조성**함으로써 아미동·초장동만의 독특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젊은 엄마, 여성, 청소년** 등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39.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문화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편임	보통	중요한 편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순수예술 (클래식, 현대미술, 발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대안문화/독립문화/인디문화 (독립영화, 인디밴드, 실험예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하위문화 (여성문화, 청소년문화, 이주민 문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통문화 (사물놀이, 마당극, 풍습, 설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상업문화(대중문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대안문화/독립문화/인디문화 : 상업성, 대중성보다는 예술성과 실험성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예 : 워남소리, 흥대 앞 인디밴드 등)
- ※ 하위문화 : 주류적 문화는 아니지만, 각 하위집단이 고유하게 공유하고 있는 문화
- ※ 전통문화 : 한국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온 한국 고유의 문화

문40.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년층(실버세대), 여성, 청소년 문화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편임	보통	중요한 편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2.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마을의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만드는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다양성 침해	보통이다	문화다양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2-1. (문42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43. 귀하는 다음에 언급된 집단의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국적이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종교가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세대(연령대)가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5.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이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마을에 소수집단으로서 고령자, 여성, 이동/청소년 등의 문화적 권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45-1. (문45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또박또박 읽어줄 것)

일률천편적인 집수리 사업 내지 환경/물리적 개선 사업을 탈피하여, 집수리교육을 이수한 마을지기 단원들로 구성된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여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친환경 주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청소년 창작스페이스·마을창작공방** 등도 단순한 교육을 벗어나 참여 주민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기반할 것입니다.

한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여 향후 관광객 유입, 상점 운영, 게스트하우스 등의 수익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환경개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을 통해 공폐가 문제 해결 및 원주민 유출을 방지하는 등 마을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고 주민의 정주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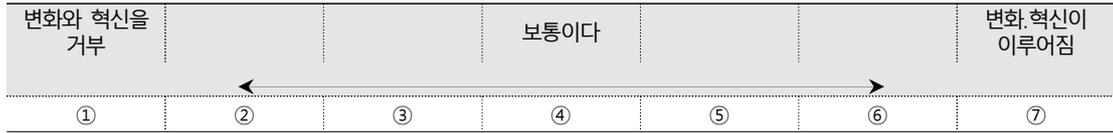
문46.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7.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창조인력에게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8.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9. 귀하는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지역에 창조인력을 모이게 하거나 창조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창조인력이나 창조산업을 별도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누어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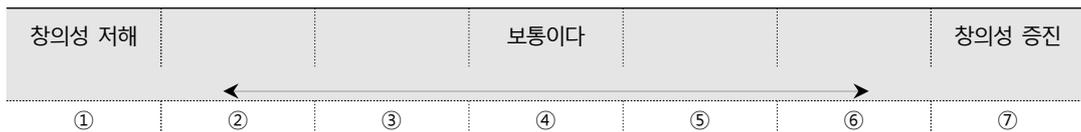
※ 창조인력 : 문화예술단체, 콘텐츠기업, 벤처기업, 과학기술단체, 연구기관, 창업기업, 청년 등

※ 창조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과학기술산업, 첨단산업, 벤처산업 등



문49-1. (문49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50. 귀하는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지역 구성원의 창의성에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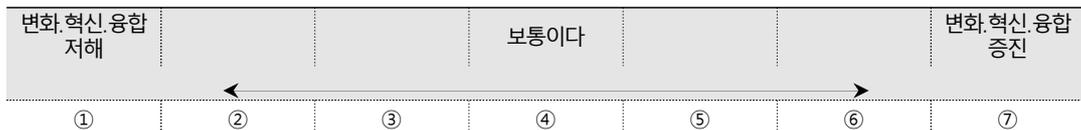


문50-1. (문50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51. 귀하는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또는 융합)에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융합 : 산업간, 인력간, 분야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을 의미

※ 사업 내용에 융합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융합을 제외 가능



문51-1. (문51에서 ①②③ 응답자 대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52.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한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3. 귀하는[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귀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불행해질 것			보통이다			행복해질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4.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거주 지역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 편인지 금방 드는 느낌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1) 나는 평소 사람들이 쓰지 않는 너만의 새로운 것을 찾아 표현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새로운 제안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업을 통해 마을 내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신규 창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5. 평소 마을 내에서 친구 또는 지인을 만나 어느 정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 ① 잘 만나지 않음 ② 한달에 몇 번 정도 ③ 일주일에 3~4번 ④ 매일 1번 이상

문56. 마을 통장장 등 리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② 다소 신뢰하지 않음 ③ 다소 신뢰 ④ 매우 신뢰

문57. 살고 계신 아미동 또는 초장동의 이미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문58. 마을내 지인, 친구 등에 한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은 대략 몇 명이십니까?

() 명

문59. 귀하는 스스로 다양한 문화 및 다른 인종, 성별 등에 대해 스스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폐쇄적 ② 폐쇄적 ③ 개방적 ④ 매우 개방적

문60. 마을에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내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이 만들어진다면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있음 ④ 매우 많음

V.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Q1. 귀하가 아미·초장 지역에 거주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 현 주소지의 범위 : 사업대상 범위로 한정

Q2. 귀하의 현 주소지 이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① 아미동 ② 초장동 ③ 그 외 지역 ()

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③ 대학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원 석사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원 박사 이상(중퇴 포함)

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등)
-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 선반, 목공 숙련공 등)
- ⑤ 단순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⑥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 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 ⑦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언론인, 연구원 등)
- ⑧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⑨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⑩ 주부(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
- ⑪ 학생
- ⑫ 무직/퇴직
- ⑬ 기타 ()

Q5.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가족 전체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 연금, 각종 보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세후금액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Q6. 귀하의 현재 거주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자가소유 ② 월세 ③ 전세 ④ 기타 ()

Q7.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별거/사별

Q8. 귀하의 닥의 가구원은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Q9. 귀하는 과거 또는 현재에 문화 분야(문화예술계, 문화콘텐츠업계 등)에 종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종사 분야 : _____ 종사 기간: _____) ② 없다

Q10. 귀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① 다문화 가정임 ② 다문화 가정이 아님

Q11. 귀하는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장애인 등록증 보유 ②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사업 개요 |

- 사업명 :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아미초장동은 한국전쟁 이후 일본인 공동묘지와 피난민의 난민촌으로 시작하여 부산 원도시의 배후 지역으로 성장하였으나 불량노후경사주거지로 현재는 사회경제물리적 쇠퇴로 인한 인구유출 및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아미초장동의 산동네 피난촌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고지대 근린상원 활력을 회복함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비석 주택과 비석 등의 역사문화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마을 고유의 매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 (약 5년)
-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초장동 일원 1,166,199㎡ (1.16km², 35만평)
- 사업규모 : 99억 4천만원 (마중물사업에 한정)
- 소관부서 : 부산광역시 서구청
- 사업내용 **※ 대상사업 상세자료 참조**

- ① 정주환경 개선 -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쌈지마당 만들기, 안신골목 안전도로 조성 등을 통해 옥내외 생활안전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분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② 근린경제 활력 - 지역내 공폐가를 조사/발굴하여 소유자와 임차 희망자간 정보제공 및 연계하는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게스트하우스 설립,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 근린상권 복원 등 활력제고 사업
 - ③ 역사문화 보전 - 비석자원, 최근 발굴된 비석주택, 남향이 보이는 자연경관 등 아미초장동 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매력을 살린 아미로 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탐방로구축/홍보사업, 하늘경관 정리사업
 - ④ 주민참여 확산 - 주민역량강화사업, 아미초장 하자마을,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등 지역의 노년층, 일반주민,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창작활동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 사업 종합구상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도시재생사업] 평가지표 가중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표별 분석에 적용하되, 사업 세부/세세부지표간 가중치 설정 필요
 - (중합 점수화하지 않음) 6개 지표간 중요도를 반영한 자체 가중치 필요
 - 향후 문화영향평가 전문가평가 가중치를 설정하는 참고 자료로 제시
- ▶ **전문가 평가단 대상 지표 델파이 조사를 전문가 평가와 함께 병행하여 진행**

1. 지표 간 가중치

- 아래 6개 지표별 중요도를 전체 100으로 보고 적어 주십시오.

지표	A.문화기본권		B.문화정체성		C.문화발전		합계
	A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A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B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B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C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C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점수							100

2. 세부지표간 가중치

A.문화기본권				합계
A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A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A11 문화접근성	A12 문화향유수준	A21 표현 및 참여기회	A22 생활문화예술 참여	
				100

B.문화정체성				합계
B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B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B11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	B12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	B21 사회적 자본	B22 문화공동체	
				100

C.문화발전				합계
C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C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C11 문화적 종 다양성	C12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C21 창조자본	C22 창조기반	
				100

1.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창작스페이스, 노년층 대상 창작공방** 등을 건립하고 그 안에서 맞춤형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진행하여 마을 어르신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위와 같은 공방 등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민쉼터, 운동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쌈지마당 만들기 사업, 공동빨래터, 소규모 공동목욕탕** 등 다목적 공간인 **공동이용장**을 확충할 계획도 있습니다.

문1.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으로 예측되는가?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영향 없음)	약간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주민들의 문화접근성 에 미치는 영향 - 주민들이 문화예술 관람이나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민들의 문화향유수준 에 미치는 영향 - 주민들이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문3. 개선방안 또는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본 사업에서는 **아미·초장 주민**이면 누구나 사업 계획 수립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인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도시재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상호간 연대감 증진, 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를 추진함은 물론, **마을학교,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등의 **아미·초장 하자마을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 일상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문4.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의 ‘표현 및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으로 예측되는가?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영향 없음)	약간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주민들의 표현 및 참여기회 에 미치는 영향 - 사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실제 정책대상자가 참여하거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보장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 참여 에 미치는 영향 - 주민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 등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인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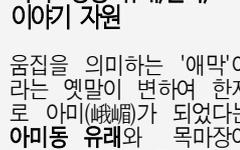
문5.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문6. 개선방안 또는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II. 문화유산 · 경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비석자원, 비석주택** 등을 **통합관리하는 아미로100년 근대역사가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탐방로**로 연결하는 **아미·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학교, 하자학교, **마을축제** 등을 통해 마을 내 여러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특히 아미초장동의 강점인 **원도심 경관자원 보전 및 조망권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늘경관 정리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인근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이 비석마을로 유입하게 하고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고유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			
비석주택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아미동에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이 이곳에 정착하고 공동묘지 비석들을 건축자재로 사용하면서 마을 곳곳에 비석주택이 등장함	비석자원  일본인 비석을 주춧돌, 계단 등으로 사용함. 2015년 1월 현장전수조사 결과 외에 127개소의 비석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아미동 산신당  부산 서구에 있는 16개 당산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산신을 숭배하는 뜻에서 만들어졌음. 아미동 산신당 외 아미동에 4개의 당산이 더 있음	대성사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절마다 남겨진 일본인 혼령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고 있음. 그 외, 묘지석을 이용한 석탑이 다수 있음
총선사 일본불상  불상이 세워진 후 인근 지역에 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매해 석가탄신일에 주민들이 제를 지내고 소망을 기원	광성사 티벳불교  국내 유일의 티벳사찰. 3층 법당에 경전, 탱화, 띠라보살 등이 있음. 주재하는 모든 스님이 티벳스님이며 여름철 템플스테이도 가능	오래된 이발소, 국수집 등 생활공간  주민들의 생활의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인 최근에는 보기 힘든 오래된 이발소, 할머니 국수집 등 사랑방 공간	천마산 전망대 등 자연경관  천마산, 옥녀봉, 아미산 등 산지와, 부산 남향의 항만 사이에 입지한 전형적인 테라스 경관으로 2014년 영화의 배경 장면으로 출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선정
무형문화유산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1465년(세조 11)에 강릉도감에서 간행한 연해본을 후대에 번각한 것. 동일판본이 확인되지 않아 희소가치 있음. 15세기 한글공부에 중요 자료	부산 아미농악  부산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농악으로서 음력 정초에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을 빌어주는 걸립굿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아미초장동 유래, 설화, 이야기 자원  읍집을 의미하는 '애막'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한자로 아미(峨岬)가 되었다는 아미동 유래 와 목마장이 영도의 절영도 목마장으로 옮겨가 되면서 지명이 초장으로 바뀌 불렀다는 초장동 유래	마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등  「아미동 아이들」, 「할아버지집에는 귀신이 산다」 등 아미초장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하복남, 장정구, 김정구 등 마을출신/관련 인물  도미도레코드를 창업한 <빈대떡신사> 작곡가 한복남, 5백여곡 히트곡의 가수 김정구. 전직 프로복싱 선수로서 세계복싱평의회 세계챔피언 장정구 등	아미국수, 국수골목, 밀주 등 먹거리문화  피난민들이 비석마을에 정착하면서 다섯 군데 국수집이 생겼음. 현재는 다섯 가게 중 한 곳만이 남아있고, 국수골목이 형성되었음	봉제, 재봉기술 등 생애기술, 일상문화  전쟁 이후 일본인이 빠져나간 빈집을 메웠던 신발, 섬유, 봉제공장과 노동자의 생애기술과 이들의 이야기	축제 '아미동에서 놀자'  2014년 시작된 마을축제로서, 지역자생조직인 '아미맘스'와 부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자발적 주민 축제

문7.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의 문화유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으로 예측되는가?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영향 없음)	약간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주민들의 문화유산/경관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 내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조치 규정 및 고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민들의 문화유산/경관 창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 - 대상지 내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을 활용하여 고유가치가 더욱 부가된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문9. 개선방안 또는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본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 가운데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주민들이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는 창작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주민활력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아미동에서 놀자 축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10.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으로 예측되는가?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영향 없음)	약간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주민들의 사회적자본 에 미치는 영향 -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조를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에 미치는 영향 - 대상지 내 주민자발적 문화동아리 등 조직 및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의 협력과 문화적 표현 확대 기여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1.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문12. 개선방안 또는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III.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인종, 국가별로 다른 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소수의 문화라도 존중받고 장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령층 비율이 높은** 아이동·초장동에 대해서는 **실버문화를 존중/장려하기 위해 성인층**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활용하시어 예술·**창작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마을창작공방**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동·초장동만의 독특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젊은 엄마, 여성, 청소년** 등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13.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이·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으로 예측되는가?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영향 없음)	약간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주민들의 문화적 종다양성 에 미치는 영향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민들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에 미치는 영향 - 소수집단 내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4.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문15. 개선방안 또는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일률천편적인 집수리 사업 내지 환경/물리적 개선 사업을 탈피하여, 집수리교육을 이수한 마을지기 단원들로 구성된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여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친환경 주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 마을창작공방** 등도 단순한 교육을 벗어나 참여 주민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기반할 것입니다. 한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여 향후 관광객 유입, 상점 운영, 게스트하우스 등의 수익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환경개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을 통해 **공폐가 문제 해결 및 원주민 유출을 방지하는 등 마을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고 주민의 정주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16.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 · 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의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측되는가?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영향 없음)	약간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부 질문]							
(1) 주민들의 창조적자본(인력, 창의성) 에 미치는 영향 - 교육받은 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혁신창출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민들의 창조기반 에 미치는 영향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의성을 창출할 수 있게 자극하는 제도적 기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7.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문18. 개선방안 또는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IV. 평가종합

문19.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어떠한 것으로 예측되는가?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영향없음)	약간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19-1.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평가결과 요약표(서식 5)

평가항목	평가지표	영향의 양태/경로/범위와 판단근거	영향지수 (100점 기준)	계획 또는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추진의지가 높음 - 창작스페이스, 공동이용장 등 ○ 문화향유수준의 양적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예측됨 	67.1점	○ 규정 없음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대상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음 ○ 생활문화활동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이 있고 커뮤니티 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70.7점	○ 규정 없음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과 유·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여 가치를 제고하려는 계획이 있음 ○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 계획은 다소 부족함 	65.0점	○ 규정 없음 - 문화유산 및 경관 활용을 위한 별도 조례 등 마련이 필요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완화하고 신뢰를 증진시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문화단체/시설, 예술가/단체 등 외부와의 결합은 다소 부족함 	65.1점	○ 규정 없음 -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등 규정 마련이 필요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문화나 권익을 보호하고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을내 소수집단에 대한 접근은 다소 필요해 보임 	67.3점	○ 규정 없음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을 발굴/양성하고 다양한 외부인재와 결합하는 계획이 있음 ○ 복덕방 사업 등 공유지대 구축을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의 계획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71.2점	○ 규정 없음 -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상생협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특성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음 ○ 사업을 통한 정주성은 약간 있는 편임 		○ 규정 없음

4. 정책제언 도출(서식 6)

정책 및 계획의 기존 내용 (before)	평가의 주요내용	개선과제 (afte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주민리더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과 주민, 활동가 등 참여 주체의 역할 등이 잘 짜여진 계획임 문화분야 외부 파트너십, 문화분야 인력 또는 연계단체가 다소간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분야 인력(활동가) 확충 또는 외부 전문가 결합 → 도시문화기획자 활용 (부산시 '도시재생일자리 프로젝트 교육생 등 연계) 	창조도시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모사업 및 하자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연령대 폐쇄적, 기능 강습형 문화활동 성격이 강함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에 다소간 제약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활동 종류와 성격을 확대할 필요 → 문해교육, 리터러시 교육, 생활문화 활동 등 	창조도시과 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단체가 문화부문 사업을 위탁운영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문화향유 및 표현/참여, 공동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위탁단체의 전문성, 다양성에 다소간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문화영향으로 발현되는 데 제약요건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운영 조건에 협업/연계 추진 항목을 명시 → 협업 단체 발굴, 협업내용 명시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로 100년 근대역사기록화 사업 추진을 통해 비석 자원, 피난마을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계승, 활용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석에 대한 아카이브 연구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고 비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정해 경계 도시의 고유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전문적, 학술적 접근이 부족하여 콘텐츠의 원형성을 보여 주는데까지는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석, 마을자원 아카이브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 연구 및 전문 자문 필요 → '도시민속, 문화인류학 등 전문가 자문' 및 '아카이브 연구' 필요 → 비석마을의 '생애사, 개인사 연구/콘텐츠 사업 필요 	창조도시과 부산시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마초장 탐방로 구축 및 홍보사업을 통해 비석주택 등 문화자원을 명소화하여 지역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로와 주민 일상공간의 중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프라이버시 확보 가이 drain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보호 → '오픈타임제(Open time)' 	창조도시과

정책 및 계획의 기존 내용 (before)	평가의 주요내용	개선과제 (afte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덕방, 미니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덕방, 미니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슬럼화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주택현황 분석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은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덕방 사업 핵심사업화 → 고토부키초 사업 심층 분석/벤치마킹 → 복덕방 사업 비중 강화 (예산, 인력)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건립을 통해 교육문화시설 확충, 지역 인재 유출 방지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창작스페이스 공간의 규모에 비해 이용객을 적은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창작스페이스의 이용 범위 확대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 수립 필요 → ‘라키비움’, ‘격대격 교육 프로그램’ 등 고민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상권 활력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다양한 점포 설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단, 지대 상승에 대한 젠트리화 방지/완화 계획이 없어 향후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내부 규약, 구차원의 상생 협약 마련 → ‘상생협약 조례’ 및 규칙 	창조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마을 사업을 통한 주민 다수의 문화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생활문화를 결합한 문화활동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보임 • 통합문화이용권, 지역문화재단 연계 등을 통한 후속 사업 계획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사업 연계 시너지 제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연계 및 마을기업 등을 사용처로 등록 추진 • ‘일용직 근로자, 남성 대상 문화프로그램’ 필요 	문화관광과 부산문화재단 부산서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단체와의 협업 계획이 있지만 다소간 한정된 네트워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연계파트너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사업 연계 필요 예) 어른문화프로그램 (청년-어르신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장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설립/활용할 계획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될 공간의 지속운영 프로그램 계획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지속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 생활문화를 거점으로 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등 	문화관광과 ※담당 : 지역문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화 등 사회적경제 주체화 계획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순환구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업 모델, 상품 계획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발굴 및 콘텐츠/상품화 과정 필요 → ‘비즈니스 모델 발굴’ 단계 및 전문 컨설팅 필요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 ※담당 :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 연구진

■ 연구책임

강구민 (코뮤니타스 연구기획팀장)

■ 공동연구

고영직 (문학평론가)

이강형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연구원

김아영 (코뮤니타스 연구2팀장)

전윤정 (코뮤니타스 연구1팀장)

문준호 (코뮤니타스 연구원)

■ 연구보조원

홍근택 (코뮤니타스 연구원)

신민혁 (코뮤니타스 연구원)

조이슬 (코뮤니타스 연구원)

■ 보조원

김민경 (코뮤니타스 연구원)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

발 행 인 : 김정만

발 행 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 전화 02-2669-9800

: 팩스 02-2669-9880

: <http://www.kcti.re.kr>

연 구 기 관 : 코뮤니타스

발 행 일 : 2017년 10월

인 쇄 처 : 대학복사

ISBN : 978-89-7820-936-6 93300
